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張 源 哲

한국 字典의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매체적 관점의 고찰

A Research on Constructing Hanja Dictionary
on the Internet —from a Standpoint of Media.

慶 尙 大 學 校 大 學 院

漢 文 學 科

柳 印 泰

2014. 8.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張 源 哲

한국 字典의 웹 서비스 구현에 대한
매체적 관점의 고찰

A Research on Constructing Hanja Dictionary
on the Internet —from a Standpoint of Media.

이 論文을 漢文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慶 尙 大 學 校 大 學 院

漢 文 學 科

柳 印 泰

2014. 8.

柳印泰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委員長 허 권 수

委員 윤 호 진

委員 장 원 철

慶 尙 大 學 校 大 學 院

2014. 8.

目 次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향	1
2. 연구 범위와 방법	18
II. 기존 字典에 적용된 분류·배열·검색 방식에 대한 고찰	28
1. 部首를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30
2. 音を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43
3. 劃數를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55
4. 여타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63
III. 웹 字典에 적용되는 분류·배열·검색 방식에 대한 고찰	71
1. Hypertext의 기본적 특성이 갖는 매체적 의미	74
2. 특징적 Interface가 갖는 매체적 의미	86
IV. 결론	99
◇ 참고문헌	104

Abstract

A Research on Constructing Hanja Dictionary on the Internet –from a Standpoint of Media.

Ryu, In Tae

Department of Korean Classics in Chinese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OK

Supervised by Professor Jang, Won Cheol

This paper points out the drawbacks of the precedented ‘web publishing of Classical Chinese document’, discussing how to fix the problems and bring scope for improvements from a standpoint of media. Only was ‘Hanja dictionary’ chosen as specific object of the research because of comprehensiveness of the concept of ‘Classical Chinese document’,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both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which has a type of publications and the digital ‘Hanja dictionary’ which is constructed on the Internet. The viewpoint used to analyze both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and the digital ‘Hanja dictionary’ is based on the references that are usually handled in the Modern Semiotics and theories of Media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another disciplines that study human culture and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are used by the existing state of things to this research.

As a media,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spring from its ways of classification·arrangement·search. For example, these particular ways by using its radical word[部首] and consonant-vowel[音] and number of strokes[劃] are typical factors of ‘Hanja dictionary’ as a media, and besides there are another ways of classification·arrangement·search such as “search method based on the stroke order[筆順檢字法]”, “search me-

-thod based on the assigning certain numbers to four equally divided parts of Hanja[四角號碼法]”. As a media, the characteristics of ways of classification·arrangement·search that have diverse denotations of the society·culture·language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reflect a vision of the universe from the confucian traditions,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Hanja as a ideogram, unique identity of Hangul that contains Hanja and so on. This helps us understand how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influences with the Middle Age society in terms of media. In addition, it enables us to recognize that the media of the Middle Ages has subliminal influence with the modern peopl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is still being used in today’s Modern society.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has been constructed in various forms on the Internet with the changes in Multimedia Environment. But it seems that diverse digital ‘Hanja dictionary’ has not been capable of inheriting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properly. Because most digital ‘Hanja dictionary’ focus on efficiency of the new technology. In a networked computing environment, they are focussing only on the efficiency of searching information, neglecting diverse denotations of the society·culture·language of the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The technology of networked computing has the positive possibilities of the ‘remediation’. However to convert the possibilities into reality, it is essential to hav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and the digital ‘Hanja dictionary’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Conclusively,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raditional ‘Hanja dictionary’ and digital ‘Hanja dictionary’ support the previous ‘web publishing of Classical Chinese document’ on the aspect of understandings on media and reflects careful thoughts on how understandings on media could be applied to ‘web publishing of Classical Chinese document’.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향¹⁾

1) 문제의식의 대두

현대 문학의 거장 J.L. 보르헤스의 단편 가운데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작품이 있다. 작품에서 ‘푸네스’는 낙마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는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억력을 갖게 되는 인물이다. 일반인들이 흐릿한 사진을 꺼내어 보는 정도로 옛날 일을 기억한다면, 푸네스는 옛 일을 기억함에 있어서 선명한 영상을 끊어짐 없이 돌려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바로 그러한 푸네스의 놀라운 기억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한눈에 탁자 위에 있는 세 개의 컵을 감지하지만, 푸네스는 포도 덩굴에 달린 모든 포도 알과 포도 줄기, 그리고 덩굴손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1882년 4월 30일 동틀 무렵 남쪽 하늘의 구름 모양을 알고 있었으며, 기억 속의 구름과 딱 한 번 보았을 뿐인 어느 책의 가죽 장정 줄무늬, 혹은 케브라초 전투 전야의 네그로 강에서 어떤 노가 일으킨 물보라를 비교할 수 있었다.²⁾

푸네스의 기억력은 시공간을 불문하고 모든 순간과 지점을 포착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의 지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력은 단순히 ‘일반인보다 잘 기억한다’는 맥락을 벗어나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기억한다’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망각과 기억을 넘나들며 기억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보통 사람과 달리, 푸네스는 모든 것을 기억할 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 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푸네스의 특수

1) 본고를 작성하게 된 연구 동기와 관련하여 김현, 김성도 교수의 기존 연구결과인 ‘인문정보학’과 ‘융합기호학’이 큰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김현 교수는 ‘인문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를 제안하고 이를 명시적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끔 하였으며 그에 대한 총괄적 맥락이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에 소개되어 있다. 김성도 교수는 ‘융합기호학’이라는 새로운 기호학 분과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시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저·송병선 역, 『픽션들』, 민음사, 2011. p.143

한 기억방식은, 그가 ‘일반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작품 속 화자의 진술을 통해서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에게는 일반적인 사고, 즉 플라톤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개’라는 속(屬)적 상징이 형태와 크기가 상이한 서로 다른 개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또한 3시 14분에 측면에서 보았던 개가 3시 15분에 정면에서 보았던 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곤 했다. 또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손을 보고 매번 놀라기도 했다...(중략)...그는 힘들이지 않고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라틴어를 배웠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고하는 데는 그리 훌륭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본다. 사고라는 것은 차이점을 잇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다. 푸네스의 비옥한 세계에는 상세한 것들, 즉, 곧바로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것만 존재했다.³⁾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주화’ 또는 ‘일반화’라고 부르는 사고능력이 푸네스에게는 부재한다. 그것은 그의 놀라운 기억능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그 기억능력이 퇴화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의 존재 조건 가운데 하나로 끊임없이 각인될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보통 사람의 경우 기억과 망각의 무의식적 선택으로 인해 의식적 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언어적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하는 모든 대상을 ‘고유명사’로 인지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명사’로 수용하는 행위는, 두뇌활동의 경제성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기억과 사고 작용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뇌 활동에 쏟아 부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삶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네스는 보통 사람과 달리 모든 대상을 ‘고유명사’로 인지하는 기억력을 보여준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범주화’ 혹은 ‘일반화’에 근거하여 수많은 대상을 분절·종합해나가는 사유의 그물화 과정이라면, 푸네스의 사고 방식은 오로지 영상화된 기억을 재생하는 일련의 검색 절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네스가 단기간에 놀라운 언어능력을 확보하는 장면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3) 앞의 책. p.146

이레네오는 그러면서 “내가 아직 라틴어를 모르니 원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과 함께 가지고 있는 라틴어 책들 중에서 아무것이나 빌려달라고 부탁했다...(중략)...물론 처음에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내 사촌들은 절대로 농담이 아니며, 그것은 이레네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게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그 힘든 라틴어를 배우는 데 사전 이외의 그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그의 생각이 뻘뻘스러운 자부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식하거나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⁴⁾

이레네오는 곧 푸네스를 가리킨다.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빈정거림 혹은 걱정과는 상관없이 푸네스는 놀랍게도 단기간에 매우 정교한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러한 언어적 능력을 갖추게끔 도움을 준 요소는 오직 사전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을 통해 여러 어휘가 가진 다양한 의미맥락을 섭렵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통능력을 기른다는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범주화’ 혹은 ‘일반화’ 개념이 작동한다고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뿐더러, 그러한 사전적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언어적 능력 또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전만 보고 놀라운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푸네스의 사고능력은 매우 흥미로운 알레고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범주화’ 혹은 ‘일반화’를 통해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정보 및 지식을 ‘고유명사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푸네스 기억력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력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전율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 갑자기 이레네오의 빈정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라틴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 연설문이나 기도문, 혹은 주문 같은 것을 섬뜩할 정도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낭송하는 중이었다. 흠이 깔린 뜰에 로마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말은 이해 불가능하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⁵⁾

인용에서 표현된 화자의 공포는 낯선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적 느낌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접할 수 있는 판단

4) 앞의 책. p.139

5) 앞의 책. p.141

의 정지 상태라 할 수 있다. 라틴어를 낭송하는 푸네스의 모습은, 단순히 언어습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뿔어내는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 ‘기억’ 개념을 벗어나 사유하는 새로운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를 현실에 연장하여 생각해 볼 경우, 사전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어 구문을 정확히 낭송하는 푸네스의 모습을 통해, 멀티미디어⁶⁾ 환경이 익숙한 현대인이 네트워크 환경에 자리 잡은 사전의 내용을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검색결과물을 정확히 재배열하는 모습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는 애초 ‘기억’이라는 존재의 조건이 영구적 ‘저장’과 선택적 ‘검색’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을 상기하게 만든다. 오히려 끊임 없이 저장된 것을 끊임없이 검색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경우, 의식적 기억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볼 경우, 푸네스는 기억의 천재가 아니라 영구적 ‘저장’과 선택적 ‘검색’이 가능한 네트워크적 인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이 보기에 의식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스스로는 타인이 갖추고 있지 않은 규모의 ‘저장’과 타인이 흉내 낼 수 없는 신속한 ‘검색’ 능력을 갖춘 인간 유형에 가까운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푸네스의 상황은, 곧 멀티미디어적 환경에서 수많은 정보를 분류·검색해야하는 현대적 인간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독특한 알레고리라 하겠다. 가령, 기억을 영상화하여 재생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범주화’ 혹은 ‘일반화’를 통해 분절화하지 못하는 푸네스의 측면은, 영상과 음성 그리고 이미지가 시시각각 변형·결합되는 컴퓨터 매체에 종속되어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체계에 그 문화적 공간을 마련한 새로운 세대의 경우 문자보다는 음성이 결합된 영상 혹은 이미지가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매개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6) 멀티미디어를 정의하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의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다음의 인용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일단 그것의 상대 개념인 ‘모노미디어’의 종합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모노미디어란 문자, 음향,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중 어느 것 한 가지를 전달하는 매체를 뜻한다. 라디오와 전축은 음향 정보를 유통시키는 모노미디어이며, TV와 VCR은 영상 정보를 전달·보급하는 모노미디어들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돌입하기 전 컴퓨터는 문자와 수치 정보를 처리·전달하는 모노미디어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자와 수치만을 취급하던 컴퓨터가 그림과 소리도 다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움직이는 영상까지도 데이터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컴퓨터는 문자·음향·영상 등 과거 모노미디어들이 한 가지씩 전달하던 정보의 여러 형식을 모두 포섭하고 그것들을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이른바 ‘멀티미디어’의 주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한 멀티미디어는 ‘종합적인 정보 처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노미디어들보다 발전적이지만 음향·영상 등 개별 정보의 가공 수준은 아직도 모노미디어의 그것에 비해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내용의 유관성에 따라 연계시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아직은 실험적인 요소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변신을 거듭한다.”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p.246

그에게 잠을 자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푸네스는 침대에 드러누운 채, 어둠 속에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집들의 장식 쇠시리와 벽의 균열을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⁷⁾

인용에서 표현된, 영상화된 기억의 연쇄적 작용으로 잠 못 들어 하는 푸네스의 모습으로부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최근 젊은 층의 생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푸네스의 모습이, 마치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뉴미디어와 결합한 삶을 사는 현대 젊은이들의 외형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곧, 푸네스가 멀티미디어에 종속된 현대인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느끼기만 할 뿐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작품 속 화자의 푸네스를 향한 발화는, 마치 이미지와 음성 그리고 영상물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푸네스가 기존의 사전을 통해 라틴어를 학습하고 이를 암송함으로써 작품 속 화자에게 낯설면서도 두려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현대에 漢文을 연구하고 전공하는 이들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불러일으킨다 할 수 있다. 푸네스적 인물형이 야말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적 환경을 통해 기존의 서적이 담보하고 있던 권력으로서의 문자 지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 화자가 푸네스에게서 느끼는 낯설음과 두려움은 곧 기존의 문자 매체에 익숙해있던 세대가 기술발전으로 인한 복합 매체에 의존한 신세대에게서 느끼는 호기심과 경계심에 다른 아닌 것이다. 특히 한문의 경우, 현재 온전한 언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자 매체로서 전통의식의 중심축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매체 변화에 따른 지식지형의 새로운 판도는 한문 연구자 혹은 한문 전공자로 하여금 그러한 낯설음과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서적을 중심으로 문자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기억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멀티미디어 환경에 이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여러 차원에서의 지식 개념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저·송병선 역, 『픽션들』, 민음사, 2011. p.146

가령, 전통적인 한문 영역에서 가장 큰 권력으로 여겨지던 지적 능력은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광범위한 한문 지식의 외연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와 체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자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 권력을 행사하는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문학 영역의 정보와 지식이 다양한 형태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 같은 멀티미디어에 이식될 경우, 해당 ‘기억’ 능력이 가진 지식권력으로서의 스펙트럼은 매우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상에서 접근성이 높은 멀티미디어들이 가져다주는 기억 기능의 보조⁸⁾로 인해 굳이 개인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식권력으로서 ‘기억’ 영역이 그 힘을 상실하는 만큼 ‘해석’ 영역의 권위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기존 한문 서적의 경우 그것을 찾고 이용하는 수요가 매우 적었지만, 멀티미디어 환경에 이식된 한문 정보와 지식은 접근성에 있어서 서적의 그것과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환경에 저장되는 한문 정보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중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사회적 기억’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기억’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하게도 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8) 여기서 ‘보조’ 개념은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과 도구 또는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맺는 관계성에 있어서 작용하는 권력의 속성을 내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욕구를 보조하는 맥락을 넘어서서 인간의 지적 영역에 테크놀로지가 보조의 형식으로 개입하는 양상은 다소 그 의미가 복잡하다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조지 P. 란도가 리오타르의 ‘보조물(prosthesis)’ 개념에 대해 밝힌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장-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컴퓨팅과 정보 테크놀로지의 다른 형태들을 자주 나무로 만든 다리들과 인공 팔들에 사용하는 용어로 묘사한다. ‘기술적 장치는 인간 조직을 위한 인공 보조물에서 유래했다. 혹은 데이터를 받거나 맥락을 결정하는 물리 논리학적 시스템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어떤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그것은 최적의 성취이다. 산출물(정보 혹은 획득한 수정들)을 극대화하고 투입물(그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을 최소화하는 것.’(『포스트모던의 조건』, 44)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따르면 보조물(prosthesis)이란 용어는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 즉, ‘손발, 이빨, 혹은 신체의 다른 부분의 인공적 대체물’과 ‘이런 대체에 사용되는 인공 장치’란 두 가지 의미가 바로 그것들이다. 흥미롭게도 보조물은 초기부터 언어, 정보와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글자나 음절의 추가’란 의미를 갖고 있는 후기 라틴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또 라틴어 단어는 ‘부착’ 혹은 ‘추가를 뜻하는 prostithenai’에서 유래했다. ‘prostithenai는 더하다는 뜻의 pros-와 위치하다, 놓다 + tithenai가 합쳐진 말이다’. 후기 라틴어 형태가 단순히 언어학적 결합법칙을 따르는 것을 함축하는 반면, 그것의 현대적 응용은 개인들이 보조물을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을 줄여주는 어떤 격변적인 사건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전쟁, 자동차 사고, 혹은 골수암으로 수족을 잃거나, 이와 반대로 ‘선천성 기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각 경우에 보조물을 사용하는 개인들은 어떤 능력이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술을 묘사하기 위해 리오타르가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그것의 권력부여 약속을 위한 정서적, 정치적 정당화의 강력한 복합체를 나타낸다. 보조물이란 용어를 재활분야(그 자신 흥미로운 용어)에서 옮기는 것은 인문학 분야의 현대 학자들과 지성인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해 갖는 태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서와 필요의 황홀하고 섬뜩한 덩어리를 헤아리게 해준다.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장치의 분노, 그 자신의 욕구와 죄의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욕구에 응답하는 인공적인 장치에 대한 낭만적인 미움은 테크놀로지를 향한 대다수 인문학자들의 특징적인 태도이다.” - 조지 P. 란도 저·김익현 역, 『하이퍼텍스트 3.0』,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502

이러한 멀티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분명 여타 인문학 학제 가운데서도 한문학 관련 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전이(transition)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인문학 전반 영역의 대전환을 야기한다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적이라는 전통적 형태의 매체가 가졌던 기능은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라는 멀티 미디어적 환경의 그것과 매우 다른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유통하는 정보적 환경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보 전달의 방법과 매체의 변환은 인간의 인식 변화와 사회문화적 지형까지 크게 바꾸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영상이 가져오는 과도한 촉각 효과들에 대해,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올바른 진단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문자 및 시각 세계가 텔레비전과 비슷한 깊이와 구조적 접근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처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발전 양상들에 대해 재래식 접근법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는 스콜라주의가 16세기에 그려왔던 것처럼 휩쓸려 없어질 것이다. 복잡한 구어(口語) 문화로 무장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구텐베르크의 문자 기술을 이해했었다면 문어 교육과 구어 교육을 새롭게 종합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고, 결국 시각만 허용하는 문서가 교육이라는 기획을 떠맡게 되었다. 구어적인 전통에 사로잡힌 스콜라 철학자들은 인쇄라는 새로운 시각적 도전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구텐베르크 기술의 확장이나 외파는 여러 측면에서 문화의 궁핍화를 초래했다.⁹⁾

예컨대 위 인용문의 내용은, 기술발전에 따른 급격한 매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식인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인쇄 매체를 제대로 이해·수용하지 못한 당대 스콜라 철학자와,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그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매체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대 학자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전달 형식의 변화나 문화적 전환에 대한 지식인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매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를 출간함으로써 이에 대한 각성을 충분히 강조한 듯 보이지만 매체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대의 학제 간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미디어가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변이되는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 인용문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9) 마셜 맥루한 저·김성기 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7. p.122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이 심화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인문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지적이자,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토로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인문학자들은 컴퓨터가 활자화된 책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예컨대 이들의 논증에서는 육조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며 컴퓨터 스크린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과 가죽 장정으로 된 볼륨을 읽는 경험은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논지가 전개된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자면, 인쇄된 책은 운반 가능하며, 저렴하며, 읽기 쉬운 반면, 컴퓨터는 운반하기 어렵고, 비싸며, 전기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문학의 고답적 반응은 물론 나름대로 명분과 의미가 있다. 디지털 텍스트가 독서의 공간을 특정 소재지로 국한시킴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가함은 물론, 인문학자들이 자신들의 책의 이상형으로 삼는 신체적 쾌락의 상당 부분을 앗아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응은 디지털 텍스트의 구조와 그것을 특별한 기구에서 읽는 경험 사이의 구별을 놓치고 있다. 풀어 말해서 디지털 언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텍스트와 그것이 읽혀지는 수단인 물리적 대상과의 구별이다.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읽는 경험을 활자 페이지를 읽는 것과 비교할 때, 그들은 전적으로 텍스트의 제시 방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며 자신들의 몇 가지 경험을 파편적으로 나열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텍스트의 심층 구조와 그것을 운반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된 디지털 텍스트의 약점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현저한 속도의 진화에 힘입어 해소되고 있다. 책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든, 기분 전환의 여가 선용보다는 지적인 도구이다. 만약 도구가 강력하다면 작가와 독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다.¹⁰⁾

인용문에서 강조하듯이, 디지털 텍스트가 활자화된 서적을 온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활자화된 서적의 물리적 특질이 선사하는 쾌감은 디지털 텍스트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활자화된 서적이 차지하였던 위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디지털 텍스트의 영역과 그것이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 활자화된 서적과 맺을 관계성에 대한 뚜렷한 고찰이 필요할 것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 이러한 뉴미디어로서 디지털 텍스트가 가진 특질에 대해서 이미, 조지 P. 란도나 J. D. 볼터와 같은 학자들이

10)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50

‘하이퍼텍스트’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연구들이 향후 이루어질 디지털 텍스트의 매체 연구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인문학 연구자의 관심이 더욱 촉발될 필요가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매체 환경의 변화는 기존 인문학 학제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 성격과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다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미디어 변화를 촉발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와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의 전형을 유도하고 있다.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사회 그리고 미래의 문화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연구목적 :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뉴미디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출현하고 멀티미디어적 환경이 개인의 일상 차원에서 갖추어짐에 따라, 국내 漢文 학계 또한 그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고자 199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고문헌 전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¹¹⁾ 특정 연구기관의 소장 문헌 DB작업에서 시작해 다양한 DB자료를 연계한 통합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이르기까지, 그 고민과 노력이 점차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방대한 분량의 한문 전적을 전산화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하는 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¹²⁾라든지, 고서와 고문서 등 한국학 자료를 정리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그것을 재가공하여 서비스하는 한국학자료센터¹³⁾라든지, 지리정보를 접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으로 고문헌 정보를 서비스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

11) 1998년을 ‘고문헌 전산화’의 본격적 출발 시점으로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 번째 이유는, 그 해 봄 최초 한국형 고문헌 전산화 작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국역 조선왕조실록 데이터 베이스 CD-ROM》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결과물과 관련된 정보는, ‘김현, 『조선왕조실록 CD-ROM 개발 과정』, 『민족문화』18, 민족문화추진회, 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 번째 이유는, 이즈음 IMF사태의 여파로 인해 민간의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명분으로 한문전적의 대규모 DB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서경호·김문식·연갑수,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전산화 방안과 현황』,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p.157~159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12)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13) <http://www.kostma.net/>

전¹⁴⁾과 같은 플랫폼들이 그러한 전산화 작업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한문전적의 디지털화’ 혹은 ‘고문헌 전산화’ 작업에 대한 거시적 논의와 미시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 아쉬운 요소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우선, 특정 기관의 프로젝트 혹은 특정 문헌자료와 관련된 미시적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비점의 경우,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같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이미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짚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⁵⁾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가진 본질적 성격이나 전산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단계별 과제 혹은 취급하는 고문헌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에 그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여 ‘고문헌 전산화 작업의 미비점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그동안 고문헌 관련 전산화 작업이 주로 ‘DB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 또는 ‘한자 입력과 출력 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다루어진 미비점의 영역 또한 바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요소들임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에서 다루어진 보완 과제에 대한 언급이 이와 같다면, 거시적 시각에서 언급된

14) <http://www.grandculture.net/>

15) 논의된 시점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성과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종명,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인문학적 중요성, 『불교연구』15, 한국불교연구원, 1998; 이남희, 『조선시대 자료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현단계와 과제』, 『조선시대사학보』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손병규, 『조선시대 국가기록의 전산화 방안 -戶籍 전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2001년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2001; 김기주, 『중국 철학 원전의 전산화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오늘의동양사상』제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서경호·김문식·연갑수,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전산화 방안과 현황』, 『규장각』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이남희, 『한국 철학 원전의 전산화,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오늘의동양사상』제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이남희, 『조선왕조실록 디지털화 과정과 방향』, 『청계사학』16·17, 청계사학회, 2002; 이상찬, 『규장각 자료의 정보화 방향』, 『규장각』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허인섭, 『불교 문헌 및 문화 관련 DB 구축의 현황과 과제 -EBTI와 ECAI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오늘의동양사상』제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이남희, 『『고려사』 디지털화의 방향과 과제』, 『청계사학』18, 청계사학회, 2003; 윤재민, 『민족문화추진회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근선, 『한국국학진흥원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동재, 『존경각 고문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정희, 『국사편찬위원회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정재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최식, 『문천각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건식, 『장서각 디지털 자료관 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학 자료의 지식 정보화를 위한 정보 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김경호·류준필·이영호, 『한국유학자료의 회집과 전산화 -『한국경학시스템』과 『한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양진석, 『의궤서명의 통일과 전산화 방안』, 『규장각』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박진훈, 『고려시대 문헌자료 정보화 사업 현황 및 이용실태와 효과적인 활용방안』, 『한국중세사연구』3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1; 최영호, 『고려시대 대장경·문집·고문서 자료의 정보화 현황과 전산화 방안』, 『한국중세사연구』3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1.

향후 방향성은 주로 ①전산화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기구 설치, ②전산화 업무의 미분화 및 중장기 계획 수립, ③고문헌 전산화 관련 전문가 배양, ④자형 연구 및 문자code 표준화 추진을 통한 전산화 기초 환경 구축 등의 항목을 거론할 수 있다.¹⁶⁾ 해당 항목들은 고문헌 전산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요소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 및 현실화 방안 마련에 크게 이견을 표명할 이유는 없다. 실제, 현재 시점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은 분명 미비한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거시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기존에 이루어져 온 DB 설계 구축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고문헌 전산화’라는 것은 분명 한문으로 된 고문헌 DB를 설계·구축하는 과정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지만, ‘전산화’라는 표현이 단순히 ‘DB 설계 및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김현 교수는 한국문집총간 데이터베이스 활용 맥락의 ‘고전용어 시소러스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은 ‘원시자료의 디지털화’를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급 정보기술의 도입이 시급하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정확한 입력과 교열만이 사업 완수의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현재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차세대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학제적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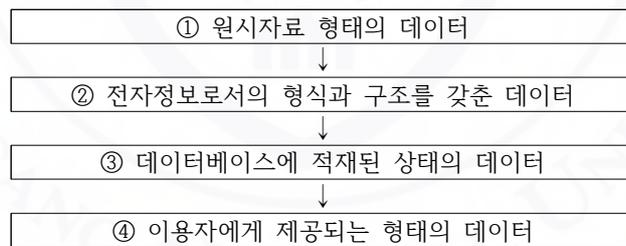
이러한 언급대로, 그동안 이루어진 고문헌 전산화 사업이 문헌 데이터의 정확한 입력과 교열 곧, DB 설계 및 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향후 전산화 사업의 방향성은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고급화 할 것인가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고급화는 분명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의 적용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정보기술 전문가 참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플랫폼 도입과 같은 기술적 부분만을 고려해서는 곤란하다. 기술의 활용은 기존의 한문 전적 데이터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입·출력하는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16)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남권희,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국학연구』2, 한국국학진흥원, 2003; 김현, 「한국 고전적 전산화의 발전 방향 -고전 문집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전략」, 『민족문화』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조형진, 「고문헌의 디지털화 성과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0권 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허철, 「동아시아의 전산화 현황과 비교를 통해 본 고전전산화의 과제:한국과 중화권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60집 기념호, 대동문화연구원, 2007.

17) 김현, 「고문헌 자료 정보화 기술 연구」,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p.537

할 것이지, 입·출력해야 할 지식 자원 데이터의 외연을 근본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학제적 연구 노력’이라는 김현 교수의 표현은 곧 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을 확보한 정보과학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지형이 끊임없이 바뀌고 그에 따라 끝없이 진화하는 소프트웨어의 양산 환경 속에서, 그에 발맞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전산화 사업을 통해 얻은 수고의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고문헌 관련 전문연구자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한문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기술 기반의 적극적 대응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축적된 기초 데이터가 인문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해당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방면의 인문학적 사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를 구체적 기술로 가공·전달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서적 형태의 원시자료 데이터가 전자적 형식과 구조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과정을, 김현 교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단계의 데이터 변환은 각각 수행 주체를 달리한다. ①→②는 원시자료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고전문헌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②→③은 전산 전문가 중에서도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가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담당할 영역이다. ③→④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래밍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분야의 전문가가 개발한 서비스 프로그램 상에서 수행된다.¹⁸⁾

18) 앞의 책, p.541~542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데이터 변환 맥락이 구별되고 그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수행주체의 기능적 성격 또한 달라진다. 이것은 단계별 데이터마다 그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개별 과업 수행에 적용해야 할 가치의 무게중심이 각기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소 거칠긴 하지만 인간의 인식 작용 가운데서 ‘통역’ 또는 ‘번역’ 활동과 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데이터 변환의 단계적 도식에 근거하여 번역 과정을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앞서 ①→④로의 전체적인 데이터 양식 변화는 번역에 비유하자면, 외국어 표현을 모국어로 옮기는 것에 해당한다. ①→②의 경우, 데이터 변환 시 고전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듯이, 번역의 경우도 외국어를 독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된다. ②→③은, 데이터 변환의 경우 기존 문헌에 전자 체계 일반에서 요구되는 형식을 부여하여 그것을 특정 범위의 입출력 체계로 축적하는 것이라면, 번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언어 체계 일반에서 요구되는 형식을 근거로 외국어 표현을 분석하고 이를 특정 언어인 모국어 체계에 대응·계열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때 효율적인 데이터 변환을 위해 전자 체계 일반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정보기술전문가의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된다면, 번역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언어학자들의 전문 지식과 모국어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③→④ 또한, 데이터 변환의 경우 특정 체계 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그 맥락에 맞게 가시화하여 출력하는 과정이라면, 번역의 경우도 해당 외국어 표현의 모국어 계열문치 가운데 해당 의미맥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변환의 단계적 도식을 굳이, 번역 과정에 거칠게 비유하여 나타낸 것은 그 절차에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내고자 한 의도도 있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전산화'에 있어서 유지·전달해야 할 대상을 '데이터' 표면에
만 한정할 경우 해당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맥락을 무시하거나 상실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앞서 '데이터를 구체적 기술로 가공하여 전달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는 작업'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
다. 단지 데이터가 가진 표면적 의미를 기계적으로 변환하는 데에만 치중할 경우,
기존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복합적 의미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더 나아가 해
당 데이터를 수용해야하는 현재 시점의 문화적 상황 또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앞서 비유한 번역에 적용하여 논하자면, 외국어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일차적으로 지시하는 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 해당 발화와 관련된 목소리나 어조 혹은 제스
처나 분위기와 같은 요소들 또한 그 의미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 데이터 발신자의 상황과 그 데이
터를 받아볼 수신자의 상황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신자가 누구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수신자가 누구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언어적 이해의 수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사유는 언어적 소통의 차원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체적 소통의 영역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소통의 범위에까
지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문화기호학자인 스튜어트
홀의 경우 「Encoding/decoding」¹⁹⁾이라는 논문을 통해 특정 형식의 매스커뮤니케
이션 이론을 언급했다.

영국 사회학자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부호화/부호 해독(Encoding/decod
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안했다. 홀의 모델은 코
드 내에서 의미작용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텔레비전 텍스
트는 '부호화'와 '해독'의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담론으로 형성된다. 이 두 과정
은 각기 “인식의 틀(frameworks of knowledge)”, “생산 관계(relations of
production)”, 그리고 “기술적 하부구조(technical infrastructure)”로 구성된
“의미 구조(meaning structures)”를 지니고 있다. '부호화'와 '해독'은 동일한 구
성 요소로 이루어진 대칭적 구조처럼 보이지만, 홀은 “해독이 반드시 부호화와 일
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텍스트 결정론을 부정한다(Hall 1980, 136). 홀의

19) Stuart Hall, 「Encoding/decoding」, in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ed.),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London : Hutchinson,
1980. p.128~138

모델은 이전의 다른 모델과는 달리 ‘부호해독자(decoder)’에게도 ‘부호생산자(encoder)’ 못지않은 중요성을 부여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로 설명한다.²⁰⁾

홀의 이론에 따를 경우,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코드의 의미작용을 부호해독자가 접근하는 맥락에 있어서, 해당 코드의 표면적 의미 체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해독자의 입장에서 코드 해독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인식하기도 전에 해당 코드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앞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위 인용문에서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현되어 있듯이, 해당 코드가 매개하는 매체나 해당 코드의 기호적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드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 코드의 기호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매개하는 매체의 특질을 파악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앞서 언급했던 데이터 변환의 단계적 도식에 적용할 경우, ①→④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 의미를 옮기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거쳐야 할 매체의 특성에 대한 기호학적 이해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껏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온 ‘고문헌 전산화’ 개념이 기존 고서적에서 발견되는 한문이나 한자 또는 서지의 표면적 데이터를 컴퓨터 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의미였다면,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고문헌 전산화’ 개념은 거기에 더해 기존 입력된 한문이나 한자 혹은 고문헌 데이터가 당대에 가진 기호학적 또는 매체적 혹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정의하고 이것을 현재 시점의 매체에서 어떻게 구현·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대규모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형 고전문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데이터 분석·설계 업무가 진행되었을 뿐,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디지털 자료 모델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는, 고전문헌의 내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해당 문헌의 전문가에 의해 가능한 반면, 그 자료가 정보관리 또는 정보검색

20) 대니얼 캔들러 저·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p.289

시스템 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기술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두 분야 사이에서의 기술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그 결과 고전문헌자료의 편찬 방법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원시 데이터의 전자 입력 규칙으로만 활용되었을 뿐 정보 시스템 상에서의 데이터 관리와 검색 서비스를 위한 자료 구조 설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²¹⁾

위 인용문에서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두 분야 사이의 기술적 의사소통 불능 상황은 곧, ①→④로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 단계별로 인지해야 할 코드가 가진 기호적 의미 그리고 매체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고전문헌 전문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컴퓨터 전문가는 고전문헌을 독해하지 못한다와 같은 기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해 미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코드의 기호적 의미 혹은 매체의 특질에 대한 이해가 미비하다면, 코드 의미 전달과 관련된 각 기술 간의 교통 차원에서가 아니라 코드 의미를 유추하고 정의하는 단일 기술의 적용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고전문학 분야에서 고전 시가의 전산 정보화 방안을 연구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고문헌 서지 목록 작성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과 같이 특정 분야 혹은 기술방면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 또는 기술이 가진 기호적 의미나 매체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분야나 기술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고문헌 디지털 자료 확보 및 전달과 관련된 기본적 모델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문헌 전산화’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할 기호적 혹은 매체적 이해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이해의 과정이 실제 전산화 결과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논리를 탐구해보고자 한다.²²⁾

21) 김현, 「고문헌 자료 정보화 기술 연구」,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p.540

22) 본고의 문제의식 또는 탐구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그 맥락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김성도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화를 참고할 수 있다. “1460년을 전후로 구텐베르크가 책의 품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책의 대량 복제에 성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가 최초로 찍은 책은 42줄의 『성서』로서 초기 간행본들은 여느 필생의 필사본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기술적 완벽성에 이르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초기의 인쇄된 책은 정교한 필사본들과, 동일한 철자, 두께, 합자, 축약 등을 모방하며, 필사본과 동일한 형태의 책을 만들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당시의 인쇄술 발명자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전혀 새로운 글쓰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는 수 세대를 필요로 했다. 요즘에 선보인 전자책도 그와 유사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자명해진 것은 컴퓨터가 활자화된 페이지와는 상이한 계약들을

이러한 시도는 ‘고문헌 전산화’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인문학적 사유 가운데 ‘고문헌 전산화’ 작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 맥락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구 맥락을 어떠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검토하고 이를 일부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 본고의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을 정리하여 거시적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적 형태의 고문헌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컴퓨터에 대한 복합적 이론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고문헌 전산화’ 작업의 경우 원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전자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계적 차원의 ‘DB 설계 및 구축’에 집중해왔다. 이로 인해 개별 고문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과 데이터 및 그것이 뉴미디어를 통해 구현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한문 전적 또는 고문헌이 가진 기호적 함의 및 매체적 특성과 그것을 새롭게 구현하는 현대 다중매체의 기호 혼용 양상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문헌이 가진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의 훈고학이나 고증학과 같은 전통적 문헌학의 이해 맥락에 근거하되 문헌정보학이나 기호학 및 뉴미디어학과 같은 현대의 실증적 학문의 연구 결과 또한 융합하는 방식의, 고고학적(archaeological) 시각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체를 다루는 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과로 인정·명시화되지 않는 것은 특정 매체와 관련한 각 학문 분과의 연구 영역, 연구 방법, 기초 지식과 같은 측면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표면, 리듬, 형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이 분야의 종사자들과 해당 작가들은 컴퓨터가 열어놓은 디지털 언어의 새로운 열개를 발견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구텐베르크의 발명에서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해독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디지털 언어가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의미에서 책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글을 쓰는 표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독자가 책을 읽는 리듬을 변경시키면서, 활자화된 책, 필사본, 글쓰기의 초기 형태들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책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이해를 요한다.”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45

많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접근할 경우, 개별 매체 혹은 매체 간 이루어지는 각각 메커니즘에 있어서 단일 전공에 의존한 분석·설명을 탈피하여 학제 간 다양한 교류와 융합적 이해에 근거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문헌 전산화’ 개념은 신매체인 컴퓨터가 구매체인 책을 없애고 기존 콘텐츠를 흡수·전달한다는 논리(ceci tuera cela:이것이 저것을 없앨 것이다²³⁾)에 근거한 작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구매체와 신매체의 공존이라는 매체 이론의 일반적 화두에 의존한 표명이 아니다. 구매체의 콘텐츠를 신매체에 옮겨내는 작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이동시킨다는 물리적 성격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구매체에 담겨 있던 고대 혹은 중세기 인간의 정신과 생활사를 현대의 시점에서 재구조화하여 신매체에 이식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의식의 재구조화’ 혹은 ‘정신의 재구조화’와 같은 맥락에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고문헌 전산화’ 작업이 기존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논어』에서 언급하는 ‘溫故知新’의 전통적 사유를 승계한 정신활동의 산물임을 재차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앞 장에서 ‘고문헌 전산화’라는 일반적인 주제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시적인 논의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였을 때, 연구 범위는 크게 ‘고문헌’ 개념과 관련하여 그리고 연구 방법은 ‘전산화’ 개념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구범위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고문헌’ 일반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헌’이라는 영역 일반이 가진 전통적 특성을 포괄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연구 가치가 뚜렷하고 더 나아가 현대 매체에 구현되었을 때 그 유용성이 분명한 대상을 연구 범위로

23) “ceci tuera cela”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역사소설인 『파리의 노트르담』에 나오는 발화이다. 등장 인물인 클로드 프롤로 신부가 초창기 인쇄시기의 책 한 권을 바라보고 난 뒤 성당의 종탑을 바라보며 읊조리는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것이 저것을 없앨 것이다”는 의미를 지닌 “ceci tuera cela”이다. 그 발화에 함의된 내용을 간단히 풀어내자면, 인쇄기술로 양산화된 책의 문화가 노트르담 성당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허물고 대체할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범위를 규정할 경우, ‘고문헌’ 가운데서도 이른바 ‘공구서’야말로 초기 연구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구서는 여타 한문 자료들과 함께 전통적인 고문헌에 포함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문헌 자료에 접근함에 있어서 필수적 도구로 활용됨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고문헌’과는 다른 메타적인 성격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고문헌 일반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국내외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구서 연구 작업의 활성화라는 부수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여지가 있다 판단된다.

고문헌 가운데서도 ‘공구서’라는 한정된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분명히 경계화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고전 공구서의 경우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爾雅』나 『說文解字』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小學書, 『大東韻府群玉』, 『林園經濟志』와 같은 전통시대의 백과사전인 類書, 진순이 쓴 『性理字義』와 같은 철학 관련 字義書, 『增補文獻備考』와 같이 전통시대의 제도적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지침서, 19세기에 간행된 『儒胥必知』와 같은 문서 작성 지침서, 이외에도 연보, 색인, 목록, 지도, 도감 자료 등 그 영역과 체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된 고문헌의 경우 그 내용과 관련하여 文史哲 인문학 일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타 학문·예술·기술 분야 또한 포괄하고 있다. 개별 문헌이 안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황에 따라 그와 관련한 공구서 개념의 외연은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다. 공구서 범주와 관련된 이러한 복잡성을 극복하고자 중국학자인 張力偉의 경우 공구서의 기능과 역할을 ‘檢索性’과 ‘參考性’ 개념으로 나누어 공구서의 유형과 발전과정을 파악하기도 하였다.²⁴⁾ ‘검색’ 맥락과 ‘참고’ 맥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분류는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을 본 연구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기도 어렵다. 한국학 분야의 공구서 양상과 중국학 및 일본학 분야의 공구서 양상이 다르다는 현실적 문제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학문 분야 모두 ‘漢文’이라는 연구 대상만 공통적으로 같다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보논리화한 맥락은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적 상황이나 학문적 풍토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24) 이동철, 「한국에서 한문번역 관련 공구서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제38집, 한국고전번역원, 2011. p.63~64

‘고문헌’이라는 광의의 영역 가운데서도 ‘공구서’라는 협의의 영역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지만, ‘공구서’ 또한 또 다른 광의의 영역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공구서’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본고의 논의를 구체화·체계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난점과 여러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공구서’ 가운데서도 ‘한국 字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맥락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공구서’를 한층 더 축소하여 ‘사전’으로 그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문헌-공구서’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문헌’을 ‘공구서’로 축소하고 ‘공구서’를 다시 축소할 경우 다양한 공구서 가운데서도, 연구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전형 공구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전’은 『說文解字』와 『康熙字典』의 전통 맥락을 잇는 사전형 공구서의 대표적 유물로서, 공구서 가운데서도 그 대중성이나 대표성을 인정받는 범주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서 사전의 범위를 ‘한국의 사전’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사전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것이 그 세부적인 양상까지 같다고 하기는 어렵다. 세 나라의 사전 일반을 검토하려 할 경우, 그 연구 범위가 광범위해질뿐더러, 국가마다 다른 학문·문화적 풍토에 대한 접근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학이나 한문학이라는 학문적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접근한다는 맥락에서도 그와 같은 연구 범위의 한정 필요하다 여겨진다.

셋째, 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을 고문헌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전 또한 그 유형이 다양한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사전의 일반적인 전형을 마련할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구체적 연구 이전에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우선, ‘사전을 고문헌이라 할 수 있는가’의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사전의 효시를 언급함에 있어서, 멀게는 漢代의 『설문해자』(100년), 가깝게는 淸代의 『강희사전』(1716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설문해자』의 경우 글자의 분류·배열에 있어서 ‘部首’를 적용한 최초 사전 형태의 서적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강희사전』의 경우 후대 ‘사전’이라는 명칭 및 체제를 고유명사화한 전형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西晉의 呂忱이 저술한 『字林』(280년), 梁의 顧野王이 묶은 『玉篇』(543년), 宋代 司馬光 등이 저술한 『類編』(1069년), 明代 梅膺祚가 저술한 『字彙』(1615년) 등 다양한 형태

의 전통 자전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536년(중종 31년) 원나라의 熊忠이 찬수한 『古今韻會舉要』와 『四聲通解』의 보조격으로 崔世珍이 편찬한 자전인 『韻會玉篇』, 1751년(영조 27년) 홍계희가 엮은 자전인 『三韻聲彙補玉篇』, 『奎章全韻』을 모체로 하여 정조 때 처음으로 간행된 『全韻玉篇』 등 자전 형태의 전통 문헌들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전을 고문헌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역대로 편찬되어온 자전의 유형이 다양한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자전의 일반적인 전형을 마련하여 그것을 연구할 것인가’의 논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시적 측면에서 ‘한국 자전’의 전형을 마련하여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중세기 이후 한국 자전의 대표적 맥락을 대체로 나열해서 살펴볼 경우 다음과 같다.

구 분	편찬·간행년도	수록된 표제자 수	분류·배열 기준			
			부수	음·운	획수	
중세	『韻會玉篇』	1536년	?	339	성운	○
	『三韻聲彙補玉篇』	1751년	?	214	성운	○
	『全韻玉篇』	18세기 말	약 13,300자	214	국음	○
근대	『字典釋要』	1909년	약 16,300자	214	국음	○
	『新字典』	1915년	약 6,000자	214	국음	○
현대	『漢韓大字典』	1966년	약 16,000자	214	국음	○

근대기 편찬된 여러 자전 가운데서도 대표적 저작으로 꼽히는 것이 『字典釋要』와 『新字典』이다. 『자전석요』는 松村 池錫永이 저술한 최초 국음·국의 표기 자전으로, 1906년 탈고되어 1909년 滙東書館에서 발행되었다. 『신자전』은 六堂 崔南善의 주동적 참여로 유명한 자전인데, 1915년 光文會에 의해 편찬되었다. 현대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 의해 다양한 자전들이 편찬되어오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저작은 1966년 초간된 민중서림의 『漢韓大字典』이라 할 수 있다.²⁵⁾ 이와 같이 중세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대표적인 자전들을 분류하여 그 형식의 변화를 살폈을 때, 글자들을 분류·배열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검색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글자의 분류·배열 그리고 검색방법이 부수와 음·운 그리고 획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25) 한국 자전의 역사와 그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대한 내용은, ‘이충구, 『韓國字典 成立의 考』, 『반교어문연구』3, 반교어문학회, 1991.’에 잘 서술되어 있다.

한자 연구서들이 文字學에 근거한 字形書, 聲韻學을 토대로 하는 字音書 그리고 訓詁學에 바탕을 둔 字意書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저술이 사전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사전의 분류배열 기준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字典은 各 漢字의 形·音·義 3要素를 모두 갖추어 제시한 것이다. 문자서·성운서·훈고서에도 자형만은 필수요건으로 제시되고, 음·의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전과 다른 점은 각각 전문적으로 다루는 1요소의 설명에 치우치고, 다른 요소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은 1요소 위주가 아닌 3요소를 고루 갖춘 종합서인 것이다.²⁶⁾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여타의 字學 관련 문헌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그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 사전은, 『강희사전』의 214부수와 획수에 따른 배열 방식 및 국음 색인과 획수별 검자색인에 기초하여, 분류·배열된 각 한자의 음이나 뜻을 국음으로 표기한 사전 형태의 일반 서적'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전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분류·배열·검색의 일반적 형식은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구체적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한국 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전산화'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타의 고문헌과 달리, 사전형 공구서가 갖는 활자 텍스트로서의 기호학적 특성 및 한자 지식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힘입어 현재 인터넷 상에 다양한 형태의 한국 사전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기존 서적 형식의 '고문헌'과 그것이 인터넷에서 구현되었을 때의 '고문헌' 양상을 비교·고찰함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상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한국 사전이 많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6) 이충구, 「한국사전의 실상」, 『한국학논집』제2집,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p.128

2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은 하나의 시사점을 던진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사전이 전자 텍스트로 전이된 최초의 활자 텍스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호학자와 해체론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설명할 때 사전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은 언제나 기호가 다른 기호들을 지시하는 기호학적 원칙의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250

2) 연구방법

연구 범위를 한국 자전으로 한정하고 앞서 제시했던 연구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에 입각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가령 본 연구의 거시적 방향의 경우, ‘서적 형태의 특정 고문헌이 가지는 구체적 기능과 그것이 웹에서 뉴미디어 형태로 구현될 경우의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을 비교·이해’하는 것임을 앞의 장에서 분명히 제시하였다. 여기에 연구 대상을 적용할 경우, 서적 형태의 특정 고문헌은 ‘한국 자전’으로, 웹에서 뉴미디어 형태로 구현된 경우는 ‘인터넷 상에 구현된 한국 자전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논점이 될 만한 내용은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의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이라는 각각의 언명은 그 의미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앞서 연구 방향에서 밝혔듯이, 현재 매체를 다루는 연구가 하나의 공식적인 학문 분과로 인정·명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매체 혹은 매체 간 이루어지는 지각 메커니즘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될 만한 분석·설명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적용할 구체적 방법론을 명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맥락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이라는 언술을 활용한 것이다. 다만, 연구 방법론을 거시적으로 피력함에 있어서 통일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호’와 ‘매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은, 비록 특정 매체와 관련한 각 학문 분과의 연구 영역, 연구 방법, 기초 지식과 같은 측면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매체 분석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기호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고, 또한 엄연한 학문 분과의 하나로 ‘기호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호학은 여러 가지 텍스트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다.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학 분석(rhetorical analysis),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 그리고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등이 있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는 내용 분석이 기호학에 필적할만한 주요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호학이 문화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내용 분석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내용 분석이 미디어 텍스트의 명시적인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한다면 기호학은 텍스트를 ‘구조화된 전체(structured whole)’로 파악하면서 텍스트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연구한다. 기호학이 양적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 나아가 양적인 접근의 의미 자체를 부정

하기도 한다. 기호학은 내용 분석과 달리 자주 등장하는 기호일수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조주의 기호학자는 텍스트 내부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사회 기호학자들이라면 독자들이 텍스트의 기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을 것이다. 내용 분석이 명시적 내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텍스트의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데 반해, 기호학은 미디어 텍스트와 연관된 ‘담론(discourse)’을 지배하는 규칙체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미 형성의 맥락까지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러나 기호학과 내용 분석을 결합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⁸⁾

위의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기호학자들은 대개 책이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웹페이지 등과 같은 구체적 매체 형식을 텍스트(texts)라고 지칭하며, 그러한 매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언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매체 형식을 언어와 같은 하나의 상징체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호체계를 언어의 한 형태로 보는 구조주의 기호학자와 달리, 사회 기호학자의 경우 특정한 매체 형식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 사회 상황 가운데서 해당 매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의미로 조직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특정 매체가 가진 ‘기호적 함의’를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매체를 하나의 상징체계로 설정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해당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와 의미를 생산하고, 어떠한 차원에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호적 함의’와 ‘매체적 특성’이라는 언명은 그 지칭 영역에 있어서 매우 큰 교집합을 가진다. 대상에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호학적 맥락의 차용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된 ‘기호적 함의’라는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체적 특성’이라는 표현은 연구 대상이 가지는 매체²⁹⁾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28) 대니얼 찬들러 저·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p.38

29) 매체 개념이 가리키는 본원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어원론적인 뿌리부터 살펴보면, 매체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메디움’(medium)은 ‘가운데’를 뜻하고 ‘메디우스’(medius)는 ‘사이에 있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매체는 ‘목적에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미정(未定)의 상태로 ‘가운데에 있으면서’ ‘매개하거나’ ‘전달’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엇이다.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 ‘메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하여』(De Anima)의 유명한 ‘감각적 인지론’ 대목에 나오는 ‘메타쿠’(metaxu = Mittleres, 중간자)의 라틴어 번역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해주는 ‘제3자’가 필요하다. ‘제3자’는 눈과 대상 ‘사이에’ 개입하여 양자를 매개한다. 모든 인지 대상은 인지하는 주체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제3자’를 가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생각이다. ‘제3자’를 지칭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번역하기 어려운 ‘메타쿠’라는 표현을 임시로 사용했고, 과거의 감각론과 연관해서는 이것을 투명한 것(Diaphanes) 또는 ‘비추는 것’이라고도 불렀다. 빛과 구별되는 이것, 보이지 않으므로 아직 규정할 수 없는 투명한 물체인 이것은 간접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호려짐’ 같은 것에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호학과 매체에 관한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감각적 인지론, 언어이론, 의사소통 기술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³⁰⁾

고문헌과 컴퓨터 혹은 웹이라는 기술 영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호학적 접근과 매체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호학이나 매체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분석 프레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기호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코드임을 강조하는 기호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매체가 현실을 규정하면서 특정 입장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미디어 연구자들의 시각을 모두 흡수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영역에서부터 연구 대상을 검토하려는 의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³¹⁾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통적인 고문헌 연구에 해당되는 문자학, 훈고학 등의 영역과 문헌정보학 그리고 뉴미디어학과 같은 현대의 학문 영역을 교차시키는 연구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의해 드러난다. 따라서 ‘메타쿠’는 특징이 없는 ‘사이공간’의 의미를 가진 불확실한 것을 뜻했으며, 훗날 중세 스콜라철학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들이 여기에 ‘매체’(Medium)라는 이름을 붙였다.” -디터 메르쉬 저·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연세대출판부, 2009. p.21

30) 매체 이론에서 다루어온 다양한 연구 맥락 가운데서도 큰 줄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론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매체 개념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세계의 커다란 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고대부터 내려온 감각적 인지론, 18세기의 언어이론, 그리고 대중매체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중반 이후의 의사소통 기술론이 그것이다...(중략)...18세기까지 ‘매체’란 물질이고 이것을 통해 감각적 직관이 일어난다고 본 ‘감각론적’, 즉 감각인지론적인 매체 개념이 우세했다. 매체는 물리 연구의 핵심이기도 했던 미정(未定)의 ‘물질성’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1800년경 매체 전환기를 맞으며 언어가 사유의 매체라는 의식이 일어나면서 앞의 매체 정의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언어가 매체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재현과 기억의 함의를 모두 가진 ‘묘사 매체’로서의 기능이 부각된 반면에, 매체는 물질이라는 종래의 의미는 후퇴하고 퇴색했다...(중략)...19세기 중반부터는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언어, 특히 ‘기술(技術)’ 쪽으로 이미 기능이 전환된 언어가 매체 개념의 전형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진과 전신(電信)이 미래의 대중매체의 선구로 등장하면서, 의사소통 구조를 따라 전달과 저장과 재생의 원리를 강조한 기술의 관점이 가세했다.” -디터 메르쉬 저·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연세대출판부, 2009. p.14

31) 이와 같은 연구방법이 적용된 여타 학문 분야와 관련하여, 역사학 분야에서 기호·매체적 이해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했던 경우로 헤이든 화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 다음은 그가 취했던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일정부분 기호학이나 매체 이론에 적용되는 시각이나 접근을 차용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저서는 이야기체의 산문으로, 담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일종의 말의 구조물 a verbal structure in the form of narrative prose discourse 이다. 역사서들(그리고 역사철학책들 역시 마찬가지로)은 어떤 일정한 자료들 data과, 이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들, 그리고 이 이론적인 개념들을 과거에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일련의 사건 아이콘, 圖像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체의 구조, 이 세 가지의 결합인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것들은 본질상 일반적으로는 시적 poetic이며 특별하게는 언어적 linguistic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역사적’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비판 이전에 무조건 수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기여하는 심층 구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 패러다임이 전공 논문이나 기록 보관소의 보고서보다 범위상 훨씬 포괄적인 모든 역사서의 메타역사적 metahistorical 요소로서 기능한다.” -Hayden V.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p.ix. -이 부분의 번역과 관련하여 “허승일, 『다시, 역사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p.132” 참조.

것이다. 이러한 융합적 시도는 서적 형태의 고문헌과 인터넷이라는 웹 기술·문화를 비교·연구해야 하기에 발생하는 필연적 이해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보는 일이다. 즉 책을 잡고, 펼쳐 열어 보고, 만지작거리고, 책 페이지를 이리 저리 넘겨보고, 책을 닫는다. 스크린 상으로 읽는 것 역시 비물질적 행위는 아니며, 클릭 역시 정신에 대해서 만큼이나 몸에 대해서 감각적이고 예민하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을 다루는 것은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³²⁾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서적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자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웹 상에 구현된 자전이 기존 서적 형태의 자전과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기호적·매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대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정보의 표면적 동일성과 별개로, 서적 형태의 자전을 넘겨가며 글자의 의미를 알아가는 양식과 웹 상의 자전을 드래그하며 글자 정보를 획득하는 양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웹 상의 자전에서 표면적으로 강조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내용의 충실성이 아니라, 웹 상의 자전을 이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자전 활용 양식으로부터의 실질적 변화 및 그에 추동한 개인적 차원의 지식 수용과 사회적 차원의 지식 유통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야말로, 본 연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연구방법을 고려하여,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해명하며 연구 결과를 정리해나갈 것이다.

첫째, ‘고문헌-공구서-사전형 공구서-자전’의 지류에 근거하여 ‘한국 자전’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것이 가지는 기호적 매체적 의미를 밝힐 것이다. ‘한국 자전’의 정의는 대략, ‘『강희자전』의 214부수와 획수순 배열 방식 및 국음 색인과 획수별 검자색인에 기초하여, 분류·배열된 각 한자의 음이나 뜻을 국음으로 표기한 자전 형태의 일반 서적’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에서 드러나는 한국 자전의 분류·배열·검색 형식은 본론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구체적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서적 형식의 ‘고문헌’과 그것이 인터넷에서 구현되었을 때의 ‘고문헌’ 양상을 비교·고찰하는 맥락에서, 현재 인터넷 상에 구현되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

32) 미셸 블로, 「책 인간 몸의 상징」, 『기호학연구』제35집, 한국기호학회, 2013. p.10

국 자전 서비스에 대해 개괄하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특징을 이차적으로 해부해 볼 것이다. 과거 서적 형태의 ‘자전’과 현재 웹 상의 ‘자전’이 어떻게 연계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전’이라는 매체가 지닌 본질적 성격을 재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II. 기존 字典에 적용된 분류·배열·검색 방식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字典은 서문, 범례, 부록, 본문, 색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³³⁾ 서문의 경우, 해당 자전을 왜 편찬하였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편찬이 되었는지, 누가 편찬하였는지, 편찬함으로써 얻게 되는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는 무엇인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범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자전이 어떠한 편집 체제를 토대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다. 표제자를 선정하고 다시 그것을 배열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풀이함에 있어서의 맥락이라든지 활용된 특수기호에 대한 정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부록은, 사용자 입장에서 한자 학습과 관련하여 자주 활용하는 참고 자료를 구성해놓은 경우가 많다. 인명용 한자표라든지, 출전 목록, 韻字表, 64괘 등과 같은 요소들이 부록으로 편성된다. 서문이나 범례, 부록이 자전 내에 수록된 내용의 부가적 정보들을 보여주는 요소라면 본문과 색인은 자전이 자전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은 자전의 구체적 정보를 보여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자전들은 표제자란과 표제어란의 두 부분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 표제자란의 표제자 풀이는 발음, 풀이, 용례의 세 내용을 포괄하며, 표제어란의 표제어 풀이는 발음과 풀이만을 제시하고 용례는 생략한 형식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색인은 내용을 찾아보기 위한 검색 경로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자전은 부수를 활용한 전통적인 검색 방법에, 한자의 총획수로 글자를 찾는 檢字 방식과 한글의 자모 순서를 활용한 자음 색인 두 가지 방식을 추가한 검색 경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전의 본문 구성 방식과 글자를 찾는 검색 방식의 특징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호적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象形에서 출발하여 指事와 形聲, 會意 및 假借와 轉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낱글자의 형태와 의미가 만들어지는 한자는 그것 자체가 도상(diagram)이자 상징(symbol)이자 지표(index)³⁴⁾로서의 풍부한 기호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33) 한국 자전의 보편적 구성에 대한 내용은, '이의강, 「효율적 자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 교육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p.25' 내용을 참조.

34) 여기서 도상(diagram), 상징(symbol), 지표(index) 개념은 기호의 표상적 성격에 근거하여 그것을 유형화한 찰스 샌더스 퍼스의 대표적인 기호 개념을 의미한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찰스 샌더스 퍼스 지음·김성도 편역, 『퍼스의 기호사상』, 민음사, 2006. p.45~46' 부분을 참고할 것.

한자는 <상형象形>을 근간으로 삼는 부호체계이다. <상형>은 그림처럼 대상에 대하여 개괄성概括性이 매우 큰 사실적寫實的 모방에서부터 유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설적인 결승기사結繩記事와 마찬가지로, 상형문자는 처음부터 이미 피모방대상의 범주를 초월하는 부호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사실 또는 과정이기도 하며, 주관적인 의미와 요구·희망을 내포하기도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이 한자의 상형과 그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루게 하며, 부호의 고유한 추상적 의미와 가치·기능을 지니게 한다.³⁵⁾

상형 문자로서의 한자와 그림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위 인용문의 언급은 곧, 한자가 단순한 도상(diagram) 형식의 기호에만 해당되는 문자가 아님을 가리킨다. 六書 가운데 ‘상형’의 기호적 성격이 도상에 가깝다면 ‘지사’와 ‘회의’는 상징(symbol)으로서의 기호적 색채를 띤다. ‘형성’은 음성적 표현이 매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표(index)가 가진 존재론적 특성을 함께 가진다. 뜻 또는 소리의 비교 및 이를 통한 글자의 확대 활용을 취하는 ‘전주’와 ‘가차’는 ‘지사’, ‘회의’와는 다른 맥락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다. 한자의 일반적 造字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육서 외에도 甲骨文에서 金文, 篆書, 隸書, 楷書, 草書, 行書 그리고 현대의 簡化字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온 字體의 양상 또한 한자의 기호적 성격을 풍부하게 만든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획이나 편방과 같이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자체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음성학적 지형 또한 바뀔 때 따라 한자의 소릿값들 또한 변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字典의 본문 구성 방식과 글자 검색 방식을 바라보는 것은 한자가 가진 기호로서의 특질을 도외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자의 기호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전의 매체적 특징 또한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맥루한에 의하면 인쇄된 책의 출현이 우리의 문명 방향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책에 의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 내용(이데올로기, 정보, 과학적 지식 등)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이 그 기술적 본질을 통해서 행하는 체계화라는 근원적인 강제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책은 우선 기술적 모델이며 그것을 지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질서(시각화된 각 장면, 문자, 단어, 페이지 등)는 장기적

35) 이택후 저·윤수영 역, 『미의 역정』, 동문선, 2003. p.141

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명시적 언설인 어떠한 상징, 관념 또는 환각보다도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닌 더욱 결정적인 모델이다.³⁶⁾

위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字典은 1차적으로 ‘한자’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의 기본 기능인 본문 구성 방식과 글자 검색 방식을 갖지만, 이것은 기능적 일면을 초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질서로서 정의되어, 여타의 명시적 언설보다 더 강력하게 중세 동북아시아 지식 사회를 체계화해 온 의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전의 본문 구성 방식과 글자 검색 방식, 특히 한자를 분류하고 배열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활용된 部首·劃數·音의 요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자전에서 한자를 분류하고 배열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部首·劃數·音의 요소는 멀게는 『설문해자』가깝게는 『강희자전』과 같은 전통 자전의 기능적 요소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의 경우, 한국어 자모순에 근거한 자음색인의 형태로서 현재의 그것을 ‘고대 혹은 중세의 요소를 승계한 전통적인 것’이라고 엄밀하게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수와 획수에 근거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은 분명 ‘전통적’인 것이며, 그러한 ‘전통적’ 방식의 요소가 어떠한 기호적·매체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部首를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고대에 한자는, 신성한 하늘[天]의 도리를 표현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로 여겨졌다. ‘蒼頡說’과 같은 한자의 창조설이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성인의 도구’로서 한자를 신비하게 여기는 풍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창기 제사를 위한 銅器나 鐵器에 金文을 새겨 넣었던 행위는 하늘과 통하는 도구로서 한자가 갖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예시라 할 수 있다. 한자가 가진 신성성이 해체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隸書와 楷書가 출현하면서부터였음을 고려할 때, 篆書에 근거하여 한자의 형태를 분류·배열하고 그 의미를 정의한 『說文解字』는 고대 시기 한자가 함의하고 있던 신성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字典이라 할 수 있다.

『설문해자』는 漢代 許慎이 저술한 자전 형태의 최초 서적이다. 허신은 당시 금문학과 고문학과 간의 치열한 지식 논쟁 가운데서도 고문학과에 속했던 인물인

36) 장 보드리야르 저·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2004. p.196

데,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 여타 異說을 무력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저술에 훈고적 의리를 철저히 적용하였다. 이러한 훈고적 태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론적 도모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 완성된 『설문해자』는 그 독창성만큼이나 한편으로는 당대의 이데올로기 혹은 여타 당대의 지식 담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계 또한 분명히 보여준다.

허신은 훈고를 단순한 경문의 해석으로 보지 않고, 문자를 통하여 세계와 사물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오경의 도리를 발양하여 체재의 안정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허신의 《설문》 편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전의 의리를 추구하고 성인의 도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신이 《설문》을 통해 독창적인 형식으로 한대까지의 문자를 형음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자의를 개념화한 이유는 바로 이에 있었던 것이다.³⁷⁾

인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허신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객관적 담론만을 다루는 문헌학자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참다운 정치체제에 대한 주관적 열망을 부정하지 않았던 유학자에 가까웠을 것이라 짐작된다. 경전에서 드러나는 의리는 성인이 남긴 도이자 더 나아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로서 그것 자체가 객관적인 표상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또한 합목적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대의 정보 또는 지식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반영된 대표적 요소가 『설문해자』의 部首 분류라 할 수 있다. 『설문해자』는 표제자로 활용한 9,353자의 小篆體를 효과적으로 분류·배열하기 위해 540개의 부수를 활용하였다. 부수를 활용한 문자의 분류·배열도 그것이 최초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5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함의이다.

《설문》의 體裁를 보면 곳곳에 음양오행 사상의 흔적이 보인다. 우선 《설문》은 전체 9353자를 모두 540부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 540이라는 숫자는 六(陰之極)×九(陽之極)×十(全數)으로서 만물을 망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天人地 세 글자가 각각 一上·八上·十三下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三才를 순서에 맞추어 의식적으로 교묘히 안배한 것이다. 그리고 부수를 배열하는 원칙을 叙에서 “始一終亥”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부수가 一에서 시작하여 地支의 끝인 亥부에

37) 유동춘, 「《설문해자》에 보이는 漢代 지배 이데올로기」, 『중국언어연구』제19집, 한국중국어학회, 2004. p.49

서 끝나는 것은 만물을 모두 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음양오행가의 “만물이 일에서 생겨나 해에서 끝난다.”는 설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³⁸⁾

인용에서 밝히고 있듯이, 540이라는 부수의 숫자는 음의 극점을 상징하는 숫자인 6과 양의 극점을 상징하는 숫자인 9 그리고 완전한 숫자인 10을 모두 곱한 숫자이다. ‘ $6 \times 9 \times 10 = 540$ ’과 같은 형태는, 현대의 과학적이고 논증적인 절차나 체계와는 거리가 먼, 어디까지나 우주를 바라보는 고대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으로부터 기인한 분류 기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글자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고 분류한 뒤 그로부터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결과적으로 540개의 부수로 귀결되는 방식의 귀납적 방법론이 활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540이라는 숫자를 미리 전제하고 해당 숫자를 기준으로 부수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연역적 사유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더 뚜렷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一’로부터 시작하여 ‘亥’에서 끝나는 부수 체계를 취했다는 사실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글자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데 있어서 당대 보편화되어 있던 우주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당대 우주의 원리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통용되었던 음양가의 설이 유가적 차원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고려할 때³⁹⁾, 그러한 『설문해자』 540부수 탄생의 이면에는 유가 사상과 정치 체제를 옹호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밀바탕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앞서 ‘ $6 \times 9 \times 10 = 540$ ’에서 드러나는 곱셈, 즉 數理的 요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九章算術』과 함께 고대 중국의 대표적 수학저술로, 후한 무렵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周髀算經』에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에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겨지는 수리적 지식을 증명하는 해당 부분에는, 우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방법이 바로 이러한 수리적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故禹之所以治天下者, 此數之所生也] 또한 추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⁴⁰⁾ 수

38) 앞의 논문. p.50

39) 고대 중국의 종교·사상 체계에 있어 유가와 음양가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巫祝의 관심대상은 공자의 관심 대상이기도 했다. 원래 儒士와 무축은 본시 때때로 같은 일을 했다. 진한시대에 유사와 方士 두 이름은 늘 뒤섞여 분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의 유가와 음양가가 혼합된 결과이기도 했겠지만, 유사와 무축의 본래의 관계 자체에도 원인이 있었다. 진한시대에는 유가의 인물은 또한 음양가의 인물이었고, 유사는 또한 방사였다. 예컨대 동중서(董仲舒)라는 인물은 이 네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었다. 그의 저서 속에 나오는, 비를 부르고 멎게 하는 방법은 실제로 방사의 방술(方術·道術)이었다.” -풍우란 저·박성규 역, 『중국철학사-上』, 까치, 1999. p.727

40) 조셉 니덤 지음·콜린 로넌 축약, 『중국의 과학과 문명2: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까치, 2000. p.16~17 참조.

리적 차원의 산술 체계를 정리하고 이것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임금의 치적 내용을 함께 언급한다는 것은 곧, 고대 국가에서 활용된 수리적 지식이 유가적 세계관 혹은 유가적 치세의 정통적 맥락에서 이해되었을 여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고대의 우주론과 유가적 지치주의가 반영된 『설문해자』의 540 부수 체제가 등장한지 대략 170년이 흐른 西晉 武帝 무렵에 그에 대한 증보판 격으로 『字林』이 저술되었다. 해당 저술은 산실되어 오늘날 그 원형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타 자료에 근거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설문해자』와 같이 540개의 부수로 한자를 분류하였으며 그 배열순서 또한 『설문해자』와 동일하다고 전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대에 나온 『玉篇』⁴¹⁾이나 『類編』과 같은 자전들 또한 표제자로 활용한 字體 또는 표제자의 양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설문해자』의 540부수를 그대로 따르는 형식이다. 이는 아마도 『자림』이나 『옥편』, 『유편』과 같은 자전들의 경우, 정치적 맥락 혹은 학문적 맥락에 있어서 유학적 전통으로 여겨졌던 『설문해자』의 영향아래 있었기 때문에, 문자와 관련된 지식 지형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 문서에 활용되는 한낱 도구가 아니라, 우주를 재현하고 이를 통해 성인의 가르침을 표현할 수 있는 신성한 진리로서의 문자관이 宋代에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해자』의 540부수 분류·배열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龍龕手鑑』과 『五音篇海』가 저술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龍龕手鑑』은 『유편』이 출간되기 70년 전, 즉 북송 太宗 至道 3년(997년)에 요나라의 승려였던 行均에 의해 저술된 자서이다.⁴²⁾ 대장경의 자서로 편찬된 이 저술은 26,430여 자의 표제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기존 『설문해자』의

41) 『옥편』의 경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판본에 따라 542 또는 543개의 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설문해자』보다 부수가 몇 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설문해자』의 부수 체계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배열 방식에 있어서 다소 특수한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수 체계를 이루는 거시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설문해자』를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해자』와 다른 『옥편』의 정리배열 방식이 가지는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설문해자』의 부수 배열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형의 유사(한 정도)로 배열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적될 수 있음에 반하여, 『옥편』의 경우는 어느 쪽인가 하면 의미가 동류(同類)인 부수를 정리·배열한다는 방침에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아(兒)’·‘부(父)’·‘신(臣)’ 등의 인륜에 관련된 부수, ‘목(木)’·‘초(艸)’ 등의 식물 관련의 부수, ‘마(馬)’·‘우(牛)’·‘록(鹿)’ 등의 동물 관련의 부수 등이 각각 자형과는 관계없이 정리·배열되어 있다. 이처럼 『옥편』은 자서이면서도 『이아』처럼 의서(義書)적인 특징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오시마 쇼지 저·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치림, 2003. p.152

42) 『용감수감』의 원래 명칭은 『龍龕手鏡』으로 ‘용감’이란 일체의 經 즉 大藏經을 가리키며, ‘수경’이란 앞서 대장경을 의미하는 ‘용감’을 ‘수경’에 비추어 글자의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龍龕手鏡』이 『龍龕手鑑』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은 ‘鏡’이라는 글자가 宋 태조의 휘자인 ‘敬’과 소리가 같았기 때문에 이를 꺼려서 피한 결과이다. -앞의 책. p.162~163 내용 참조.

540부수에서 벗어나 240부수 체계로 해당 글자들을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 체계의 변화는, 자전 출간의 상이한 목적과 표제자 수록에 근거한 자형의 이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허신이 유가 경전의 자서 맥락을 바탕으로 소전체에 근거한 표제자를 『설문해자』에 수록하였다면, 행균은 불가 대장경의 자서를 저술하고자 해서체의 자형에 근거하여 『용감수감』을 편찬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허신의 경우 하늘에 통하는 신성한 진리이자 성인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신령한 매개로서 한자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자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儒者로서의 의도로 540 부수 체계를 적용하였다면, 행균의 경우는 신성한 진리로서 한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가적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한 명의 승려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자 가운데 하나의 부호이자 기호로 한자를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진리를 반영한 혹은 진리를 품고 있는 신성한 대상으로서의 한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자를 가치중립적인 부호나 기호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五音篇海』에서도 나타난다. 『五音篇海』는 『四聲篇海』라고도 하는데, 1208년 金의 韓孝彦이 저술하고 이를 그의 아들 韓道昭가 증보하여 완성한 자서이다. 이 저술은 54,595 자의 표제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용감수감』과 마찬가지로, 기존 『설문해자』의 540부수에서 벗어나 444개의 부수 체계로 해당 글자들을 배열하고 있다. 그리고 『오음편해』에서 인용되는 선행 저술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도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搜眞玉鏡』이라는 자서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시마 쇼지의 경우, 『搜眞玉鏡』과 『오음편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⁴³⁾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용감수감』은 불교와 연결하여 그리고 『오음편해』는 도교와 관련지어 두 자서의 역사적 의미를 포괄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용감수감』은 승려에 의해 대장경의 자서로서 편찬되었던 것임에 반해, 『오음편해』는 도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저자에 의해 지어졌다. 자서에서 부수 배열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던 두 자서가 전통적인 유교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중국문화사에 있어서 특필해야 할 사실이다.⁴⁴⁾

43) “오가와 다마키(小川環樹) 씨는 이 『오음편해』라는 자서가 도교도를 위해 편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오가와 다마키 씨는 이 자서의 원저자인 한효연 자신이 도사였든가, 아니면 도사에게 학문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또한 그 아들 한도소가 개편 작업을 했을 때에는 도사들이 그 일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참으로 흥미 깊다.” -앞의 책, p.166

44) 앞의 책, p.167

사실, 『오음편해』가 여러 선행 자서를 인용하는 가운데 『搜眞玉鏡』의 내용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러한 맥락이 꼭 ‘『오음편해』는 도교적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자서이다’와 같은 분명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문해자』의 540부수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부수 체계를 이끌어낸 여러 동인 가운데 하나로 그러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판단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설문해자』의 540부수 체계는 적어도 『용감수감』이나 『오음편해』가 세상에 나온 시기인 11~13세기 무렵 전까지, 고대 중국의 우주론에 근거한 체계적이고도 절대적인 문자 이해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고대 음양이론과 연계한 그러한 유가 체제의 상징적 시각은 스스로의 ‘정통성’이 내부로부터 훼손되거나 혹은 ‘전통성’이 외부에 의해 침해당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를 맞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용감수감』과 『오음편해』의 부수 삭감은 기존에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유학 전통의 지식 상징에 금이 가고 불교 유입과 도교가 부각됨으로써 새로운 사상적 지형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용감수감』과 『오음편해』의 부수 삭감이 가지는 상징성은, 한자 자체를 진리로 여겨왔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그것을 여러 문자 가운데 하나이자 기호로 받아들여지게 된 의식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字彙』의 214부수 체계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자휘』는 명나라 신종 萬曆 43년(1615년) 梅膺祚에 의해 편찬된 자전이다. 수록된 표제자는 33,179자로서, 해당 한자들을 214개 부수에 근거하여 분류·배열하였다. 『설문해자』의 540개 부수에서 214개로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앞서의 『용감수감』이나 『오음편해』의 부수 삭감과 유사한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용감수감』과 『오음편해』의 경우 저자가 가지고 있던 사상적 환경과 관련하여 부수삭감의 배경을 짚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자휘』는 분명하게도 楷書의 필획에 근거하여 부수의 수효를 축소했다는 점이 앞서의 자전들과 『자휘』를 구분 짓게 만드는 차별적 지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明代에 오면서 해서가 보편적 서체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자휘』의 부수 삭감 현상을 거론할 수도 있다. 사회의 지식 질서를 기초하는 매체의 보편적 규준이 변화할 경우 그에 따라 매체를 정의하는 요소 또한 함께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휘』의 부수삭감 양상을 그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서체의 필획에 근거하여 부수를 재정립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수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의(Signifié)를 기표(Signifiant)의 관점에서 해체하고 이를 새롭게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기표와 기의의 위계 변화 양상에 근거하여 인간인식과 사회체제의 ‘근대성’ 및 ‘탈근대성’을 규정하는 현대철학의 일반적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한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부수적 규칙에 해당하는 기표적 요소가 한자 부수가 가진 기의적 차원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구조주의적 관점과 해체론적 성향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스펙트럼이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체의 필획이 한자나 부수에 있어서 기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검색에 있어서 부수 체계의 경우 찾고자 하는 한자에 대한 하나의 기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수 체계와 한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의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기의는 선천적으로는 자의적이지만 후천적으로까지 자의적이지는 않다. 기호가 일단 역사적 존재가 되고 나면 이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호는 ‘코드’(후기 구조주의 기호학의 핵심적인 개념)의 규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용되면서 문화 구성원들 사이에 익숙한 역사적 특성과 함축적 의미를 획득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어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언어는 항상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사용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언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언어기호가 관습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것이 자의적이기 때문이고, 언어기호가 자의적일 수 있는 것은 관습 위에 구축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기호가 자의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개인이 특정 기의를 표현하기 위해 원하는 기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의와 기표의 관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⁵⁾

인용에서 강조하듯이 하나의 기표로서 부수 체계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식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수 체계는 항상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사용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수 체계가 관습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자의적이기 때문이고, 부수 체계가 자의적일 수 있는 것은 관습 위에 구축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부수 체계가 자의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개인이 특정한 한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부수 체계를 마음

45) 대니얼 캔들러 저·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p.73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자의 의미와 부수의 관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설문해자』의 540부수 체계로부터 무려 1,500년 만에 변화한 『자취』의 214부수 체계는 매우 커다란 변혁을 은유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음양 이론과 연계한 유가적 우주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매체 체계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한자를 중립적 기호로 상정하고 물리적 조건에 기초하여 글자를 검색할 수 있는 부호적 성격의 매체로서 부수 개념을 재정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자취』를 저술한 매응조 개인의 혁신적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환경으로 작용한 당시 시대적 상황의 특징에 근거한다 할 수 있다. 특히 15세기 초에 시도된 鄭和의 出使⁴⁶⁾와 이를 통해 15~16세기에 걸쳐 파급된 화폐경제 체제의 급속한 발달⁴⁷⁾ 그리고 16세기 이래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예수회 선교사의 서양 문물전래활동⁴⁸⁾ 및 陳獻章·王守仁·李贄 등으로 대표되는 15~16세기 異學 혁명⁴⁹⁾

46) 정화의 출사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정화의 출사는 명대의 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세 이래 중국의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중국함대의 위세와 위엄이 남쪽으로 전파된 것도 모두 전대에는 없었던 일들이었다. 이 밖에 주의할 것은 바로 중국인들로 하여금 해외로 진출하도록 흥미를 불러 넣어 주었던 일이다. 그의 출사로 인하여 해외의 사정이 더욱 국내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福建·廣東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南洋으로 옮겨갔다.” - 傅樂成 저·辛勝夏 역, 『中國通史-下』, 지영사, 1998. p.735

47) 明代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16세기부터 서양 상인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백은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독일 출신의 미국 학자 프랑크는 중국에 유입된 백은 문제에 관한 연구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리오리엔트》의 제3장 〈자본의 세계적 이동이 세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의 제1절 ‘세계화폐의 생산과 교환’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사를 전반적으로 회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 성과를 이용하여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세계 백은 생산량의 1/3에서 1/2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산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백은은 결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화폐 상태의 자본이었다. 이로부터 그는 이 시기 동안에 ‘전 세계의 경제질서는 명실상부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이는 당연히 중국의 사회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 樊樹志 저·김지환 외 3인 역, 『100가지 주제로 본 중국의 역사』, 고려대출판부, 2008. p.601

48) 明代 예수회 선교사의 유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예수회 선교사는 16세기 이래 서양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전에 중국의 역사가들은 의분에 격한 나머지 이들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이 중국에 들어오으로써 단순히 종교를 전도하고 예배당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문예부흥 이후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함께 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기의 서학동점은 동서교통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명·청 시기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가 거의 500명에 이른다고 하며, 중국인들은 이들을 통해 서양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중략)...梁啓超는 《중국근삼백년학술사》속에서 ‘중국의 지식계와 외국의 지식계가 상호 접촉한 것은 진·당 시기의 불교가 처음이었고, 명 말의 역산학이 바로 두 번째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두 번째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천주교 예수회의 ‘서학동점’인 것이다. 예수회 선교사는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동시에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는 명나라 말 지식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앞의 책. p.602-609

49) 陳獻章에 의해 촉발되어 王守仁과 李贄에 의해 본격화되었던 명대의 이학 사조가 당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명나라 전기, 중기의 사상계는 지나치게 고답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새로운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송유 주희의 주석을 시험의 표준으로 삼아, 주자학이 일세를 풍미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모

등은 당시 중국의 사회 체제를 기초화하는 지식·정보의 유통구조 즉 매체 전반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가능하다. 가령, 『자취』의 부수작감이 당시 매체 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시적 일례라면 거시적 차원에서 매체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로서 당대 출판문화의 흐름을 들 수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明代 출판 지형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제자백가 서적이 자연스럽게 출간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쇄물을 바탕으로 형성되던 여론의 범위가 서민 계층에까지 확대되었고, 백화를 사용한 거엽서와 통속 소설이 유통되고 유행하였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는 사인까지 출현하였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15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당대인들의 의식·문화·사회 체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요인들에 근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5세기 후반 이래 기성 가치관은 점차 도전에 직면했다. 명나라 말인 17세기 전반이 되면 필연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아닐까, 유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의 사태가 되었다. 결국 유교는 뼈격거리는 지점까지 전개된 끝에 자기 부정에 이르려던 참이었다. 이런 유교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은 뒤집어서 혹은 외재적으로 말하면, 이설이나 이단의 해방이 진전되는 과정이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15세기 후반에는 반드시 정통과 일치하지 않는 유가의 저작, 예컨대 육상산의 문집 등이나 더 나아가서는 한 대의 유가 문헌이 재간되었고, 16세기에 들어서면 완전한 非유가 문헌과, 16세기에 이르면 이단 중의 이단으로서 ‘금수’로 불렸던 『목자』조차도 연달아 판을 거듭하게 된다...(중략)...이단이 허용되고 평가된다는 것은 정통의 상대화가 진행된다는 것, 곧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깊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미 지금까지의 상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면 異論이 公然化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이론이 출판을 통해서 세상에 퍼지는 것도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자백가를 긍정하려는 논의는 그 전형적이 예였고, 또한 진시황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당시까지 진시황과 그의 정치는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것도 없이 단적으로 뉘였으며,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1000여

두 復性과 躬行에 의탁함으로써, 자각이나 자유사상을 결여하고 있었다. 물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듯이, 진현장, 왕수인 등의 이학 혁명이 나타나면서 개인의 사상이 성현들의 천편일률적인 경서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중략)...이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재들이 배출되면서 모두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주지로 하니, 노도와 같은 개인주의와 박애주의 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중략)...사람마다 직관을 주제로 여겨, 유가의 경전을 평가치고 공담을 숭상하는 심성을 양성하고 실속 없는 허담만을 숭상하는 학풍이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한 때는 사대부가 책을 읽지 않고 현실 학문을 논하지 않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어록을 암송하고 화두를 헤아리며, 公案을 외우는 등 내실 없는 학풍이 널리 퍼졌다.” -앞의 책, p.614-622

년 하고도 몇 백 년 동안 유지돼 온 이 상식에 대해서도 명나라 말에는 異論이 나타났다.⁵⁰⁾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러한 종합적 변화는 당대 사회의 핵심적 매체라 할 수 있는 출판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부터 촉발된 인식의 변화는 다시금 또 다른 상식에게까지 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000년 넘게 유지되어온 『설문해자』의 540부수체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곧 1,000년 넘게 유지되어온 진시황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명대 중엽 급변하던 시대상황 가운데 정립된 『자휘』의 214부수 체계는 『康熙字典』에 그대로 계승된다. 『강희사전』은 청나라 康熙帝의 명으로 당시의 대학자였던 陳廷敬, 張玉書 등 30명의 학자가 5년에 걸쳐 1716년(강희 55)에 완성한 자전이다. 『자휘』와 『正字通』 등의 구성을 참고하여, 214개의 부수를 바탕으로 약 47,000자를 각 부수에 배속시켜 획수순으로 배열, 검색할 수 있게끔 하였다. 『강희사전』은 이후 간행된 근대 및 현대의 수많은 자전 體裁에 있어서 표준적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자휘』에서 비롯되어 『강희사전』으로 그리고 다시 근·현대의 수많은 자전으로 전래된 214부수 체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바라볼 때, 하나의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마치 중세기 몇 백 년 동안 『설문해자』의 540부수 체계가 큰 의문 없이 지식인 사회에 수용되어온 것과 유사한 의미를 띠다 할 수 있다.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매체로서 문자가 가지는 기능이나 역할에 큰 변혁이 오지 않을 경우, 기존의 문자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던 지식 체계가 변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20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시도된 부수체계의 변환 작업은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자의 형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 맥락의 변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자휘》로부터 시작해서 근세 한국 한자사전 중에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자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희사전》의 214부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金科玉條같이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부수귀속의 예도 거의 《강희사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楷書體의 簡化作業이 전개되면서부터 이에

50) 이노우에 스스무 저·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역, 『중국 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p.362~379

맞는 簡化字部首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기존의 214부수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여전히 해서체를 표준자체로 사용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부수를 刪併하거나 新增한 자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辭海》의 〈部首查字法查字說明〉과 《漢語大字典》의 〈部首排檢法說明〉 등이 이에 속한다.⁵¹⁾

인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취』로부터 비롯된 214개의 부수 가운데도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여, 1971년에 나온 『新華字典』의 경우 189개의 부수만을 채택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 나온 『漢語大字典』에서는 200개의 부수만이 채택되어 출간되었다. 이는 20세기 초·중반 중국에서 간화 작업이 전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간체자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⁵²⁾ 자형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한 자형 변화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며, 자형 변화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문자를 인지하던 인식체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강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세기 문화적·정치적 상황 급변에 따른 중국의 문자 인식 변화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자가 본래의 문자가 아닐뿐더러 정치적 차원에서 공산당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화혁명과 같은 정부 주도하의 대규모 문화개혁정책 또한 없었기에, 20세기 한국이나 일본에서 출간된 자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214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는 漢字의 시각적 개념이 곧 楷書體로부터 근간하는 데서 기인하는 까닭이다.

51) 박추현, 「중국어 한자 사전의 몇 문제: 자전검색법과 214부수」, 『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01. p.334

52) 20세기 초 중국의 楷書體 簡化作業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9년 공산당정부가 실권을 잡게 됨으로써 당해 10월 ‘중국문자개혁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매체로서 문자가 가진 영향력을 당시 모택동을 위시한 지도층이 강력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실제 이전까지 통용되던 注音字母(현재의 주음부호) 표기법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당의 것’으로 여겨졌으며, 해당 표기법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곧 국민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산당 정부는 새로운 표기법을 마련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표기법 개혁과 관련된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당시 소련이 사용하던 슬라브식 표기법을 수용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당대 중국과 소련 양 공산당 정부 간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이해의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에서는 1958년 26개의 알파벳에 기초하여 漢語拼音 표기법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국민당을 전신으로 하는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달리 간화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해서체 자형을 표준자체로 삼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후폭풍으로 간체자 사용이 대만 본토에서 증대되자 정부 입장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매체로서 문자가 가지는 영향력이 현실에서의 정치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사전에서 한자의 부수자로 쓰이는 편방은 214개이다. 이것은 명나라 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몇몇 자전을 제외하면 보통의 사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36개의 편방 부수자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网(망)과 같은 편방은 4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모두 합치면 45개나 된다...(중략)...편방들이 두 개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글자를 쓸 때 모양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자의 형태는 대개 정사각형으로 쓰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위의 글자들이 편방으로 쓰일 때, 본래의 모양대로 쓴다면 글자가 정사각형이 아닌 매우 불균형스러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⁵³⁾

인용에서 말하는 정사각형의 프레임이 가장 체계화되고 보편화된 한자 자형이 곧 해서체라 할 수 있다. 시각 기호로서의 균형미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차용된 외형이 정사각형이며, 부수 또한 그러한 시각적 외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214개의 부수 체계는 곧 해서체의 시각적 기준에 근거하여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서체 이후 꾸준히 이루어진 자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온 중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본국의 문자가 아니기에 한자의 자형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한자는 곧 중세기에 수용한 최종적인 자형인 해서체 근거하는 문자로 개념화 된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의 매체 맥락과 한국이나 일본에서 통용되는 한자의 매체 맥락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현대기에 자형 변화가 이루어진 중국의 경우 그에 따라 사전의 부수체계에 변화를 도모한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중세기 해서체 자형을 표준 한자체로 삼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존 해서체에 근거한 214부수 체계에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충분히 도모해볼 가치가 있다’이다. 篆書體로부터 楷書體로의 역사적 자형 변화 그리고 해서체가 보편화되기까지 이루어진 자형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 『자취』의 214 부수 체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214 부수체계가 해서체에 근거한 한자의 體制를 반영하는 가장 완벽한 부수체계라고 말하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214부수체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수의 수를 줄인다는 전제와 함께, 고문 자계통의 자형을 이미 상실한 해서체의 자형을 기준으로 글자를 배속시킨 까닭으

53) 이규갑, 『한자가 궁금하다』, 학민사, 2000. p.145

로 인해 부수귀속상의 구조적인 혼란스러움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설문해자》의 ‘人’部를 없애면서, ‘今’자는 ‘人’부에, ‘畚’자는 ‘口’부에, ‘畚’자는 ‘舌’부에 각각 배속시킨 것이 그 중의 한 예이다. 또한 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체자의 경우, 形聲字는 비교적 쉽게 부수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會意字의 경우에는 부수의 결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의미의 비중이 큰 쪽으로 부수가 결정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검색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한 자전의 編者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⁵⁴⁾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설문해자』 540부수 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드러나는 부수귀속상의 구조적 혼란이나 六書 개념에 근거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수 결정의 애매함과 같은 요소들은, 214부수 체계가 해서체의 특질을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색인 체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할 때, 214부수 체계가 가진 기능적 불완전함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수 체계를 고민하는 것은 무척이나 건전하고 건강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존 서적 형태의 자전의 경우, 개별 부수가 낱글자의 편방으로서 가지는 공간적 특질을 시각적으로 해명하기에는 힘든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수의 통합적 관계를 바탕으로 낱글자의 편방을 차지하는 각 부수의 특징을 해명하지 못하고 오로지 획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색인 목록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밖에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구축되는 웹 자전의 경우, 그와 같은 서적 형태의 자전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부수를 정의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기존 한자의 구성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글자를 새롭게 검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휘』에서 비롯되어 현대 자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214 부수 체계는 일종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그 전통은 해서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형의 기능적 특징이자 또한 한자 역사의 커다란 일면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한자로부터 파생된 중세 문화의 뿌리이자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글자 검색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214부수 체계에 대한 의문과 그것에 대한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곧 ‘전통’에 의문을 표하는 행위이자 기존 문화에 대

54) 박추현, 「중국어 한자 사전의 몇 문제: 자전검색법과 214부수」, 『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01. p.333

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취』의 214부수 체계 또한 당대의 문화·기술적 지형변화에 따라 『설문해자』의 전통적 540부수 체계를 계승·변용한 형태로 출현한 것이다. 시대적 지형이 바뀌고 그에 따라 문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변화할 경우, 그에 따른 매체의 질적·양적 변화는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앞서 한자의 역사에서 부수 체계가 변화해 온 흐름을 조망해보았을 때, 214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현재의 부수색인 체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문화적 상징성과는 별개로 기능적 차원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부수 체계가 만들어놓은 ‘전통’의 그물에 걸려 있을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 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부수 체계를 도모함으로써, 기존 ‘전통’의 그물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 이해에 풍부함을 더할 수 있는 부수체계의 ‘매체성’을 차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2.音を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앞의 장에서 다루었던 『龍龕手鑑』과 『五音篇海』 두 저술이 『說文解字』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일면은 비단 사상적 배경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글자의 분류·배열 방식에 있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가령, 『용감수감』이 부수배열에 있어서 平·上·去·入의 四聲 즉, 음성학적 차원의 방법을 적용하였듯이 『오음편해』 또한 부수자를 음운학의 ‘5音 36字母’ 체계를 바탕으로 분류·배열하고 동일 자모 배열의 경우 平·上·去·入의 四聲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음성·음운학적 측면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글자의 분류배열에 있어서 음성·음운학적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文語 중심적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구술적 차원에서 문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었음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이는 기존 유학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글자의 분류·배열·검색의 편리성을 고민하게 되는, 당대 문자 지식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문어 체계를 중심으로 문자의 분류·배열 체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구술적 요소가 반영된 분류·배열 체계가 새롭게 등장한 당시 시대적 맥락과 관련하여, 당대 지식인 계층에 영향을 준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인으로, 수당 시대 이후 ‘九品官人法’이 폐지되고(598년) 관리

임용법으로 ‘貢擧’가 적용되면서 六科 가운데 고위 관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明 經科와 進士科가 지식인 계층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經學의 번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명경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많았던 진사과의 경우 漢詩 작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로 인해 押韻이 강조되었고 그와 관련된 『切韻』이나 절운계 운서의 마지막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廣韻』과 같은 대표적 운서들이 지식인 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묘하게도, 해당 운서들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온 시점(『절운』의 경우 601년, 『광운』의 경우 1008년)이 앞서 『설문해자』의 부수 체제를 따른 『옥편』의 완성 시점(543년)과 『설문해자』의 부수 체제에서 탈피한 『용감수감』과 『오음편해』가 저술되어 출간된 시기(각기 997년, 1208년)의 사이에 해당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근거할 때,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음성·음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지식인 사회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문어적 특질에 근거한 부수 체계 외에 음성·음운학과 관련된 구술적 차원의 분류·배열 형식이 자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문학자였던 허신에 의해 『설문해자』에서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던 구술적 요소가 대략 1세기 이후 그와 같은 계통의 자전에 분류·배열 체계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한자가 가진 기호적 특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소전체가 가지고 있던 그래픽 표기적 특징에서 벗어나, 예서와 해서의 표음적 성격에 근거한 음성적 상징으로서 한자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음을 가리키는 일종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수메리아인들은 문자의 진화 과정에서 음성적 전사로 향하는 많은 수의 표의 글자들(idogrammes)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들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에 도달했고 페니키아 문자는 기원전 1200년 전 가장 오래된 자음 문자의 유형을 낳았으며, 기원전 700년 전에는 모음이 추가된 그리스 알파벳이 탄생되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진화는 대상에 적용되는 단어들을 옮기기 위하여 오브제의 실재적 표상의 가능한 단계들을 거쳤다. 레뷔스(rébus) 체계에 따라서 동일한 소리를 다른 단어들 속에 전사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표상으로부터 그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단순화가 나타난다. 즉, 엄밀하게 음성적인 상징들이 발현되었던 것이다.⁵⁵⁾

55) 김성도, 「한자와 디지털 언어: 그 기호학적 접점을 찾아서」,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298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초 표의적 성격을 띠던 문자가 표음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츰 음성·음운학적 차원의 이해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은, 한자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은 아니다. 다만, 중국의 한자와 함께 고대에 음성화된 표의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 대표적 문자로 꼽히는 이집트 상형문자의 경우, 기원전 7세기부터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던 표의적 성격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한자는 여타 고대의 상형문자와는 다른 뚜렷한 기호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누군가 ‘한자의 경우 표의적 성격이 강한 문자인가 표음적 성격이 강한 문자인가’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표의적 성격과 표음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형성자가 전체 한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자가 가진 표음적 성격은 표의적 성격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독특한 연결성이 한자의 역사성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전국시대 말기에 나타나 漢代에 이르러 보편화되고 성행한 ‘聲訓’의 개념을 짚어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성훈’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동일한 소리를 다른 단어들 속에 전사’시킨다는 레뷔스(rébus)⁵⁶⁾의 맥락과 같은 차원에서 사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논어』「안연」에 나오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 正也.]’와 같은 표현은, 正자가 가진 소리를 政자에 의식적으로 전사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언어적 처리는 政과 正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표의적 측면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음성적 요소에 의미적 외연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위 인용문의 표현에 근거하였을 때 그러한 절차를 ‘대상으로부터 표상을 분리시키는 단순화 과정’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성훈’의 경우,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어원 탐구 방법론이었기 때문이다.

성훈(聲訓)이라는 방법은 의미와 소리 사이에 무엇인가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자칫하면 무리한 견강부회가 되기 십상이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방법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훈의 방법은 후대의 어의(語義)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⁵⁷⁾

56) rébus는 ‘수수께끼’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다소 광역적 의미를 취하지만, 여기서는 음성학적으로 같은 발음의 글자나 단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수께끼적 성격의 놀이 정도를 의미한다.

57) 오시마 쇼지 저·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2003. p.89

인용이 강조하듯이, 글자가 지닌 소리값(기표)과 청각영상(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임을 강조하는 소쉬르 이후의 현대 언어학 체계에서 보았을 때, 글자의 소리와 글자의 의미 사이에 필연적 연결성이 있다는 사유는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대 공시주의 언어학이 이루어낸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별개로, 漢代 경학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성훈’의 맥락⁵⁸⁾은 3세기 초 劉熙의 『釋名』을 이어 11~12세기 宋代의 ‘右文說’, 18세기 清代 王念孫의 ‘因聲求義’ 이론 그리고 20세기 중국어를 연구했던 스웨덴의 언어학자 칼그렌의 ‘단어가족’ 개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⁵⁹⁾ 이러한 유사 문제의식에 근거한 연구사적 맥락은, 한자가 지닌 표음적 측면의 특징을 본질적으로 해명해주지는 못했지만, 소리와 의미 결합 및 분리 양상에 있어서 여타 문자들과는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한자의 특질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뚜렷하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에서 논의되는 소리-의미의 ‘자의성’ 개념과는 별개로, 소리-의미 관계가 내포할 수 있는 ‘비자의적’ 가능성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기호로서 한자가 가지는 특징적 함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로 그러한 연구사적 맥락이 정리될 수 있다. 아래의 인용은 그러한 차원에서 한자의 기호적 함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중국어에서 표의적 표기법과, 의미가 비어있는 문자소를 매개로 한 음성적 표기법의 경쟁은 표기된 소리(청각적인 시적 질료)와 그것의 표기법(이미지들의 우글거림) 사이에서 창조된 신화 그래픽적 표기법을 심화시켰다. 그 같은 관계는 상징에 있어서 매우 풍성한 것으로서 한시와 중국의 서예에 탁월한 가능성들을 제공하였다. 낱말들의 리듬은 획들의 리듬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며, 각 글자의 부분들과 글자와 글자가 서로 암시로 번득이는 복잡한 관계에서 이미지들이 태어난다. 한자의 표의적 양상과 음성적 양상은 상보적이며 동시에 서로 생소하여 각각은 중국을 벗어나서 상이한 표기법 체계를 낳았다. 예컨대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과 음운 구조가 중국어와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하므로, 한자의 차용은 오로지 표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⁶⁰⁾

58) 漢代 금문경학에서 주로 활용된 ‘聲訓’ 개념의 본질적 맥락과 관련하여, 중국의 류쥬디와 같은 학자는 당대 민간의 구술·문화적 특징과 관련을 지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대 경학에서 사용한 성훈은 민간에서 즐겨 쓰던 수사법과 약속이나 한 뜻이 일치한다. 이는 한대의 성훈 및 경학의 깊은 의미를 꿰뚫기 위해서는 언어학이나 철학의 테두리에서만 맴돌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야와 포부를 넓게 가지고 사물을 대해야 하는 법, 성훈이 한대에 한동안 성행했던 것은 경학가들이 일부러 날조한 것이 아니라 넓고 두터운 문화적 연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민간의 구두 언어에 담긴 해음쌍관수사법에서 기원한 것이다.” -류쥬디 저·이유진 역, 『금문경학의 풀뿌리』, 『동양고전과 푸코의 웃음소리』, 글항아리, 2013. p.258

59) 오시마 쇼지 저·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2003. p.90-93 내용 참조.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대·중세기 중국 언어로서 한자가 가진 기호적 양상의 다양한 특징을 기본적으로 표의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그것은 언어학적 차원에 근거하였을 때 중국어와 한국어 및 일본어의 통사·화용·음운론적 체계가 달랐음에 기인한다. 음성이라는 구술적 차원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의미를 전달·수용하기 위해서는 의미 자체를 표상화할 수 있는 시각 매체, 즉 글자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글자·문법 중심의 한자 수용 및 유통 양상은 누구나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그것을 ‘오로지 표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가라타니 고진의 경우 한국과 일본어의 한자 전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조로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흔히 보이는 어이없는 착각과는 반대로, 한자는 단지 표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표음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의 제 민족 중 한자의 표음성을 이용해 그것을 일종의 ‘가나(仮名)’로 사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자를 에크리튀르 안에 흡수한 것은 일본뿐이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방기(放棄)하거나 방기해 가고 있다(현재의 한국이 그러하듯이). 예컨대 한국에서 한자는 한자 음성 그대로(한국화된 발음일 터이지만) 도입되었다. 또 에크리튀르로서는 한문이 주(主)였으며, 15세기에 표음적인 한글이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 한자는, 일본어에서의 의미=음성(音)으로 동시에 읽혔던 것이다.⁶¹⁾

고진이 밝히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수용한 양상이 다르다. 한국은 한자가 전래되던 당시의 한자 음성 그대로 그것을 도입하였다.⁶²⁾ 비

60) 김성도, 「한자와 디지털 언어: 그 기호학적 접점을 찾아서」,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303

61) 가라타니 고진, 「에크리튀르와 내셔널리즘」,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2002. p.76

6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이르게는 기원 전후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한자와 접촉하면서 중국 각 시대의 한자음이 끊임없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모태가 형성되었고, 이윽고 10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한층 타당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자음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토대에 대해서는...(중략)...여러 입장이 있으나, 현재는 대체로 6~7세기 당나라 장안(장안) 지방의 한자음이 가장 주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한자음에는 수·당 시대의 절운계(切韻系) 운서로 대표되는 중고음(中古音)적 요소와 이후 송명 시대 이래의 중세음(中世音)적 특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원철, 「한자 형성 공간의 탐색과 동아시아」,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2003. p.297

록 특정한 한자의 음과 그것을 가리키는 현재의 중국어 음이 정확히 같지는 않으나, 음성·음운학적 차원에서 두 요소가 같은 계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일본은 한자의 뜻과 음을 구별하여 이것을 각기 받아들였다. 현재 훈독과 음독으로 나누어져 있는 일본어 체계는 바로 그러한 특수한 한자 수용 양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에 한자가 수용되고 유통됨에 있어서 그것의 ‘표의적’ 차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력이 전적인 차원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자가 가진 ‘표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성적’ 차원의 요소 또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수용되었다면,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수용된 양상이 왜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한자가 가진 중국어로서의 뜻과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한자의 음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 뜻을 자국어의 의미체계로 전환하여 개별적으로 수용한 ‘훈독’의 맥락이 특수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한국 또한 한자 수용 초기 현재 일본의 ‘훈독’과 유사한 언어적 수용 양상을 취하였는데, 아래의 인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二十五首의 詞腦歌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全部 漢字로 記寫되었는데 그 用字法은 義字와 借字로 大別된다. 廣義로 보면 일체의 漢字가 모두 借字 아님이 아니나, 여기 이른바 ‘借字’란 義字가 漢字를 原意대로 쓴 것임에 反하여 漢字의 原意와는 關係됨이 업시 그 音訓만을 빌어 我語를 表記함을 이르는 것이다.⁶³⁾

인용에서 드러나는 ‘義字’ 개념이 곧 일본어에서 활용되는 ‘훈독’의 언어적 맥락과 매우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다. ‘의자’는 음이나 訓 중 어느 하나를 차용한 借字에 대립되는 개념어로서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지닌 尙札, 吏讀, 口訣 자료에 사용된 글자를 가리킨다.⁶⁴⁾ 한국에 한자가 수용되던 초기 ‘서동요’나 ‘제망매가’, ‘헌화가’와 같은 고대 가요를 표기하기 위해 이러한 ‘義字’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초기 한자가 일본에 수용되면서 일어나던 訓讀과 音讀의 분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자 수용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한자가 가진 문자로서의 외형을 자국의 언어·문화적 체계에 근거하여 內化하였느냐 내화하지 못하였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內化라는 표현이 다소

63) 양주동, 『古歌研究』, 일조각, 1965. p.59

64) ‘義字’ 개념이 尙札, 吏讀, 口訣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박재민, 「고등학교의 訓借字, 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139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p.158~165 내용을 참고할 것.

작위적인 듯 보이지만, 타국의 문자를 변형하여 자국의 문자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그 이상의 표현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한자를 받아들여 그것을 유통하는 가운데 8세기의 ‘만요가나(万葉仮名)’와 9세기의 ‘소가나(草仮名)’를 거쳐 1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히라가나(平仮名)’가 성립되었다. ‘만요가나’는 한국의 향찰, 이두, 구결과 같은 언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은 왜 일본처럼 향찰이나 이두 그리고 구결과 같은 언어들에 더 변형되고 분화되어 한국식 히라가나를 형성하지 못한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고대·중세기의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 당시 동북아시아의 철학·정치·문화·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복합적인 사유가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은 본고의 주된 논의에서 다소 벗어나는 성격을 취하기에 시도하지 않고자 한다.⁶⁵⁾ 다만, 현재 일본과 다른 한국의 한자 수용·유통 양상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고진의 언급을 통해, 한자의 음성적 차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려되고, 그러한 한자의 음성적 요소가 언어·문화 지식 지형에 있어서 어떠한 바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가깝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학교에서 한글밖에 가르치지 않게 되었지만, 실은 한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한 번 한자로 번역하여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식인은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완전히 폐기하게 되면, 외국어는 한글로 음성적으로 표기하는 게 되는데, 그 경우 일본처럼 가나와 가타가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말하자면 전부 가나로 쓴 것이 됩니다. 어쨌든 한글은 한자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

65) 히라가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한국과는 다른 문화·정치·지리적 환경에 근거한 일본만의 특수한 언어적 배경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점은 분명 흥미로운 것이지만 그러한 논조들의 타당성까지 본고에서 다룰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본이 가지는 특수한 언어적 배경에 대해 다음의 서술이 가지는 논조는 참고할만하다 여겨진다. “가나로 표기한다는 것 즉 표음식으로 쓴다는 것은 문자와 언어 간의 직접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특권적인 성격을 띠는 계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특권성이 가나와 한자를 대조시켜서 가나를 와(和), 한자를 간(漢)으로 하여 마치 와칸(和漢)의 二重性이 존재하는 듯한 시선을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虛構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허구로써의 이중성은 다양한 국면에서 연출되게 된다. 『고지키』에서 마가나(眞仮名)로 상대가요를 기록함으로써 한자문의 세계에 가요의 세계를 대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록된 가요는 한자의 가차용법으로 표기된 문자열에 불과하지만, 표기된 세계의 내부에서는 특권적인 존재인 것처럼 기능하였다. 일부러 서문에 ‘음’과 ‘훈’의 대비를 기술한 것도 이 허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허구가 더 진행되면 소가나(草仮名)의 특권화가 일어난다. 소가나로 고유일본어(和語)를 표기함으로써 고유일본적(和なるもの)인 문자화와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히라가나의 탄생은 자주 말해지듯이 ‘와(和)’의 탄생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유일본적(和)인 요소가 저절로 히라가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한자라는 문자를 변형시키고 와(和)에 대치시킴으로써 비로소 성립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이토 마레스, 「가나(仮名)와 와슈(和習)-한자권의 에크리튀르(ecriture)로서-」, 『일본연구』17권,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2. p.22

에,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⁶⁶⁾

한자를 폐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는 고진의 언급은, 단순히 한국의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그 개인의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근거는, 한국과 일본의 언어 체계에 있어서 한자의 음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를 예민하게 간파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한자 사용은 문어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구어에서는 고유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다. 예컨대, 일반적이고 평범한 성격의 대화에서 ‘선택(選擇)하다(일본어의 경우 選択する)’라는 표현보다는 ‘고르다(일본어의 경우 選ぶ)’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選’이나 ‘擇’이 일상어 차원에서 활용되는 음성적 측면은 고유어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폭이 좁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애초 구술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한자어 음이 실제 대화에서 그만큼의 활용적 가치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음성적 차원의 요소로 인지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표의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아주 특수하고도 역설적인 언어인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edia’라는 영어 단어의 한국어 표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미가 고려된 한자어인 ‘媒體’ 나머지 하나는 해당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음역한 ‘미디어’이다. ‘매체’와 ‘미디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발음이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언어적으로 작용하는 층위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라는 개별 글자는 음성적 차원에서 인지되는 것으로 끝이지만, ‘매’·‘체’ 두 글자는 단순히 음성적 차원의 인지로 끝나지 않고 개별 글자의 의미를 유추하는 인식작용이 수반된다. 고진이 우려하는 바는, 한국어 어휘에서 드러나는 전반적 양상이 ‘미’·‘디’·‘어’ 층위보다는 ‘매’·‘체’ 층위에 가깝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언어 양상을 수용하는 맥락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다소 다른 환경에 있다 할 수 있다. 앞서의 인용문에서 고진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를 것을 강조하며 거론하였듯이, 한자음과는 독립된 영역에서 고유어를 표기·발음할 수 있는 체계가 일본에는 ‘가타가나’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히라가나는 주로 한자음과 일본 고유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데 활용되고, 가타가나는 기본적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지만, 일본 고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 가타가나를 활용하는 경우 또한 많다.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로 분화된 이러한 일본어의 표

66) 가라타니 고진, 「문자론」,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b, 2011. p.127

기 체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혼독과 음독 두 가지로 나뉜 일본의 전통적 한자 독법은, 서로 다른 한자의 동일한 음성 형태가 불러올 수 있는 표기 차원의 의미 체계 혼란을 강력하게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구어와 문어에서 활용되는 한자어의 빈도 차이, 이로 인해 한자어가 갖는 본래의 음성 요소가 의미 차원으로 환원되는 역설적 언어양상은 흥미롭게도 한국 자전이 취하는 자음색인의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자전에서 특정한 음의 글자를 찾기 위해 자음색인을 훑어보다가 해당 글자의 자음과 동일한 여타의 글자들을 무심결에 확인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이 때 의미가 다른 한자들이 동일한 음성적 요소로 인해 일괄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체계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인식의 양상은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전에는 자음색인이 있어 검자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 자음색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것도 한자의 학습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음색인 ‘포’에는 1백 자에 가까운 한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包’를 聲部로 하고 있는 한자들은 부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 ‘싸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 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⁷⁾

위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포’라는 음성적 표기와 관련하여 계열화되는 한자는 자전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략 1백자에 가깝다. 그 중에서도 ‘包’를 聲部로 하는 한자들은 胞, 砲, 抱, 飽, 泡, 咆, 袍, 匏, 鮑, 庖, 苞, 抱, 庖, 抱, 抱, 匏, 筲, 跑, 鈔, 匏, 匏, 龐, 匏, 鮑, 鮑 등이 있다. 이러한 한자들의 의미를 성부인 ‘包’의 뜻 ‘싸다’와 연결하여 유추할 수 있는 맥락은, ‘包’의 의미적 차원이 ‘포’라는 음성적 차원에 근거하여 계열화된다는 측면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음성 기호의 의미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자전의 자음색인에서 드러나는 ‘한자의 음성적 요소와 의미적 측면의 결합양상’은, 흥미롭게도 앞서 한자의 역사에서 ‘聲訓’이 가지는 기호적 의미를 밝히면서 잠깐 언급했던 ‘右文說’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우문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를 담당하는 ‘의부’와 발음을 가리키는 ‘성부’로 구성되는 형성자의 경우 대체로 오른 쪽에 위치하는 ‘성부’가 글자의 의미를 담당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⁶⁸⁾

67) 이의강, 「효율적 자전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p.30

68) 右文說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沈兼士, 「右文說在訓詁學上之沿革及其推闡」,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2004.” p.76~172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고대·중세기 중국에서 한자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 활용되던 음성·음운학적 연구 맥락이 현대 한국 자전의 분류·배열·검색 방식인 자음색인에 무의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시사점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한자가 지닌 음성적 요소에 기준을 둔 이러한 한국 자전의 계열화 방식은, 중국의 경우 몇 세기에 걸쳐 낱글자의 발음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나름의 독특한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알파벳 체계를 지닌 과학적 언어로서 현대 한글이 가지는 소리-의미 관계의 자의성과 별개로, 그 이면에서 한국어 어휘의 의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어의 경우 소리-의미 관계에 있어서 비자의적 특질을 은연중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한 음을 가진 한자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음색인을 펼친다. 자음색인은 자모의 보편적 순서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으며, 찾고자 하는 한자의 자음 페이지에 이르는 동안 해당 한자의 位相은 한글자모가 만들어내는 청각적 체계 내에서 시각적으로 계열화된다. 해당 한자의 자음 페이지에 이르면, 해당 음을 가진 다양한 한자들이 시각적으로 펼쳐진다. 찾고자 하는 한자를 발견하기 위해 같은 음을 지닌 여러 한자 사이를 시선이 헤매는 동안, 그러한 한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각적 자극이 인식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 와중에 찾고자 하는 한자의 페이지를 찾아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 해당 한자가 가지는 시각적 기호로서의 다양한 층위를 확인하는 시간적 과정은, 곧 그 한자를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문화적 기호를 청각적 자극아래 수렴하는 인식의 공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절차를 거치며 이루어지는 자음색인 검색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글자모의 청각적 계열화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한글이 가지는 알파벳으로서의 특질에서 비롯한다. 흥미로운 것은, 자음색인에 근거한 검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청각적 인식이 전체 한글자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계열체(paradigm)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개별 한자의 편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계열체(paradigm)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계열축			
甫	波	貔	
布	派	辟	
包	巴	皮	
포	파	피	→통합축

↑계열축			
咆	哂	哺	
抱	拈	捕	
匏	飾	鋪	
包	布	甫	→통합축

기표 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적용되는 관계항으로서 계열체는, 그러한 기호의 해독과정에서 다양한 연상(mental association)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왼쪽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한글자모 가운데서 특정한 한글자모 ‘포’에 대응되는 한자를 찾는 방식은 곧 검색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 작용을 자연스럽게 수반한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한자가 가진 편방의 조합방식은 한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로 수용되어 시각적 차원에서 한 차례 더 계열적(paradigmatic) 차이를 환기하게끔 만드는데, 이는 앞의 오른쪽 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화된 방식의 언어적 자극이 유도하는 연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언어학자인 소쉬르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⁶⁹⁾

계열적 관계는 기표의 차원과 기의의 차원 모두에서 작용한다. 계열체(paradigm)는 서로 관련된 일련의 기표나 가의들을 의미한다. 같은 계열체 내의 기호들은 동일 범주 내에 속하면서도 서로 간에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자연어에는 ‘동사’나 ‘명사’ 등의 문법적 계열체가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기호가 동일 계열체에 속하는 다른 기호로 대체될 수 있다. 계열체 내에서 어떤 기호를 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호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계열체(예컨대 형용사) 속에서 다른 것 대신 어떤 기표(예컨대 특정 단어)를 고르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원하는 방향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계열적 관계는 ‘대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소쉬르가 본래 제안했던 ‘연상 관계(associative relation)’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열적 관계’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학술용어 냄새도 덜 나는 표현이었다. 소쉬르는 이것을 ‘연상 작용(mental association)’으로 설명하면서 여기에 ‘형식’의 유사성(예:동음이의어)과 ‘의미’의 유사성(예:동의어)을 포함시켰다. 소쉬르가 보기에 이런 유사성은 종류뿐 아니라, (많이 닮은 것에서 적게 닮은 것까지) 정도 또한 다양했으며, (공통의 접두어나 접미어처럼) 단어의 일부분만 유사한 것도 있었다. 소쉬르는 이런 연상 작용에는 끝이 없다고 보았다.⁷⁰⁾

위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자음색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식’의 유사성은 동일한 한글자모에 근거하며 ‘의미’의 유사성은 동일한 편방기호에서 비롯된다. ㅍ자를 찾기 위해 자음색인을 이용하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여타 ㅍ, ㅑ와 같은 글자들은 ‘ㅍ’라는 동일한 청각적 자극에 의해 형식화되며, 이 와중에 함께 접하게 되는 ㅑ, ㅑ, ㅑ와 같은 글자들은 ㅑ으로서 ㅍ가 지닌 의미의 측면이 그대로

69)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최승언 역,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2006.’ p.170~175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70) 대니얼 채들러 저·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p.147~148

투영된다. 소쉬르가 연상 관계(associative relation)에 대해 서술하면서 동음이의어와 동의어를 언급했던 것은 언어적 사유에서 ‘연상’이 불러오는 환기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호가 가진 자의성(arbitrariness) 개념에 대한 사유로 연장되는데, 흥미롭게도 소쉬르는 기표가 가진 계열적 특성에 근거하여 기호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임을 강조한다.⁷¹⁾ 언어의 계열적 특성에 근거하여 언어가 가진 절대적 자의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상대적 자의성 개념 원칙을 제시한 소쉬르의 사유와 유사하게, 자음색인에서 드러나는 ‘형식’과 ‘의미’의 계열적 특징은 앞서 ‘右文說’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한자의 비자의적 특질을 환기하게끔 만든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한글의 자모조합이 가지는 소리-의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의성을 가진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어 어휘의 의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경우 소리-의미 관계에 있어서 비자의적 특질을 은연중 함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機制로서 자음색인이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음색인이 가지는 매체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순히 자전 내에서 글자를 찾아주는 기계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음색인은 특정한 한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색인 가운데 하나로서 그 표면적 기능이 정의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색인으로서 기능하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볼 때 단순히 글자 정보를 전달하는 이상의 인식 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실제, 언어학자이자 미디어학자인 월터 옹(Walter Ong)의 경우 알파벳 순에 근거한 색인을 언급하며 그것이 가지는 인식론적·문화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알파벳순의 색인은 실제로 청각적인 문화와 시각적인 문화와의 교차점이다. ‘색인’이란 본래 ‘장소의 지시(index locorum)’ 또는 ‘공통 장소의 지시(index locorum communium)’라는 말의 단축형이다. 수사학은 원인, 결과, 유관한 것,

71) 소쉬르는 대상과 그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라 정의하였지만, 한편으로 언어 메커니즘의 관습 가운데서도 계열화 양식이 만들어내는 언어적 의미에서는 상대적 자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용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ingt(20)은 無緣的이지만, dix-neuf(19)는 동일한 정도로 무연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dix-neuf는 자신을 구성하는 사항들과 자신과 연합되는 다른 사랑들, 말하자면 dix(10), neuf(9), vingt-neuf(29), dix-huit(18), soixante-dix(70) 등을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dix나 neuf는 따로 떨어져서는 vingt과 마찬가지로, dix-neuf는 상대적 유연화의 한 경우이다...(중략)...상대적 유연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포한다. (1) 주어진 사항의 분석, 즉 연상 관계.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사항에 대한 상기, 즉 연합 관계.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사항이 한 개념의 표현에 적응하는 근거가 되는 메커니즘 바로 그것이다. 여태까지 단위는 가치로서, 즉 체계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특히 대립이라는 면에서 고찰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연결하는 연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연대성은 연합적이며 연사적인데, 그것이 바로 자의성을 제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최승언 역,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2006. p.181~182.

이질적인 것 등과 같은 갖가지 ‘논거’가 찾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loci)’ 또는 ‘장소(places)’-지금이라면 ‘찾아내기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술문화에 입각하여 정형구적인 도구에 의해서 텍스트를 지향했던 400년 전의 색인 제작자는 단지 텍스트의 몇 페이지에서 이러저러한 장소(locus)가 발견되는가를 적고 있을 뿐이었다. 즉 장소(locus)와 그것에 대응하는 페이지수를 ‘장소의 지시(index locorum)’에 열거했던 것이다. 장소(loci)는 본시 정신 속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여러 관념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막연히 그려져 있었다. 인쇄된 책 속에서 이 막연한 심적인 ‘장소’가 완전히 물리적이고도 시각적인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조직되어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⁷²⁾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자전에 포함된 자음색인은 한자가 가진 청각적 문화와 시각적 문화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순수한 알파벳 형식의 언어를 취하는 여타 국가의 언어와 달리 한글의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혼용된 복합적인 언어 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은 자전에서 자음색인이 가지는 청각적 문화와 시각적 문화의 교차적 요소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자의 청각적 형식과 시각적 의미의 다양한 양상에 근거한 새로운 언어적·문화적 인식의 조직과 형성이야말로, 매체로서 자음색인이 갖는 특징적인 기능이자 뚜렷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劃數를 통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說文解字』와 『字林』, 『玉篇』을 넘어 『龍龕手鑑』과 『五音篇海』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자전의 분류·배열 체계의 변화, 즉 부수 분량의 변동과 음운·음성학적 요소의 추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자가 가진 문화적 내포를 아우르고 문자적 외연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큰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계승하여, 특정한 숫자의 부수로 하여금 이후 자전의 고유한 분류·배열 기준으로 정해지게끔 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존 분류·배열 체계에 ‘획’의 요소를 도입시킨 『字彙』는 이전의 자전에서 볼 수 없었던 분류배열 체계의 매체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휘』는 명나라 신종 萬曆 43년(1615년) 梅膺祚에 의해 편찬된 자전으로

72) 윌터 J 옹 저·이기우 임명진 역, 「인쇄, 공간 그리고 닫혀진 텍스트」,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p.190

33,179자의 표제자를 214개의 부수에 근거하여 분류·배열하였다. 『설문해자』의 540개에서 부수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앞서의 『용감수감』이나 『오음편해』에서 드러나는 양상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楷書의 필획에 근거하여 부수의 수효를 축소했다는 사실은 앞서의 자전들과 『자휘』를 구분 짓게 만드는 분명한 차별적 지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부수가 그 소속자와 자의 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과 달리 공통 부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형상의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자의상의 연관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귀납의 편리성을 위하여 부수를 통합한 경우도 나타났다...(중략)...이러한 귀납 유형은 부수를 기호로 인식하여 부수와 자의의 유기적인 관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부수체계의 개혁과 재정립에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⁷³⁾

인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서의 필획에 의거하여 기존의 부수를 214개로 축소하고, 획수에 의거하여 부수자와 각 부에 포함된 글자들을 배열한 『자휘』의 형식은, 당시의 부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재정립한 것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자전에서 볼 수 있는 글자 분류·배열 체계의 효시가 된다 할 수 있다.⁷⁴⁾ 이러한 획순 또는 획수에 근거한 글자 검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글자와 관련된 표의적 혹은 표음적 측면의 지식이나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암기 요소 없이 간편하게 글자를 찾게끔 해주었다. 『자휘』 이전까지의 부수 및 음성·음운학적 분류·배열 형식이 기존의 정보를 정리해놓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끔 하는 수준에 머무른 단계였다면, 필획의 요소가 추가된 『자휘』 이후의 분류·배열 형식은 글자 정보에 대한 단순한 ‘참고’를 넘어 이용자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글자를 ‘검색’하게끔 만든 획기적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언어적·학술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지식인들의 연구 부산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문화적 풍토

73) 김영경, 「字彙 부수 소고」, 『중국문학연구』제45집, 한국중문학회, 2011. p.427

74) 1997년 『사고전서』 CD롬이 출간되면서 그 안에 수록된 明代 학자 都俞의 『類纂古文字考』가 글자를 분류·배열함에 있어서 최초로 ‘필획배열법’을 활용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類纂古文字考』는 명나라 신종 만력24년(1596년)에 편찬되었는데, 이는 해당저술이 『자휘』보다 19년이나 빨리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類纂古文字考』의 존재가, 당시 사회에 통용됨으로써 이후 편찬된 여러 자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이를 통해 중국 자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자휘』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비록 사실 항을 조목조목 따진 엄밀한 차원에서 거론할 경우 ‘필획배열법의 효시’라는 호칭을 『자휘』에 갖다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중국 자전 역사의 상징적 차원에서 볼 경우 『자휘』는 분명 ‘필획배열법의 효시’로 불리어질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類纂古文字考』의 필획배열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앞의 논문 p.443~444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의 변화를 반영한 전사회적 차원의 新조류 가운데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필획법(筆劃法)의 완성을 이룩했던 『자휘』는 명 왕조가 쇠퇴하고서 만주족의 청 왕조가 바야흐로 성립하려고 한 시기의 산물이었다. 부수를 삭감하였던 것이나 한자의 배열을 다시 시도한 일 등도, 이렇듯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적인 교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케 되었다.⁷⁵⁾

기존의 사전에서 글자를 분류·배열함에 있어, 필순이나 필획과 같은 요소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음편해』의 경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글자의 旁 부분의 획수가 적은 경우부터 많은 경우의 순서로, 각 部 안에 수록된 한자를 배열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⁷⁶⁾ 그러나 이는 거칠게나마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러한 방식이 하나의 전일한 체계로 전 글자에 적용될 정도로 철저한 기준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자휘』의 그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필순이나 필획이 『자휘』에서 가장 기초적인 글자의 분류·배열·검색 기준으로 자리하게 된 데에는 당대 통용되던 楷書體의 기호적 특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예서의 등장 이후 한자의 表音筆迹은 완전히 ‘筆劃’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형의 ‘단순화’·‘필획화’·‘네모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러한 예서의 특징들은 후대 규범 자형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楷書體로 이어지게 된다. 해서체의 출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개 예서 이후 漢·魏間 行書의 기초위에서 楷書가 형성되었고, 秦代의 小篆·漢代의 隸書와 같이 해서가 당대의 규범자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南北朝 시기였으며, 隋代를 거쳐 唐代에 이르면 완전히 통용서체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정설이다.⁷⁷⁾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소전에서 예서를 거치고 다시 해서가 보편적 자형으로 통용되면서, 한자는 초기 상형문자가 풍기던 미토그램(mythogramme)적 요소를 완전히 벗어나 劃과 偏旁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추상적 의미의 기호로 자리 잡는다.⁷⁸⁾

75) 오시마 쇼지 저·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2003. p.172

76) 앞의 책, p.166

77) 박추현, 「한자 해서체 자형에 나타나는 자소의 변이형태 小考」, 『남명학연구』제29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p.437

기존 한자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변해왔던 자형이 고정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치며 필획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형성되자, 비로소 필순과 필획이 글자를 분류·배열하고 검색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 南北朝代였으며 보편문자로서의 특징을 갖추게 된 것이 隋·唐代였음을 고려할 때, 16~17세기 明·清代에 이르러서야 해서의 필순이나 필획의 요소가 사전에서 글자를 분류·배열·검색하는 공식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특정 문자가 典型이 되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다단함을 유추하게끔 만든다.

『자휘』에서 나타나는 필획 숫자에 근거한 글자 분류·배열·검색 방식은 오늘날 사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모르는 글자를 보고 해당 글자를 따라 써내려가며 총획이 몇 개인지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찾아나가는 방식은 부수를 통해 검색하는 것이나 자음색인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좀 더 번거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자형을 가진 한자의 경우 총획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총획수를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당 총획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글자들 가운데서 원하는 글자를 찾아내는 과정은 커다란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검색 방법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별개로, 총획수를 통한 한자 검색 방식은 찾고자 하는 글자를 직접 써보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글자가 가진 존재론적 매개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찾고자 하는 한자의 총획수를 인지하는 과정은 곧 그 한자를 직접 써보

78) 초기 한자가 가지고 있던 상형문자로서의 특징이 劃과 偏旁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추상적 의미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초창기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신화 문자(mytho-gramme)의 다차원성이 직선화(linéarisation)에 의해 억압받고 소멸된다는 데리다의 언급과 유사한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르루아구랑(A. Leroi-Gourhan)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자의 역사에서 직선적 문자언어와 비직선적 문자언어의 간극을 고찰하는 가운데 신화 문자(mytho-gramme)에 대해 언급한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 시간 개념, 세계와 언어의 모든 조직 등이 서로 연대적임을 보았다. 의미에서 문자는 (특히 표음 문자는) 비직선적 문자의 과거에 뿌리박고 있다. 그 과거를 극복해야 했고, 이를테면 여기서는 그것을 기술적(technique)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공은, 위험하고 초조한 세계에서, 자본 축적의 보다 큰 안전성과 가능성들을 보증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늘 있어 왔고, 직선화에 저항했던 모든 것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무엇보다 르루아구랑이 ‘신화 문자(mytho-gramme)’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억압이며 상징을 다차원성에서 기록하고 판독하는 문자에 대한 억압이다. 그 같은 다차원의 문자에서 의미는 계속성에, 논리적 시간의 질서에, 또는 소리의 비가역적 시간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역사를 동시성에서 마비시키지 않으며, 역사적 경험의 또 다른 층위에 해당된다...(중략)...르루아구랑은, 특히 표의 문자와 회화 문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른바 시각 문자의 ‘사실주의’에 대한 편견 이상의 것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신화 문자에서 직선적 문자가 그 회로의 차단을 표시하는 모든 것, 즉 기술(특히 시각 문자 기술), 예술, 종교, 경제의 통일성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통일성과, 통일성의 또 다른 구조에 다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선적 문자로 점철된 4000년 동안의 시간’의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데리다 저·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3. p.243~244

는 행위의 양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여 파악한 한자의 총획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서 확인하는 행위는, 해당 한자가 가진 일반적 정보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한자를 직접 써본 경험이 교차하는 차원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를 직접 쓰면서 해당 한자의 정보를 찾는 행위는, 매체적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口述性에서나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단독적 경험이 識字性의 일반적 총위와 교묘하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스스로의 손으로 모르는 한자를 베껴 쓰는 행위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경험에 있어서는, 뜻을 모르지만 음을 아는 한자를 입으로 되뇌는 행위에 대응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약속으로서의 보편성 즉, 識字性에 도달하고자 하는 개인의 단독적 행위로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총획수를 통한 사전의 한자 검색 방식 이면에는 한자를 직접 쓰는 행위가 그 매체적 특성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글자를 쓰는 행위에서 발현되는 한자의 매개적 성격과 쓰기 주체의 존재론적 양태는 이미 동양의 서예 전통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서예의 필법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의 획’ 또는 ‘붓글 쓰는 행위’가 갖는 매체성에 대해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서예의 발생과 발전은, 한자 演變을 촉진하였다. 서예에서 요구하는 結構美와 用筆美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정형화된 한자표준자체의 結構美感を 크게 증강시켰다. 거꾸로 서예가 한자 발전에 끼친 작용도 소홀히 볼 수가 없다. 만약 한자 형체 및 그 변화(隸變, 訛變, 繁化와 簡化)를 연구하면서 서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⁷⁹⁾

위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서예의 필법과 한자의 형체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 관련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한자 필법에 근거하였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永字筆法’이다. ‘영자필법’은 붓으로 한자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구성되는 기본적 요소로 점, 가로 획, 세로 획, 왼쪽으로 삐침, 오른쪽으로 삐침, 꺾음의 여섯 종류 필법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글자쓰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개 붓글씨를 처음 배울 때 이 방법으로 쓰기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여섯 종류 필법이 실제 한자 획을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한자의 획을 정의하는 異說은 다양하며 실제 이에 대한 정설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다. 여기서 중요

79) 진영용·허권수, 「동아세아 문화와 한자」, 『남명학연구』제8집, 남명학회, 1998. p.5

한 것은, ‘永字筆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예의 필법과 한자의 형태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단위가 ‘劃’이라는 사실이다.

한자의 글자들은 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획으로부터 시작하여 가획이 됨으로써 무한한 변용과 창조가 가능하다. 기본 획들은 한정된 수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획들의 조합은 놀라운 조합 능력과 변이형을 생성한다. 5만자가 넘는 한자의 글자들의 집합은 모두 하나의 조합체계이거나 단순 획들로부터 변형된 기호학적 체계로서, 이것은 마치 자연 언어의 2중 분절 원리와 흡사하다. 물론 한자의 이 같은 기호학적 변용의 원리는 『주역』에서 이미 소상하게 밝혀놓았다.⁸⁰⁾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하나의 기호로서 한자가 가지는 다양한 변용 가능성은 가장 기초적 구성 성분이라 할 수 있는 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한자의 획이 하나의 기호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결과적 양태는, 수많은 획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한자의 다양한 공간적 층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지만 그러한 한자 획의 기호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주역』이 있다는 사실은, 한자의 획을 언급함에 있어서 『주역』이 강조하는 획의 원초적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든다.

중국 문화에서 ‘형’과 ‘상’은 서로 구별된다. 『주역』에서는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在天成象, 在地成形)”라고 했다. ‘형’은 사물의 실질적인 지점을 중시하고, ‘상’은 사물의 비실체적인 곳을 중시한다. ‘형’은 한 번 봐서 곧 알 수 있는 것으로 굳이 맛을 볼 필요가 없다. 반면에 ‘상’은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적시하기는 쉽지 않다.⁸¹⁾

위 인용문은 중국의 미학자인 장파 교수의 서술이다. 장파 교수는 『주역』에서 이분화된 개념인 ‘象’과 ‘形’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주체의 미적 층위를 ‘살펴보기’와 ‘맛보기’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살펴볼 대상이 ‘形’이고 맛볼 대상은 ‘象’이다. 서양의 경우,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다루는 인식론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形(body)’을 중시하여 그것을 ‘式(form)’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동양의 경우 실체의 ‘式’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가시적인 ‘象’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살펴보기’보다는 ‘맛보기’ 맥락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장파

80) 김성도, 「정신의 기하학과 조형의 생명력-서예의 기호 현상학적 시론」, 『영상문화』제22호, 한국 영상문화학회, 2013. p.16

81) 장파 저·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푸른숲, 2012. p.315

교수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표어로, 南朝 宋나라 때의 화가인 宗炳의 ‘澄懷味象’ 개념을 강조한다. 풀이하자면, ‘마음을 맑게 하여 상을 맛보는 것이 곧 도에 통하는 길’임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形과 式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요소들이기에 굳이 맞붙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였을 때 『주역』에서 드러나는 획의 원초적 상징, 즉 획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6효의 다양한 조합 이면에 함의되어 있는 象의 층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형’보다는 ‘상’을 중시한 『주역』의 우주론적 맥락과 그러한 우주론적 함의를 담아내기 위해 획의 형태로 기호화한 64괘, 그러한 구체적 기호를 통해 다시 재생산되는 ‘象>形’의 우주론적 담론은 동양 전통의 형이상학을 구성한 특별한 기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요소가 하나의 상징적 기호로 볼 수 있는 획 [爻]의 조합 형태로 이루어진 卦의 도상적 체계는, 후대 획이 가진 분절적·조합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글자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적용된 隸·楷書 이후 한자의 구조적 층위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단순한 ‘형’의 차원을 넘어 이면에 ‘상’을 품고 있는 특별한 기호로 과거 인식되었듯이, 글자 또한 단순한 ‘형’이 아니라 ‘상’을 품고 있는 상징적 기호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지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예에서 획을 긋는 행위를 중요시하고 개별 획을 연결해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필법으로 전형화하여 그것을 보편화한 맥락은, 분명 의사소통 기호로서 한자가 가져야 할 ‘편의’의 기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형’을 살피기를 넘어서서 ‘상’을 맛보고자 하는 동양 전통 우주론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⁸²⁾

일획은 글씨나 그림이 있기 이전의 근본에 해당된다. 글씨와 그림은 일획이 생겨난 뒤에 전개되는, 자연의 지속과 변화에 해당한다. 차후 지속됨과 변화함만을 알고, 근본에 해당하는 일획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손 된 도리로 그 선조의 계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옛날과 오늘의 영원성을 알면서 그러한 자연의 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한 자연에 의해 창조된 대상 이면서 자연이 품부해준 천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⁸³⁾

82)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서예 속에서는 쓰는 이의 정서적 감수성과 정신 상태가 오롯이 새겨졌다. 힘과 부드러움, 비약과 평정심, 긴장과 조화, 빠름과 느림 등의 정서적 양상들이 대비를 이루었다. 서예 예술은 한 자 한 자의 획들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적 리듬과 생명의 몸짓들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를 경주한다. 따라서 서구의 미메시스 재현 원리와 달리 동아시아의 서예에서는 외부 세계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관심은 싹틀 여지가 별로 없었으며, 창조자의 정신성과 조형의 생명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떠맡았다.” -김성도, 『정신의 기하학과 조형의 생명력-서예의 기호 현상학적 시론』, 『영상문화』제22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p.18

위 인용문은 중국 전통 畫論에서 걸작으로 손꼽히는 淸初의 화가 石濤의 『苦瓜和尚畫語錄』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해당 내용에서 드러나는 획의 상징성은 곧, 앞서 강조했던 ‘象’의 우주론적 함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가시적인 형태로 구체화되는 자연의 지속과 변화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형태 이전에 ‘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근본을 접하고 맛보는 본질적 기호로서 획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석도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 玉洞 李滉 또한 획이 가진 ‘상’으로서의 상징적 맥락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그는 한자를 쓰에 있어서 가로획과 세로획 그리고 빗겨 쓴 획을 그을 때 왜 가로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굿고, 세로획은 왜 위에서 아래로 굿고, 빗겨 쓴 획은 위 아래로 쓰는 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를 밝혔다.⁸⁴⁾

가로획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은 것이고, 세로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땅의 이치를 본받은 것이며, 빗겨 쓴 획이 혹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은 물과 불을 본받은 것이다. 가로획과 세로획은 正畫이고, 빗겨 쓴 획은 間畫이다. 가로획은 經이고 세로획은 緯이다.⁸⁵⁾

위의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한자를 쓸 때 획을 굿는 방향 및 순서를 정형화 해놓은 것은 쓰기에 있어서의 기능적 효율만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령, 가로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굿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을 고려하였을 때, 글씨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팔 동작의 균형감을 위해 안배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하늘의 운행을 본받은 것[象天行]’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러한 필법은 글씨를 쓸 때의 기능적 차원의 안배 그 이상의 의미가 녹아있는, ‘象을 맛보는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여지가 강한 행위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근대 이전 붓글이 보편화되어있던 전통 사회의 경우, 획을 하나하나 그어 나감에 있어서 그것에 부여된 의미가 기능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개별 획이

83) “一畫者，字畫先有之根本也；字畫者，一畫後天之經權也。能知經權而忘一畫之本者，是由子孫而失其宗支也；能知古今不泯而忘其功之不在人者，亦由百物而失其天之授也。” 一釋道濟 撰，「兼字章第十七」，『苦瓜和尚畫語錄』。－김용욱, 『石濤畫論』, 통나무, 2004.’ p.177 참조.

84) 이와 관련하여, ‘김응학, 「이서 《필결》에 나타난 서예의 역리적 이해」, 『동양예술논총』제9집, 강암서예학술재단, 2005.’ p.24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85) 李滉, 『弘道先生遺稿』卷12下, 「筆訣」, “橫畫從左而進於右 象天行也 豎畫自上而降於下 象地道也 斜畫或升或降 象水火也 橫豎者正畫也 斜者間畫也 橫畫經也 豎畫緯也”

가지는 상징성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의 개별 획에 부여된 동양전통 사상의 함의는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적 배경이 『자휘』의 필순·필획 수에 근거한 글자 분류·배열·검색 방식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일반 자전에서 검색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한자의 총획수는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단순한 수치 정보가 아니라, 해당 한자가 쓰여짐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획 굵기의 전통적 행위가 존재론적으로 투영된 하나의 문화 기호로 이해할 수 있다. 음과 의미를 모르는 특정한 한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한자의 총획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곧 해당 한자의 개별 획을 하나씩 그어나가는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며, 개별 획을 하나씩 그어나가는 행위 가운데는 해당 한자의 가시적 形을 단순히 ‘살피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한자가 가진 비가시적 象을 ‘맛보는’ 차원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한자의 총획수 색인이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 기호로서의 매체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자를 하나의 글자로서 ‘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려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최근 젊은 층의 한자 이해 경향은 분명 경계해야 할 요소이며, 획에 내포된 다양한 문화·역사적 의미를 교육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한자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여타 분류·배열·검색 방식이 갖는 매체적 의미

자전 검자법의 종류를 세분할 경우, 100여종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⁸⁶⁾ 그 가운데서도 부수·총획·음운에 근거한 통상적인 분류·배열·검색 방식을 제외할 경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검자법이 筆順檢字法과 四角號碼法이다.⁸⁷⁾ 필순검자법과 사각호마법 모두 필획의 형태를 기초로 하여 고안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필순검자법이 필순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차용한 것에 비해 사각호마법의 경우 한자가 가지는 공간적 층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 또한 존재한다.

86) 孫鈞錫, 『中國漢字學史』, 學苑出版社, 1991. p.297~305 참조.

87) 筆順檢字法과 四角號碼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吳小如·莊銘權 編著, 『中國文史工具資料書舉要』, 中華書局, 1985.’ p.31~40 부분 참조.

1) 필순검자법

필순검자법은 그 명칭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筆順에 근거한 검색방법을 취한다. 필순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단순히 필획의 순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획의 형태에 기초한 필획의 순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한자가 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는 한자를 구성하는 필획의 형태와 개별 획 형태가 결합되는 순서를 동시에 이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필순검자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획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능하다.

첫 번째, 가로획[一].

두 번째, 세로획[丨].

세 번째, 왼쪽으로 빠침[ノ].

네 번째, 오른쪽으로 빠침[ㄴ] 또는 점[丶].

다섯 번째, 꺾음[㇇].

찾고자 하는 한자의 필획 중에서 필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필획의 형태를 위의 다섯 가지 필획 가운데서 선택하여 이를 두 개씩 결합한 뒤, 각 결합의 양상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획순이 복잡하지 않거나 획수가 적은 글자들의 경우 그러한 기본 획의 결합양상을 찾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획수가 많고 획순의 결합 양상이 복잡한 글자의 경우 다소 그러한 접근이 가지는 불편함이 분명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필순검자법은 대개, 기본 획의 결합양상을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한자의 총획수에 근거하여 글자를 배열하는 방식을 전제로 삼는다. 찾고자 하는 한자의 총획수가 몇 자인지 인지한 뒤 해당 총획수의 글자들 가운데서 다시 5가지 기본 획이 2개씩 짝지어 순서대로 결합되는 변별적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인 글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필순검자법에 근거하여 ‘가운데 중(中)’자를 찾을 경우 우선 中자의 총획이 4획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필순을 살펴야하는데, 필순은 순서대로 볼 경우 세로획[丨], 꺾음[㇇], 가로획[一], 세로획[丨]의 차례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총획수가 4인 여러 한자 가운데서 세로획[丨]·꺾음[㇇], 가로획[一]·세로획[丨]의 결합양상을 가지는 글자를 찾을 경우 中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한국 자전들은 부수·총획·자음에 근거한 검색방법만을 채택하고 있기 때

문에, 이 검색방법을 실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중국과 일본 자전의 경우도 필순검자법이 다른 검색법의 보조 검색 수단으로 활용되는 선에서 극소수 채택될 뿐이지, 이를 주요검색법으로 적용한 자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순검자법이 현재 자전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타 검색 방법에 비해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찾으려는 한자의 정확한 필순을 검색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자나 한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개별 한자의 필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필순검자법은 분명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검자 방법이지만, 필순에 근거한 검색방식은 그 나름대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예컨대 필순검자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다섯 가지 유형의 획은, 한자를 하나의 기호로 인식할 경우 해당 기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가령, 가로획[一]과 세로획[丨]은 각기 그 나름의, 왼쪽으로 삐침[丿]과 오른쪽으로 삐침[㇇] 그리고 점[丶]은 또 그것들 나름의, 마찬가지로 꺾음[㇇] 또한 그것 나름의 도상적·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도상적 이질성에 근거한 개별 획의 전통적 상징성은 앞서의 장에서 이미 이서의 「필결」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⁸⁸⁾ 각각의 기본 획이 가지는 상징이 그것을 긋는 시간적 선후에 따라 짝지어 배치되고 이러한 상징들이 공간적 차원에서 조합되는 양식이야말로 필순검자법이 매체로서 가지는 기능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검색 주체가 한자를 찾고 이해하는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앞서 하나의 문화기호로서 이해되었던 총획수 색인과 그 내포 맥락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총획수 색인의 경우 개별 획의 조합을 수량화함으로써 글자를 구성하는 기본적 기호로서의 획의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필순검자법은 낱글자의 총획수를 전제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필획의 유형을 분화하여 글자 검색에 적용함으로써 개별 획의 구체적 형태 및 조합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상징을 더욱 더 섬세화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필순검자법이 자전에서 보편적 검색법으로 활용될 경우 다섯 가지 기본 획이 기호로서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한자가 가진 도상적 상징성 또한 더욱 미분화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서적 형태 자전의 경우, 시간적 선후에 근거하여 개별 획을 조합하는 형태의 검색법을 온전한 색인으로 담아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매우 복잡한 획의 조합을 가진 한자의 경우, 필순검자법에 근거했을 때 그 색인의 형태 또한 복잡할뿐더러 그것을

88) 85번 주 참고.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순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검색 단위를 나열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고안된 검색방법이 사각호마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각호마법

사각호마법은 중국의 王雲五⁸⁹⁾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에 의해 최초로 사각호마법이 적용된 서적인 『王雲五大辭典』이 1930년에 출판되었는데, 이의 영향을 받아 1930년도에 간행된 『中國古今地名大辭典』도 필획순 검자법을 적용하면서 책 끝부분에 四角號碼索引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후 사각호마법이 검자방법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적용한 자전들이 다수 출간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1964년 商務印書館에서 간행한 『辭源』을 들 수 있다. 해당 서적은 기본적으로 부수 배열 색인을 채택하였는데, 뒷부분에 사각호마색인을 첨부하고 있다.

사각호마법은 四角號碼排檢法 또는 四角號碼檢字法이라고도 하는데, 四角이란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한자의 외형적 특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號碼란 번호나 숫자 또는 특정 물건의 치수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한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필획의 형태를 10개 범주의 글자로 형상화하여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각기 부여하였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글자의 左上·右上·左下·右下 4개의 모서리 즉 사각에 따라 호마를 취하여 이 순서대로 4단위의 수를 만들어 이를 색인화한 것을 사각호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10개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번호	0	1	2	3	4	5	6	7	8	9
필획명칭	頭	橫	垂	點	叉	插	方	角	八	小

頭자는 점[丶] 아래에 가로로 그은 한 일(一)자의 필획 즉 돼지해머리 부수의 형태를 가리킨다. 橫자는 한 일(一)자와 같이 가로로 긋는 필획을 가리키며, 垂자는 뚝

89) 王雲五(1887~1979) : 廣東省 香山 출생. 1920년 商務印書館의 편집장이 되어 『叢書集成』, 『萬有文庫』 등을 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편집장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또한, '四角號碼檢字法'을 발명하여 『王雲五大辭典』, 『中國圖書統一分類法』을 출판하는 등 중국문자의 검색법, 도서분류법에 크게 공헌하였다.

을 곤(丨)자와 같이 밑으로 내리 긋는 필획을 의미한다. 點자는 점[丶]이나 오른쪽으로 빠친 획[㇇] 또는 왼쪽으로 빠친 획[㇆]을 의미하며 叉자는 교차하는 형태의 필획을, 插자는 여러 획을 꿰뚫는 모양의 필획을 가리킨다. 方자와 角자는 글자의 뜻 그대로 각기 네모난 형태와 각진 필획을 나타내고, 八자와 小자는 글자 형태처럼 각기 양 갈래로 뻗어나간 필획과 중앙 획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빠친 획을 가리킨다.

예컨대 이를 바탕으로 矩자의 번호를 찾아볼 경우 다음과 같다. 해당 글자의 上部는 좌측과 우측에 근거할 때 각기 그 필획이 다르다. 좌측 상부의 필획은 양 갈래로 뻗어나간 八자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숫자 8에 해당한다. 우측 상부의 경우 한 일(一)자 형태의 가로로 긋는 필획이다. 이는 숫자 1에 해당한다. 下部 또한 상부와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필획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좌측 하부의 경우 叉자와 같이 교차하는 형태의 필획에 가까우며, 우측 하부의 경우 우측 상부와 마찬가지로 한 일(一)자 형태의 가로로 긋는 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숫자는 각기 4와 1이다. 사각호마법에 근거할 때, 矩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8141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각호마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검색이 편리하다는 데 있다. 찾고자 하는 한자의 부수를 인지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음 또한 몰라도 될 뿐더러 글자를 써 가며 획수를 정확히 헤아리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하다. 앞서의 필순검자법과 같이 기본 획들의 필순에 따른 조합 양상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네 공간의 외형적 조합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글자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히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대단히 혁신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이 방법을 즉각 활용하기 위해서는 10개의 필획 형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개별 글자의 부수라든지 음을 기억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담이 될 부분은 아니다. 다만 10개의 필획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글자를 찾는 데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찾고자 하는 한자의 네 모서리 위치와 모양이 애매한 경우 어떤 필획 형태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자가 가진 다양한 공간적 외형을 모두, 四角 개념에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획 또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에 10가지 기준 필획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신속한 검색은 매우 어렵거니와 검색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로, 같은 번호의 한자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4422'의 사각호마에 해당하는 한자

는 대략 120개나 된다.⁹⁰⁾ 물론 이와 같이 4자리 번호가 중복되는 한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附角이란 이름으로 맨 끝 바로 위의 한 筆形에 대한 숫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다섯 번째 번호를 매기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한자의 경우 모서리[角]가 명확하지 못하여 그에 근거한 숫자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며, 이외에 동자이호(同字異號: 글자는 같으나 번호가 다름)를 취하는 異體字의 경우 해당 한자 뒤에 본체자와 그 번호를 표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검색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매우 둔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검색기능의 본질을 벗어나는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단점들을 종합해보면, 사각호마법이 왜 기존 자전에서 주요검색법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타 검색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각호마법이 검자방법으로서 드러내는 뚜렷한 단점과 별개로, 공간을 단위화하여 낱글자를 분화하고 나누어진 개별 공간에 계량화된 의미를 부여하여 한자를 새롭게 재정의한 시도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존의 부수나 획 그리고 음운을 통해 한자를 검색하던 전통적 방식이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한자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에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것이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예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자의 의미가 구성됨에 있어서 공간적 층위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크다 할 수 있는데, 한자 구성의 공간적 층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별 획의 조합 양상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특징이다. 가령, 交자와 宀자를 비교할 경우 상부는 동일하게 돼지해머리 부수를 갖지만 하부는 父자와 几자가 각기 가시화하는 획의 양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交자와 宀자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적 특징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개별 획이 가진 이질적 모양에 근거하여 글자를 구분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필순검자법과 사각호마법의 경우 이러한 공간적 특징에 주목하여 나온 검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별 획이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특성과는 관련 없이 편방과 같은 물리적 위치가 가지는 공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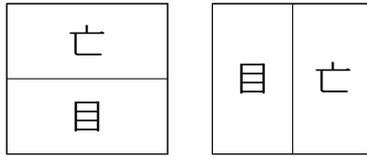
결합된 편방들은 원칙적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 그 위치를 바꾸면 안된다. 그러나 ‘群(군)’과 같은 글자는 좌우의 편방을 상하의 형태로 바꾸어 ‘羣’으로 쓰기도

90)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서비스하는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자자형전거(<http://yoksa.aks.ac.kr>)’에서 사각호마법을 통해 4422에 해당하는 한자를 검색할 경우 112개의 항목이,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유니코드한자검색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에서 사각호마법을 활용하여 4422에 해당하는 한자를 검색할 시 대략 120개의 항목이 출력된다.

하는데, 이 글자는 서로 같은 편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로 취급한다. 위와는 달리 한자 중에는 같은 편방을 사용하여 결합하면서도 결합된 위치를 달리 하면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는 예도 종종 있다. 예컨대 ‘吟(음)’은 ‘읠조린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같은 편방을 위아래로 결합한 ‘唵(함)’은 ‘머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⁹¹⁾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唵과 吟의 경우 유사한 획으로 구성된 한자들이지만 그 유사한 획이 배치된 물리적 위치가 각기 다르다는 측면에서 각 한자의 공간적 특징이 이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배치의 이질성이 한자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고대 갑골·금문에서 비롯되어 중세기 해서체로 정형화됨에 이르기까지 한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공간적 분화를 겪어왔고 이 가운데 의미 또한 여러 맥락으로 전이를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가령, 亡자와 目자가 세로로 조합된 盲자의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즉 장님의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亡자가 ‘잃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고 目자가 ‘눈’을 의미하므로, 두 글자를 조합하였을 때 ‘눈 또는 시각을 잃음’ 정도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하게 亡자와 目자를 조합한 眈자의 경우 盲의 俗字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라보다’ 또는 ‘우러러보다’와 같은 의미 또한 가진다. 盲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때 ‘보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는 眈자는 다소 모순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眈자는 盲의 속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望자와 통하는 글자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眈자에 속한 亡자가 곧 望자와의 도상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字學에 근거한 개별 한자의 설명이 어느 정도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얼마나 탄탄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글자마다 연구의 정도가 다르고 異說이 많은 경우가 흔하기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편방의 물리적 위치가 해당 한자의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의 예시와 같이 서로 다른 편방 위치를 가시화하여 부각시켜주는 방법은 두 글자가 지닌 의미를 차별화하고,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해당 글자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91) 이규갑, 『한자가 궁금하다』, 학민사, 2000. p.138



기존 서적 형태 자전의 경우 이러한 검색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였지만, 각종 인터페이스와 DB 기술 활용이 가능한 web 상에서는 한자를 이루는 공간적 정보를 가시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글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부수나 음운 그리고 총획을 통해 정의 되어온 한자의 스펙트럼에 새로운 파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 현재 웹상에서 자전 검색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Naver와 Daum의 경우 ‘모양자’ 또는 ‘요소’ 검색이라는 표제어를 바탕으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공간적 층위의 한자검색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한자검색기 또한 ‘결구’ 검색이라는 명칭을 통해 한자의 공간적 구성에 근거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색방법들은 상용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이기에 검색방법에 있어 다소 불완전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해당 검색방법의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기초로 하여 향후 더 나은 공간적 층위의 검색방법이 출시될 것임을 예상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Ⅲ. 웹 字典에 적용되는 분류·배열·검색 방식에 대한 고찰

기존 서적 형태의 전통적 사전과 달리, 현재 인터넷 상에 구현되어 있는 여러 사전 서비스의 경우 한자의 분류·배열·검색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mode)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type)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형태(mode)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현재 여러 웹 사전 서비스에 적용된 분류·배열·검색 방식을 類型化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존 서적 형태의 사전이 글자를 분류·배열·검색함에 있어서 부수·획수·자음과 같은 요소들을 일반적 유형(type)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현재 인터넷 상에 구현된 사전 서비스들의 경우 그러한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컴퓨터의 특징적인 인터페이스 환경이나 DB, 인터넷 기술의 이점을 고려하여 다소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쉬운 분류·배열·검색 형태(mode)를 구현하고 있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기존 서적 형태의 사전이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분류·배열·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환경이나 DB 기술을 활용한 좀 더 기능적인 분류·배열·검색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그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종이 면에서 모니터로, 붓이나 손가락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대체되는 상황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도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방식과 의식이 작용하는 메커니즘 또한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취하기 때문이다.⁹²⁾ 이와 관련하여, 기술 변동에 따른 생활환경의 물리적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인지체계 및 의식 작용의 양태 변화는 이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나 여러 매체 이론과 같은 현대의 다양한 학제 간 연구들에 의해 그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뚜렷하게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존 서적 형태의 사전이 취하는 분류·배열·검색 방식으로부터 인터넷 상에 구현된 여러 사전 서비스의 분류·배열·검색 방식에서의 전환 맥락은 충분히 해부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현대 한국에서 識字性(Literacy)과 口述性(Orality)의 교집합적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漢字의 매체적 특징을 고려하였

92)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전기 미디어는 육체 근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관련된 감각과 인지의 영역에서 확장과 왜곡과 축소를 가져왔다. 그것은 중추신경의 확장 일수도 있지만 중추신경의 왜곡일수도 있다. 확장 자체가 왜곡과 과장을 가져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감각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육체와 미디어를 분리시키는 대신에 정신과 미디어를 결합시켜 새로운 ‘인간-도구’의 결합을 만든다.” -백옥인, 『탈경계 화』, 『탈경계 인문학』3권1호 제5집,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0. p.193

을 때, 그것을 구체적인 정보로 다루는 웹 자전의 경우 더욱 뚜렷한 매체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인용은 주의할만한 시사점을 던진다 할 수 있다.

곧 초기 투자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드는가라는 문제에서 보자면 디지털 자전은 쉽고 빠르지만 효과가 확대되는데 제한적이며, 서적 형태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전 검색법은 배우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 효과와 활용도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가진다. 물론 디지털 자전에서도 이런 부수법이나 총획 색인법, 오픈 검색법 등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미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검색법을 모든 단계의 학습자에게 개방한다고 하였을 때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검색을 시도함으로써 전통적인 서적자전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학습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디지털 자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서 검색법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한자 자전의 학습의 여러 목표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⁹³⁾

올바른 학습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다소 역설적으로 다가오지만, 해당 ‘검색법’이 신기술에 근거한 뉴미디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논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자’는 구 매체이며 그러한 구 매체로서의 한자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구 매체적 검색법은 한자가 가지는 본질적 성격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론적 함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즉, 앞의 장에서 짚어보았던 부수·획수·자음에 근거한 한자 분류·배열·검색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기술에 근거한 분류·배열·검색 방식의 도입은, 곧 한자 학습에 따르는 전통 방식의 매체적 인지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용자 입장에서 ‘한자’라는 전통 문자를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웹 자전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Hypertext의 구조’와 ‘자전 구현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기술 및 Interface’ 두 가지 항목에 근거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 웹 자전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그 특징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포괄하여 정의할 수 있는 두 가

93) 허철, 「기획논문: 주제: 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한문 학습 디지털 자전의 효용성과 DB설계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일견」, 『한문교육연구』제41집, 한문교육학회, 2013. p.227

지 키워드에 근거하여 웹 자전이 갖는 매체적 함의의 일반성을 간단히 조명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웹 자전의 경우, 그 전문성과 대중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들을 표본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구 분	명 칭	관 리 기 관	도메인 이름	
일반사전	Naver 한자사전	Naver Corp.	http://hanja.naver.com	
	Daum 한자사전	Daum Communications.	http://dic.daum.net/index.do?dic=hanja	
	e.hanja	(주)오픈마인드 인포테인먼트	http://www.e-hanja.com	
	존 한자사전	Zonmal.com	http://www.zonmal.com	
	電子字典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	http://www.toegye.ne.kr/dic/dic_first.asp	
특성화 사전	이체자	고려대장경연구소 한자사전	고려대장경연구소	http://kb.sutra.re.kr/ritk/etc/chinese/chineseBitSearch.do
		이체자정보검색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DCH/index.jsp
	코드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
		유니코드 한자검색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riks.korea.ac.kr/ccrc/?pg=P_a45dbc73a7
	고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자자형전거 ⁹⁴⁾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94) 과거 근대기 국문 사전인 『신사전』과 『사전석요』 등의 내용을 전자화하여 제공하는 특성화 사전.

1. Hypertext의 기본적 특성이 갖는 매체적 의미

하이퍼텍스트 개념⁹⁵⁾과 관련된 기본적 논의는, 해당 개념이 넬슨(Theodor H. Nelson)에 의해 최초로 언급된 이후⁹⁶⁾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⁹⁷⁾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와 같은 여러 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였을 때, 하이퍼텍스트가 갖는 광범위한 외연을 단일한 언어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컴퓨터과학의 영역에서 바라볼 것인가 혹은 인지 과학적 시각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지점에서 총괄적인 방식의 정의를 시도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개념에 대한 기계적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지니고 있는 광범위한 외연을 훼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온 표제어 몇 가지를 선정하여,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분절적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해당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개념과 관련된 일부 표제어를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분절화 하여 연구 대상을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서술 방식을 피하고자 한다. 오히려 하이퍼텍스트 특징이 드러난다고 여겨지는 웹 字典의 다양한 페이지 구성 양식을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요소가 하나의 매체로서 이용자에게 기능하는 측면이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식 흐름의 형태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현재 까지도 하이퍼텍스트 개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개념의 연역적 정의에 근

95) 하이퍼텍스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은, HTML 관련 매뉴얼인 “Beginner’s Guide to HTML”(http://www.beginnersguidetohtml.com/guides/html/introduction/introduction-to-html-and-css)을 참고.

96) 하이퍼텍스트 개념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1945년으로 소급된다. 물론 일부 학자는 하이퍼텍스트의 역사를 5천 년까지 넓게 잡아서 근동 지방에서 출토된 점토와 파피루스 양피지에서조차도 하이퍼텍스트의 맹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1945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은 하이퍼텍스트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최초의 성공적인 전기 디지털 컴퓨터인 ENIAC의 완성이며, 다른 하나는 부쉬(Vanner Bush)가 도입한 기억 확장자 프로젝트인 미멕스(MEMEX)의 도입이다.” -김성도, 『하이퍼텍스트의 글쓰기 공간의 기호학적 함의』,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214

97)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다루어져 온 학제 간 영역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서술을 참조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들은 크게 세 가지 각도로 대별될 수 있다. 1)문학 이론 및 비평적 시각 2)컴퓨터과학적 시각 3)인지과학적 시각. 각각의 유형은 자신만의 방법론, 이론, 기술들을 갖고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는 편의상 나눈 것이며 서로 교차하며 중첩되는 연구들도 가능하다.” -앞의 책. p.212

거하여 연구 대상을 정형화하기보다는 연구 대상에의 귀납적 접근을 통해 역으로 해당 개념의 일반적 정의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시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지니는 광범위한 외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본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관련하여 하이퍼텍스트 개념의 경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해둘 필요 또한 존재한다. 컴퓨터 또는 웹에 접근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맥락의 경험을 모두 묶어서 하이퍼텍스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웹에서 하이퍼텍스트의 물리적 경계를 정의할 때 주로 이용되는 ‘노드(node)-링크(link)-브라우저(browser)’ 구조에 근거하여 구체적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세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상정되는데, 각기 독립적인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험이 곧 하이퍼텍스트의 본질적 특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노드(node)는 인터넷 상에서 접할 수 있는 텍스트 조각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독립적인 ‘텍스트 덩어리’가 바로 노드이다. 링크(link)는 그러한 텍스트 덩어리인 여러 노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개별 노드 내에 부속되어 있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노드로 옮겨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노드와 링크가 하이퍼텍스트의 구체적 구성 요소라면, 브라우저(browser)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클릭 및 드래그를 통한 링크에의 접촉 및 이에 따라 진행되는 모니터 화면 내 브라우저의 가시적 변화는, 곧 여러 텍스트와 이미지들로 얽힌 다양한 노드가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하이퍼텍스트의 전형적 외형을 보여준다.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텍스트의 시간과 공간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세 코덱스에서는 주서(朱書)의 유형과 다양한 글자 크기로 공간 구조를 나타냈다. 인쇄 책에서는 단락으로 나누어진 페이지에서의 배열이 그 역할을 했다. 오늘날 컴퓨터에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창과 이미지들이다. 독자들이 순간순간 이런 구조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공간적인 차원이 창조된다.⁹⁸⁾

하나의 화면에서 열리는 수많은 텍스트 창과 이미지들은 기존 서적의 페이지가 선

98) 제이 데이비드 볼터 저·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151

사하던 물리적 감각과는 이질적인 공간감을 양산해낸다. 손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텍스트 페이지를 접하던 방식의 선형적 독서와 달리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접해야 하는 각 노드와 링크의 유기적 연결고리는 물리적인 서적을 읽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읽기 경험을 선사한다. 책장을 넘기며 인쇄된 페이지를 차례대로 읽어오던 행위로부터 벗어나, 그때그때의 필요와 감각적 자극에 따라 링크를 통해 새로운 노드를 열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 접했던 노드를 닫아버리기도 하며 한참 전에 닫았던 노드를 새롭게 열기도 한다. 노드(node)-링크(link)-브라우저(browser)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기존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던 선형적이면서도 비상호작용적인 성격을 재차 매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이퍼텍스트의 모든 전자적인 형태들—많은 독립 시스템들뿐 아니라 월드와이드 웹들—은 인쇄의 재매개다. 작가들과 디자이너들은 하이퍼텍스트가 이전 매체,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소설, 기술 보고서, 그리고 인문학 에세이 같은 인쇄매체와 연상되는 장르들을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쇄 장르들이 선형적이거나 위계적인 반면 하이퍼텍스트는 다중적, 연상적이다. 인쇄 텍스트가 정적이라면, 하이퍼텍스트는 독자들의 접촉에 반응한다. 독자들은 다양한 독서 경로를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속을 움직일 수 있다. 다중 선형성과 상호작용성이 정말로 하이퍼텍스트를 인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적인 논쟁거리다.⁹⁹⁾

기존 인쇄물이 선형적이고 정적이며 일방적인 것에 비해 하이퍼텍스트는 다중적이고 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이라는 언명은, 마치 하이퍼텍스트가 하나의 테크놀로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인쇄된 서적은 그러한 테크놀로지로서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형식이 인쇄의 재매개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는 양자가 모두 독립적인 테크놀로지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¹⁰⁰⁾ 종이 서적 또한 텍스트를 담기 위한 그 나름의 편집 체제를 가지며 그러한 편집 체제를 통해 각 페이지는 다양한 레이아웃(Layout)을 확보한다. 서적마다 다

99) 앞의 책, p.63

100)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책 문화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테크놀로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일쑤다. 즉 책은 책이라는 것을 도입한 활자만큼이나 인공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텐베르크의 혁명에 맞먹는 문화적 변화와 테크놀로지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활자 책 역시 테크놀로지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자 역시 강력한 테크놀로지이다.” -김성도, 『하이퍼텍스트의 글쓰기 공간의 기호학적 함의』,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230

른 편집 체제와 레이아웃은 각각의 종이 서적에 내포된 테크놀로지로서의 성질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¹⁰¹⁾ 이러한 인쇄물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에 재현하는 작업은 곧 종이 서적이 가진 테크놀로지로서의 성격을 하이퍼텍스트 테크놀로지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킴을 의미한다.

가령, 기존 인쇄물로서의 字典을 살펴볼 경우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대개 部首索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과 끝을 부수색인으로 배치한 것은 사전의 기능을 강조하는 편집 체제이자, 그러한 뚜렷한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동시에 해당 서적이 가진 본질적 성격을 정의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활용되어온 색인 가운데서도 부수색인은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이자 상징으로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전통적 세계관의 테크놀로지가 그대로 사전의 편집 체제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웹 상에 구현된 사전의 시작 페이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존 한자사전의 초기 화면>

위의 존 한자사전 초기화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웹 사전은 복잡다단한 부수 나열의 시작 페이지에서 탈피하여 사각형의 검색 바를 중앙이나 측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작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나 총획 그리고 자음과 같은 종이 사전의 전통적 색인들은 독립적인 링크로 구성하여 화면 한쪽에 배치시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종이로 인쇄된 사전의 텍스트가 웹 상의

10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현대의 인쇄 책들에서는 공간이 간단하고 깔끔하다. 잡지나 신문에서 여전히 볼 수 있듯이 인접한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텍스트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일도 없다. 잡지에서는 텍스트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덩이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덩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광고, 공지, 그리고 길고 짧은 기사들의 혼합 같은 다양한 재료들의 총론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잡지나 신문은 기질 면에서 컴퓨터의 지형학적 글쓰기 공간과 흡사한 편이다. 컴퓨터에서는 “지형학”이 또한 텍스트 자체의 포괄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미지가 있는 텍스트의 좀 더 큰 단위는 컴퓨터 화면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다. 컴퓨터 화면은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텍스트 단위들이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잡지 페이지가 된다.”-제이 데이비드 볼터 저·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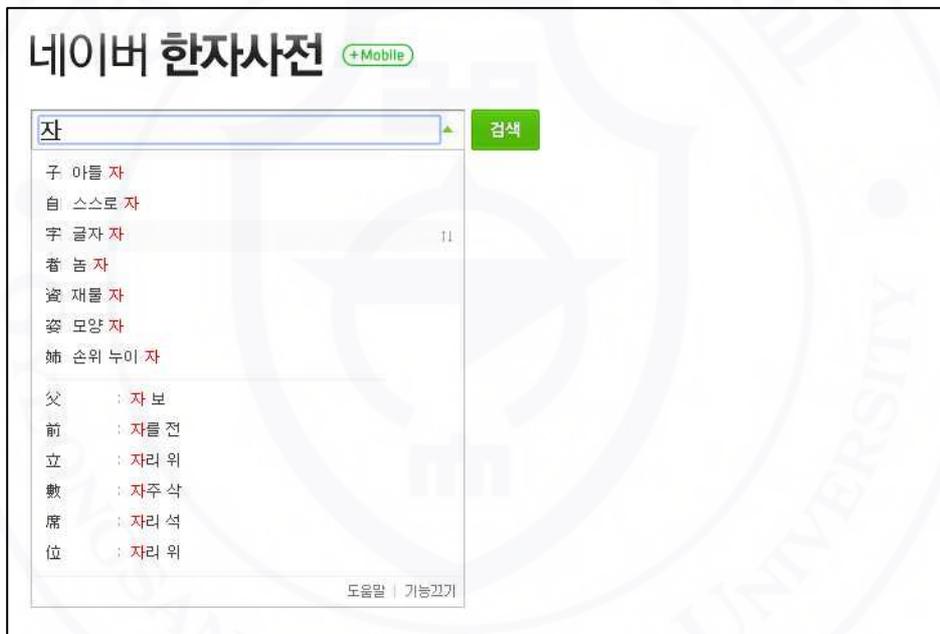
하이퍼텍스트에서 재현됨에 따라 텍스트가 가지는 매체적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형적 특성을 가지는 인쇄물에서 부수, 총획, 자음색인의 물리적 배치는 그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속성을 필연코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음색인이나 총획색인이 아니라 부수색인이 종이 자전의 시작과 끝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형식은 곧 부수가 한자 구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암시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웹 자전에서 링크의 형식으로 평등하게 배치된다는 것은 곧, 세 가지 기본적 색인 사이의 위계가 재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래의 'Daum 웹 자전'과 같이 그러한 전통적 색인들이 시작 페이지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거나 아예 제외되어버리는 형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Daum 웹 자전의 초기 화면>

특별한 색인도 없이 덩그러니 검색 바만 놓여있는 웹 자전의 시작 페이지는, 현대의 하이퍼텍스트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漢字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첫 번째는, 기존 색인의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최신 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검색법을 도입함으로써 한자가 가진 전통적 외연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화면의 검색 바 우측 상단에 위치한 두 검색법, 즉 필기인식 기술은 한자를 쓰는 대상보다는 그리는 대상으로 인지하게끔 유도하며, 요소검색 체계는 기존 부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한자의 공간적 외연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를 낳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한 웹 자전에 적용된 새로운 검색법이 한자 외연에 가져올 변화의 성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정

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웹 자전의 중앙에 자리한 검색 바가 가진 인터페이스의 특성이 한자가 가지는 다양한 언어적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검색 바의 경우 필연적으로 키보드와 존재론적 연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활용하는 키보드에는 한글이 가진 음소문자로서의 특성 즉, 자음과 모음 조합을 적용한 두벌식 자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있다. 이러한 키보드를 평소 활용한다는 것은 곧, 음소문자로서의 언어적 사유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색 바의 경우 키보드를 통해 input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검색매체이다. 한자의 경우,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 자체가 음소문자는 아니기에 두벌식 자판이 적용된 키보드를 사용하여 한자를 검색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인 경로를 낳을 수밖에 없다.



<Naver 웹 자전 검색 바의 자동 완성 화면>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웹 자전의 검색 바를 활용하여 검색을 시도할 경우 위 화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기존 종이 자전의 자음색인 일부를 반영한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 또한 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한 자모가 ㅈ의 일부음으로 반영된 한자들이 나열되는데, 이러한 전체적 모양새는 한자가 가진 음과 훈의 개별적 요소가 한글의 자모를 기준으로 검색 바 내부에서 잡다하게 섞이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하나의 자모를 입력함으로써 음과 훈을 복합

적으로 검색하고 이 가운데 DB와 연계하여 검색어 자동완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기능적 차원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검색 바를 통한 한자 검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타 알파벳 언어와 달리 표의적 특질을 많이 가진 한자 검색에 있어서 검색 바와 같은 표음적 성질이 짙은 매체가 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한글 자모를 기준으로 한자가 가진 음과 훈의 독립적 경계가 열리는 시각적 양상은 마냥 긍정할만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웹 사전에서 검색 바가 중앙에 배치되어 그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유는, DB화된 정보들을 1차적으로 링크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검색 바를 통한 input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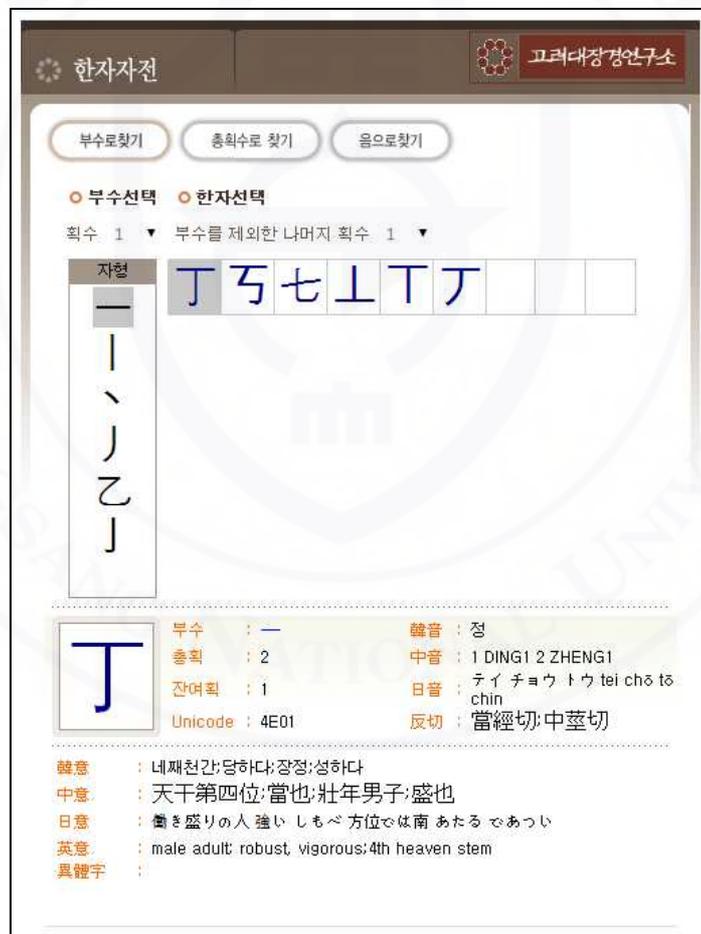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링크는 마우스의 클릭을 통해 접근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근거할 때 링크와 키보드 입력이 어떠한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직접적인 링크의 접속을 고려할 경우 그러한 사유가 가능하지만, 링크의 경우 페이지 화면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사실을 짚어본다면 그러한 의문이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링크적 사유를 즉각적으로 반영할만한 광범위하고 직관적인 링크 스크린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웹 사전이나 사전의 시작 페이지에 검색 바가 위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디자이너들은 두 가지 서로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링크의 목적지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 이용자들을 어떻게 환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행 비유를 사용하자면 첫 번째 문제는 출구나 출발 정보와 관계된 것이며, 두 번째 문제는 도착이나 입구와 관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²⁾

인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검색 바는 검색 여행의 출구를 상징한다. 앞서 <Naver 웹 사전 검색 바의 자동 완성 화면>에서 보았듯이 검색 바에 검색어 입력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링크가 나열된다. 검색어는 링크의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며 검색 바는 그러한 열쇠를 쏘아 목적지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구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검색 행위에 있어서의 출발이자 동시에 출구를 은유하는 것이다.

102) Landow, G.P., 'Hypertext in literary education, criticism, and scholarship' 『Computers and the Humanities』23, 1989. p.188~189. -이 부분의 번역과 관련하여 "제이 데이비드 볼터 저·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57 내용 참조.

이와 같이 하이퍼텍스트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검색 바가 시작 화면에 존재하는 웹 페이지의 물리적 형식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웹에서 구축된 사전 일반 또한 그와 같은 보편적 검색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漢字의 경우 표의문자로서의 특질을 가지기에, 단일 검색 바가 가진 input 체계가 그러한 한자의 표의적 특질을 온전히 반영하여 그것을 인간의 인식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타인지 Naver나 Daum과 같은 대중적 성격이 짙은 포털의 사전 서비스와 달리 고려대장경 연구소의 ‘한자사전’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자사전’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자사전’의 경우, 웹 페이지에서 검색 바를 배치하지 않는 형식의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한자 사전'의 부수색인 화면>

고려대장경 연구소의 한자 자전 부수색인 화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키보드 입력이 가능한 검색 바가 페이지에 구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검색에 있어서 마우스 클릭에 의존해야 한다. 웹 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키보드 입력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이용자의 의식이 표음적 방식에 근거한 input 체계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벗어남을 의미한다. 시야에 들어오는 물리적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여 그것을 지정·클릭하는 행위는 code로서 문자가 가지는 의미적 맥락을 더욱 강화시키며, 이는 표의문자로서 기능하는 한자의 특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마우스 클릭에 의존해야 하는 페이지를 구성하였다는 것은 곧, 클릭을 통해 이동 가능한 링크를 다양하게 배치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하며, 실제 고려대장경 연구소의 한자 자전은 그러한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색인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 자전의 전통색인인 부수와 총획 그리고 자음색인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전통적인 종이 자전이 가지고 있던 분류배열검색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려 한 흔적이 드러난다. 한글자모입력에 근거한 검색 바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타 신기술에 근거한 색인체계의 도입 없이 전통색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측면은 애초 두 요소의 인식론적 연계성을 고려했던 고려하지 않았던, 전통자전의 인터페이스를 계승한 웹 자전의 특징적 면모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한자 자전의 색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한 가지 더 짚어볼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단일 웹 페이지에서 가시화되는 개별 색인 단위의 나열 규모이다. 가령 앞의 예시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수색인을 활용함에 있어서 단일 페이지에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수는 1획에 해당하는 몇 가지 것들뿐이다. 이는 기존 종이 자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용자로 하여금 매우 큰 경험적 차이를 야기하는 요소이다. 종이 자전의 부수색인 페이지는 특정 획수에 해당하는 일부 부수들만 국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214개의 모든 부수를 단일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배치한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종이 자전이 가지는 부수색인을 검색매체로 경험할 경우, 단일 페이지에서 수많은 부수를 접하게 되는 시각적 자극은 한자가 가지는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수용하는 간접적 기제로 작용한다. 1획인 한 일(一)자 부수에서 17획인 피리 약(龠)자 부수에 이르기까지 한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부수의 양태는 곧, 검색 단위로서의 기능을 초월하여 그것들 각기가 풍부한 노드를 품고 접속되기를 기다리는 다양한 링크로 변주가 가능한 것이다. 가령 기존 자전의 일반적 부수색인의 외형을 그대로 옮겨 구축한 아래 존 한자사전의 부수색인 페이지는,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링크가 조합된 ‘읽을거리’로서의 매

체성을 갖는다.

한자사전		部首索引	總畫索引	字音索引	字訓索引	附錄	揭示板
※ 붉은색 표시는 금주의 추천 부수입니다. 부수색인을 자주 이용하면 한자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二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三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四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五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六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七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八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九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一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二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三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四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五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六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七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八	획	一	二	三	四	五	六
十九	획	一	二	三	四	五	六
二十	획	一	二	三	四	五	六

<존 한자사전의 부수색인 화면>

기본적으로 부수색인은 특정한 글자를 찾기 위한 검색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검색의 기능성을 초월하여 그것 자체가 연상 작용(mental association)을 동반한 ‘읽기’ 매체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수’라는 단일 규칙으로 나열된 기호의 외형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언어적 자극의 계열화(paradigmatic) 양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입 구(口)를 부수로 가지는 특정 한자를 찾아본 후, 다시 부수색인으로 돌아와 큰 입 구(口)가 적용되는 한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형태의 검색 양상이 그와 같은 ‘읽기’ 방식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는 칼 도(刀)와 힘 력(力)이나 돼지해머리 두(ㄷ)와 갓머리 면(ㄷ), 날 일(日)과 가로 왈(日) 등 도상적 유사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차이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지만, 검을 현(玄)과 검을 흑(黑), 머리 혈(眞)과 머리 수(首)의 관계와 같이 의미의 유사성에 대비되는 도상적 요소의 차이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사전에서 특정한 글자를 검색하는 도중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읽기’ 양태는 비단 부수색인뿐만 아니라 한자 정보가 나열된 본문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고욤나무 천(櫛)자의 의미를 몰라 木 부수 15획 페이지를 검색하였다가, 해당 글자의 의미를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글자들 또한 ‘나무’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페이지 또는 그 주변부 페이지의 다양한 글자들을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경험은, 자전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볼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일 페이지 내에서 특정한 부수를 기준으로 여러 글자들이 계열화되는 가시적 측면으로부터 기인하는 결과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언어의 계열화 양상이 동반하는 연상 작용이 그러한 지적 호기심 및 읽기 행위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웹 자전에서 제공하는 표제자 및 표제어 정보 화면의 매체성과 종이 자전의 표제자 및 표제어 정보란이 제공하는 매체성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이 자전의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漢字가 여타 다른 글자들 사이에서 계열화된 상태로 시각화되지만, 아래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웹 자전에서는 단일 페이지에 단일 글자의 표제자 및 표제어 정보만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Naver 웹 자전의 표제자 검색 결과 화면>

이는 오직 자전의 기능을 글자 ‘찾기’에만 한정된 데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서적 형태의 자전이 가지고 있던 분류·배열·검색 체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찾기’ 뿐만 아니라 ‘읽기’의 기능 또한 은연중 포함하고 있다. 자전을 통해 몰랐던 글자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을 통해 처음 보는 글자들을 ‘읽을’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곧, 종이 자전이 한자 검색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한자 학습서로서의 역할 또한 그동안 풍부하게 담당해왔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찾는’ 자전이 아니라 ‘읽는’ 자전으로서의 기능은 또한 종이 자전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링크 다발로서의 하이퍼텍스트적인 성질을 강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초 검색하고자 했던 한자가 텍스트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자를 거쳐 다른 한자를 접하고 또 그 한자를 통해 또 다른 한자를 접하는 이러한 방식의 비선형적 읽기는 곧 노드와 링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책에도 물론 하이퍼텍스트의 닷 역할을 하는 각주가 있다. 독자는 본문을 읽다가 각주 표시를 만나면, 그냥 넘어가고 본문을 계속 읽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방향을 바꾸어 각주를 읽어볼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그렇지만 책에서는 각주에 다시 각주가 붙는 일은 없다. 책의 각주는 잠깐의 외도만을 허용할 뿐 곧바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중략)...하지만 하이퍼텍스트는 각주에 다시 각주가 붙고 그 각주에 다시 새로운 각주가 붙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각주가 일반화된 것'이 하이퍼텍스트라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중심이 본문이 아니라 각주가 되는 것이다.¹⁰³⁾

‘찾는’ 자전과 ‘읽는’ 자전의 성격이 다른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특정 글자를 ‘찾을’ 시에는 해당 글자의 표제자 정보를 본문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보는 모두 각주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자전이 ‘읽는’ 맥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시, 단일 한자의 표제자 정보는 중심화된 본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타 한자들과의 연상 관계 속에서 그것은 여러 각주 가운데 하나로 기능할 뿐이다. 일반 서적에서 ‘본문’과 ‘각주’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페이지 내에서 차별화된 배치의 국면임을 고려할 때, 찾고자 하는 한자의 표제자 해설이 단일 페이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되는가의 문제는 곧 ‘찾는’ 자전과 ‘읽는’ 자전의 기능적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문제와 같

103)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p.36

은 선상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표제자 정보를 단일 웹 페이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하여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의식은 결국 기존 종이 자전의 부수색인을 웹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고민과 유사한 함의를 갖는다. 종이 자전이 가지고 있던 매체로서의 특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하이퍼텍스트 기술이 적용된 웹 상에 온전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스며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종이 자전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매체로서의 특질을 온전히 재매개하고 있는 웹 자전의 하이퍼텍스트적 양상을 찾아보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이는 '단일한 기술양식을 갖추고 있는 특정 매체'로 종이 자전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수많은 글자 데이터를 종이 위에 쓰고 그것을 묶어놓은 서적으로만 전통 자전을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서적 형태의 자전이 지닌 기술 양식의 특질을 웹 상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의 고민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전 상의 방대한 글자 데이터를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에만 치중한 까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종이 자전이 가지고 있던 한자의 분류·배열·검색 방식 즉 단일 매체로서 종이 자전이 가진 특정한 기술양식을 고려하였을 때, 그것이 웹 상에서 제대로 된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재매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단일 한자 정보를 어떠한 형태의 '노드'로 구성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의 '링크'를 통해 검색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기능적 측면의 고민이 아니다. 하이퍼텍스트가 선사하는 효과적 기능을 기계적으로 웹 자전에 적용하기 이전에, 기존 종이 자전이 매체로서 인간 인식에 영향을 발휘해 온 특질적인 맥락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전은 단순히 단일 글자의 정보를 찾는 '검색서'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 차원을 넘어 이용자로 하여금 글자 정보 간의 연결망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락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학습서'로서 또한 자전이 수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종이 자전의 특징적인 매체 양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노드(node)-링크(link)'의 구조야말로 웹 자전 구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징적 Interface가 갖는 매체적 의미

하이퍼텍스트 개념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개념 또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의미가 정의된다. 이는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inter)'와

‘접속면(face)’ 두 개념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추상적 의미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와 대상 혹은 대상과 대상이 존재하고 그러한 요소들 사이(inter)에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 접속면(face)이 발생할 경우 인터페이스 개념은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기술이나 공학 영역에서 정의되는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시스템 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혹은 2개의 시스템이 상호적으로 작용 가능하도록 접속되는 경계(boundary) 요소나, 이 경계에서 상호 작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특정 조건이나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된다. 예컨대 신호의 전압, 주파수, 타이밍 등의 전기적 특성, 공통의 물리적 상호 접속 특성(기계적 특성), 명령과 응답 등의 논리적 특성 등이 기술이나 공학 영역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인터페이스 개념은 크게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나누어진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컴퓨터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치와 구성요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접속을 의미한다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매개로 기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칭한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개념은 그것의 광범위한 외연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UI)¹⁰⁴에 한정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는 이처럼 과거의 미디어 기계가 갖고 있던 물질적인 몸통을 상징적인 인터페이스로 바꾼다. 상징적인 인터페이스는 물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작 능력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선택하고 배열하면서 새롭게 합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을 사용자의 권능강화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의존성이 강화되고 있기도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조작이 쉬워지고 단순화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자동화된 인터페이스의 지배력도 커진다. 사용자의 권한과 능력 바깥에 있는 블랙박스의 권력이 사용자의 권능 뒤에 도사리고 있

104)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오늘날의 윈도우나 마우스로 작동되는 메뉴와 같은 GUI에 국한시켜 생각한다. 예를 들어 『Mobile Office』라는 잡지의 한 기사에서는 “머지않아 인터페이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말만 하면 될 테니까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 응답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음성-통제 시스템에 화면이 없어진 다 해도, 이들은 종종 끔찍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된다. 제품을 이용해 어떤 직업을 완수하는 방식,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한 것과 이에 대한 제품의 반응이 바로 인터페이스이다.” -제프 레스킨 저·이건표 역, 『human interface』, 안그라픽스, 2003. p.2

는 것이다.¹⁰⁵⁾

위 인용문에서 강조하듯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권능강화와 기술 의존성 개념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모순적 뉘앙스를 갖는다. 사용자의 주체적 자각 하에 인터페이스는 새롭게 배열·구성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자각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기술적 프레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언어적 함의를 본 장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사이(inter)’는 온갖 정보의 input&output이 발생하는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적 공간을 의미하며 ‘접속면(face)’개념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촉각적 요소와 모니터 화면이 선사하는 시각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감각과 인지의 양상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속면의 충격과 자극이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와 사용대상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되며, 그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정보나 지식의 형식 그리고 삶의 양식 또한 변화한다.¹⁰⁶⁾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가 가지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하여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곧, 뉴미디어의 매체성을 해부하는 행위이자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맥락을 역으로 살펴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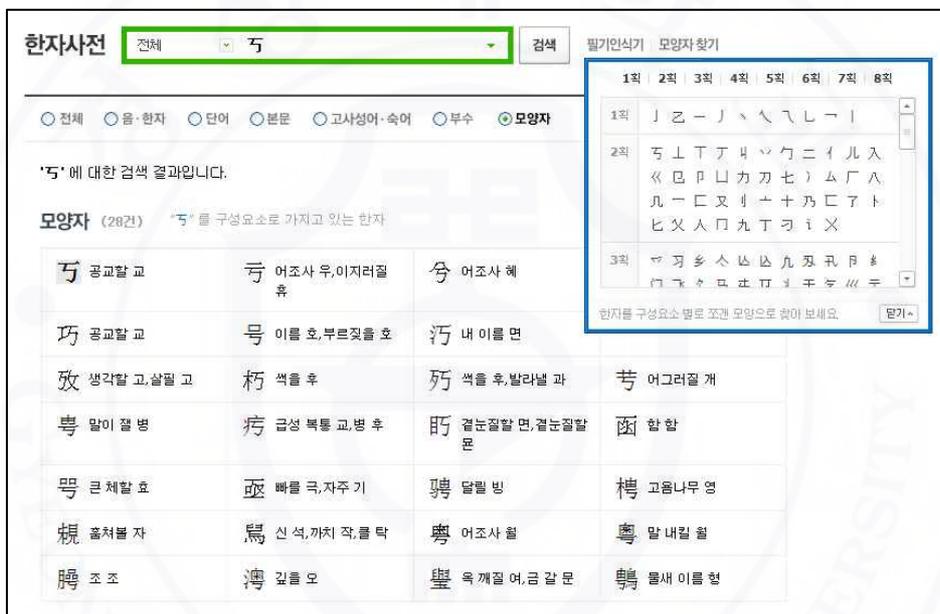
이에 근거하여,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현재 구현되어있는 한국 웹 자전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모양자·요소·결구 검색’과 ‘필기체 인식’ 두 가지 항목을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두 항목은 링크를 활용하던 기존의 단순한 웹 자전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속면의 경험을 사용자(user)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 자전이 해당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경험이 기존의 종이 자전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장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105) 백옥인, 「미디어의 탈경계화」, 『탈경계 인문학』3권1호 제5집,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0. p.189

106) 새로운 매체-인터페이스가 사회에 야기하는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타자기의 외파적 성격은 기존의 활자의 철자를 한층 더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고, 또 철자 및 문법이 규정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른> 또는 <획일적>인 철자와 문법을 지향하는 구텐베르크 테크놀로지의 압력이 타자기에 즉각 나타난 것이다. 타자기로 인해 사전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었다. 또한 타자기 덕분에 불록해진 서류 파일이 무수하게 생겨났으며, 결국 오늘날 파일을 정리하는 회사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타자기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른바 박식하다는 사람들은 손으로 쓴 글자에 담긴 인간미를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타자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제외시켰다.” -마셜 맥루한 저·김성기 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7. p.365

1) '모양자·요소·결구 검색'

'모양자·요소·결구 검색'은 그것들이 모두 한자를 이루는 공간적 층위에 집중하여 구현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기에 묶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실제, '모양자' 검색은 Naver 웹 사전에서, '요소' 검색은 Daum 웹 사전에서 그리고 '결구' 검색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유니코드한자검색시스템에서 각기 제공되고 있는 검색 방식이다.



<Naver 웹 사전의 모양자 찾기 화면>

위 화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Naver 웹 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양자 찾기'는 기존 종이 사전에서 활용하던 214 부수 체제에서 탈피하여 한자의 공간적 층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검색방식이라 할 수 있다. '모양자'에 해당하는 요소는 모두 8획에 의거하여 309개에 이르는데, 이들 요소는 기존의 부수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구결자와 간체자 형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정 한자의 총획과 자음, 추가적으로 부수까지 모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검색법으로서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는 검색법에 해당한다. 획의 형체에 근거하여 해당 획의 형체를 지닌 모든 한자 데이터를 출력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양자 찾기'는 종이 사전에 적용되었던 '필순검자법'¹⁰⁷⁾의 검색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검색 과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획이 가진 외형에 초점을 두고 한자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의 편의·효율성과는 별개로 기존 한자를 정의하던 개별적인 요소들 즉 ‘부수’나 ‘구결’ ‘간체자’ 개념을, 단지 획이 지니는 ‘시각적 형식’에 기초하여 모두 하나의 요소로 묶어버린 측면은 다소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판단된다. ‘부수’와 ‘구결’ 그리고 ‘간체자’ 개념은 한자가 가지는 외연의 맥락에서 공통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다른 위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래픽적 표기 양상’에 기준을 두고 그러한 상이한 항목들을 단일한 요소로 치부하는 시도는, 그것 자체로 기존 한자의 외연에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Daum 웹 사전의 요소검색 화면>

107) ‘필순검자법’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p.63~64 부분을 참고할 것.

Naver 웹 자전의 ‘모양자 찾기’가 한자가 가진 개별 획의 이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한자 검색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면, Daum 웹 자전의 ‘요소 검색’은 예시 화면에서 드러나듯이 획이 아니라 한자의 공간 구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한자 검색을 시도하였다. 앞서 ‘모양자 찾기’의 경우 종이 자전의 ‘필순검자법’에 대응하여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여지가 컸다면, ‘요소 검색’은 한자를 구성하는 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사각호마법’¹⁰⁸⁾의 검색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요소 검색’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❶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17개, ❷ 변/방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36개, ❸ 받침/발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12개, ❹ 몸/엄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14개, ❺ 중앙/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 244개로, 총 323개의 구성 요소가 한자를 이루는 다섯 공간 즉, 다섯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하나의 한자를 조합한다. 한자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가 323개라는 사실은, 기존 종이 자전의 214 부수체계보다 그 검색 절차가 더욱 복잡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이는 타일화된 형태의 구성요소를 각기 클릭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직관적 선택/취소와 그에 따라 오른쪽 긴 공간에 결과물의 가시적 형태가 즉각적으로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의 세련됨으로 인해 무화된다. 활성화된 구성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에 가까운 무언가가 오른쪽 공간에 출력된다는 측면에서, 검색 과정의 흥미 요소 또한 분명 강한 검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자의 공간적 구성을 5가지 분류 기준으로만 한정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해서체로 자리 잡음에 따라 편방의 분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한자의 역사적 전례를 도외시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얼마간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머리, 변/방, 받침/발, 몸/엄, 중앙/기타의 5가지 요소를, 한자를 이루는 보편적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해당 요소들의 언어적 지칭과 공간적 분포는 분명 한자가 가진 전통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요소들의 조합이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의 ‘모양자 찾기’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가시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색의 기능적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자 또는 자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언어·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반영한 검색방법이라 볼 수는 없다. 실제, ‘요소 검색’을 활용할 경우, 5가지

108) ‘사각호마법’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p.65~69 부분을 참고할 것.

구성요소에 그 공간개념이 정확히 적용되는 한자보다 그렇지 않은 한자가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자 공간을 인지함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짐작가능하다.

이처럼 ‘모양자 찾기’와 ‘요소 검색’이 기존 종이 사전의 ‘필순검자법’과 ‘사각호 마법’의 검색 메커니즘을 웹 상에서 재매개하여 한자의 공간적 층위에 있어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 결과물이라면, ‘결구 검색’은 기존 한자가 지닌 편방요소의 공간적 분화 형태를 웹 상에서 그대로 적용한 검색 방식에 해당한다.

• 결구/파자 검색

결구 검색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자가 결합된 12가지의 형태에 따른 검색 방법이다. 결구 검색은 12가지의 결구 형태에 대응하는 '부호'와 한자의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한자 전체의 결합 형태 뿐만 아니라, 한자 일부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결구 형태	검색 부호	검색 예시	검색 결과
	+	+木目	相 麗 想 霽 巍 ...
	/	/竹舍	答 制 搭 獲 ...
	++	++龔龔于	銜 龔 龔 龔 ...
	//	//言幅龔管	言 幅 龔 管 ...
	*	*口木	困 囪 龔 龔 ...
	/+	/+口口	向 龔 龔 龔 ...
	/-	+/口土	世 屆 ...
	[+]	[+口品	俗 龔 龔 龔 ...
	(+)	(+产生	制 龔 龔 龔 ...
	+))	+)口凶	匈 龔 龔 龔 ...
	-+)	-+虎乡	彪 龔 ...
	&	&大眼	龔 ...

※결구 검색에서 결합된 일부를 입력하지 않고 와일드 문자(?)를 넣어 검색할 수 있다.
예) +木?, ++龔?于

※결구 정보를 제외하고 한자에 포함된 n개의 파자를 순서로 상관없이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예) 木目, 竹舍

<민족문화연구원 유니코드 한자검색기에서 제공하는 결구 검색의 사용방법>

위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結構’는 편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다양한 형태에 근거한 개념이다. 편방이 결합하는 12가지 양상마다 검색 부호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편방의 글자들이 특정한 결합구조에 의거할 때 어떠한 단일 글자로서의 의미를 갖는지를 검색할 수 있게끔 하였다. 해당 검색법의 경우, 검색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터페이스의 편의적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구 형태에 적용되는 각각의 검색부호를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력 과정에서도 편방에 해당하는 낱글자를 직접 한자로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한 글자를 찾기 위해 여타 글자를 찾아서 입력해야한다는 사실은 검색 매체로서 사전이 가져야 할 본질적 기능에 대해 의문을 표하게 만든다.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할 경우 입력 절차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출력 결과는 풍부해야 하는데, 출력되는 결과

물보다 입력에 있어서 소모되어야 하는 절차가 더 많고 복잡하다면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것은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 판단된다. 첫째, 기존 종이 자전의 전통적 검색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검색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 참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터페이스의 완성도와 그를 통한 편의성 고려보다는 새로운 검색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체성의 확보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연구자를 위한 검색 매체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글자를 찾기 위해 해당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낱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의 경우, 한자나 한문에 익숙한 연구자에게 있어서 커다란 난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낱글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낱글자들을 검색 바에서 공간적으로 안내하기만 하면 원하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맥락에서 그 긍정적 의도를 도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편리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현재 '결구 검색'이 갖는 부정하기 힘든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한 바와 같이, '결구 검색'은 기존 한자가 가지고 있던 편방의 결합 양상 즉 공간적 외연을 그대로 계승·재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검색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모양자 찾기'와 '요소 검색'의 경우 검색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존 한자가 지닌 전통적 외연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 가지 인터페이스에 내포된 검색 메커니즘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지만, 세 요소 모두 공통적으로 한자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총위에 초점을 두고 구현되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 종이 자전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시각적 단위에 근거한 색인 체계가 웹 자전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노미디어가 아니라 멀티미디어로서 기능하는 웹 기반의 컴퓨터 환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양상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자를 통한 표현보다는 이미지를 통한 재현에 더욱 개방적 양상을 보이는 컴퓨터 환경의 특질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시각적 자극에 기초한 매체 형식이 앞으로 웹 자전을 구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것이며 그것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컴퓨터 그림 문자에서 이미지가 수반하는 메시지들(아이콘, 다이어그램, 그래프)은 보다 더 정밀하지만, 심지어 여기서도 이미지들은 빈번하게 순수한 형태들로서 흥

미롭다. 그림 문자의 성질은 두 개의 철저히 상이한 공간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중략)...컴퓨터 글쓰기는 보다 더 복잡하다. 그것은 그 공간 속에 열려지고 닫혀진 많은 체계들을 포함한다. 음성 문자, 그래프, 다이어그램, 아이콘 등은 컴퓨터 스크린 위에서 가지런히 존재할 수 있다. 컴퓨터 공간은 새로운 기호들을 포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각각의 매킨토시는 자신의 고유한 아이콘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콘을 수용함을 말한다. 즉 글을 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각각의 정교한 프로그램은 그 사용자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적 표현을 갖고 있는 데이터 요소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한다. 이 같은 요소들은 토픽적 요소들로서 사용자는 유의미적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합한다. 예컨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요소들은 원, 사각형, 다른 기하학적 형상들로서 사용자는 창조하고, 움직이고, 크기를 조절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 전체로서의 컴퓨터 시스템은 그 같은 코드들의 팽창하는 레파토리아이다. 컴퓨터에서 문자의 요소들은 언제나 플렉스에 있다.¹⁰⁹⁾

인용에서 언급하듯이, 디지털 언어는 기존의 문자가 가지고 있던 선형적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적 표상에 근거한다.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언어의 그림 문자 양상은 재현과 은유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용자로 하여금 끝없이 각인시키고, 쉽 없이 처리를 요구하는 웹 상의 수많은 데이터는 각각의 시각적 특징을 통해 그 의미를 사용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러한 양상이 끝없이 반복되는 웹 환경에서 본래 그림 문자로서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한자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자전의 경우, 데이터의 시각적 처리 및 그래픽 요소의 적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모양자 찾기’와 ‘요소 검색’ 그리고 ‘결구 검색’과 같은 검색 방식이 웹 자전에서 구현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그래픽 차원의 검색 방식이 새롭게 고안되고 서비스됨에 따라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한 매체적 이해가 적절히 도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양자 찾기’와 ‘요소 검색’에서 드러났던 효율성 위주의 인터페이스 중시에서 벗어나 ‘결구 검색’에서 시도하였던 전통적 맥락의 한자 이해를 충실히 고려할 때, 양자의 단점을 적절히 보완한 그래픽 검색 인터페이스 형식이 온전히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109)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316~317

2) '필기체 인식'

'필기체 인식'을 이용한 검색방법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웹 사전 가운데 Naver와 Daum에서 대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찾고자 하는 한자를 직접 마우스를 이용하여 필기인식 공간 가운데 쓸 경우, 쓰여진 필획의 공간적 통계 추정 원리에 따라 그와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자들이 자동적으로 검색되어 출력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분석법(structure analysis)에 근거한 문자인식(character recognition) 방법은 검색을 위한 색인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경제적인 검색방식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증가 및 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마우스를 사용하여 한자를 쓰는 경우보다는 손가락을 그어 한자를 작성하는 경우의 빈도가 잦아졌다. 이는 매체가 가지는 편의성이 더욱 증대됨을 뜻하며, 이에 따라 '필기체 인식'이 웹 사전의 주도적 검색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한자 검색 방법으로서 '필기체 인식'이 갖는 검색의 효율성 차원과 별개로, 그것이 매체로서 갖는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필기체 인식'은 분명 한자를 쓰는 검색법이지만, 한자를 쓰지 않고 그려도 그에 따른 결과물이 출력된다. '한자를 쓰든 그리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찾고자 하는 글자를 찾았다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자를 쓰는 것은 곧 그것을 글자로 인식하는 것이며, 한자를 그리는 것은 그것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 때문인지 Naver와 Daum 두 웹 사전은 모두 필기인식 공간에 있어서 '획'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Naver 웹 사전의 필기인식 화면>



<Daum 웹 사전의 필기인식 화면>

두 예시 화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한자를 필기함에 있어서 획은 기본적인 단위로 작동한다. 필기인식 공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1획 지우기’ 버튼은 그러한 구성요소로서의 필획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필기인식 공간 내에서 작성되는 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획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표명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한자의 개별 획에 대한 기본적 학습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한자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한자를 그린다하더라도 검색은 이루어지며 원하는 글자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입구(口) 자를 쓰기 위해서는 총 세 번에 걸쳐 획을 그어야 하는데, ‘필기체 인식’을 통해 마우스로 그릴 경우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다. 이 때 ‘1획 지우기’ 버튼을 사용할 경우, 하나의 획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린 모든 부분이 삭제된다. 입구(口) 자를 한 번에 그려냈을 경우, 입구(口) 자가 통째로 ‘1획’으로 처리되어 지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는 흥미로운 양상과 마주하게 된다. ‘1획’이 한자를 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으로서의 획을 의미하는지, 사용자 개인이 한자를 쓰거나 그리면서 단독적으로 적용한 개인적 기호를 의미하는지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UX)은 분명 단독적 차원의 기호로 ‘1획’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 한자가 지니는 획의 양상은 개인이 함부로 변형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구(口) 자의 획수는 분명 3획임에도 불구하고, 입구(口) 자를 한 번에 그려냈을 경우 그것의 획수를 1획으로 수용하게 되는 독특한 경험이 사용자에게 발

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1획 지우기’는 가급적이면 개별 한자의 획을 맞추어 쓰라는 당부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필기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규칙에 대한 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획으로 대표되는 한자의 識字的 특질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쓰기’보다는 ‘그리기’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자가 가진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적용한 검색매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종이 자전의 총획수 색인이 지니는 매체성을 분석하면서 한자의 획이 가진 독특한 전통적·문화적 함의를 강조하였듯이¹¹⁰⁾, 획이 가지는 의미를 왜곡하고 오히려 그것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검색 방법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을 그리는 것’과 ‘획을 긋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차원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새롭게 발명된 기술을 웹 자전에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적 측면에 대한 매체적 분석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내적으로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그 자체로 특별할 것이 없다. 필자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두 가지 요소(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가 갖게 되는 정신 모델, 즉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시되는지,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용자의 정신 모델은 특정한 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연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알고리즘)의 추상적 구조를 반영한다.¹¹¹⁾

인용에서 강조하듯이, 가시화된 형태의 인터페이스 이전에 응용 프로그램 설계에 비가시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 또한 하나의 매체로서 사용자 경험에 무의식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필기체 인식 기술’로 지칭되는 지능형 문자 인식(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의 경우 필기인식 대상이 지닌 시각적 구조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DB로부터 필터링·출력하는 절차를 취한다. 이는 픽셀 단위로 인지되는 그래픽적 요소를 비교·대조하는 형식으로, 그것의 본질적 맥락은 그어지는 대상을 하나의 문자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수용하는 양상에 가깝다. ‘필기체 인식’을 사용하여 선을 하나 그

110) 한자의 획이 가진 전통·문화적 함의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p.54~62 부분을 참고할 것.

111) 레프 마노비치 저·이재현 역,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270

을 경우, 그러한 경험을 반영하는 기술적 알고리즘은 이미 해당 대상을 획(문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림의 개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지닌 기술적 차원의 특징까지도 하나의 매체로 수용하고 그것을 분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터페이스가 가시적으로 사용자를 유도하고 구체적 경험(UX)을 규정하는 것에 비해, 알고리즘은 직접적으로 그 양상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변환시키는 수동적 요소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기능하는 인터페이스가 오히려 응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기능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부가적 요소로 정의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알고리즘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매체로서 응용프로그램이 기능하는 다양한 양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IV. 결론

서론에서 밝힌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문학 연구자 특히 한문학 연구자가 향후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연구물을 새로운 콘텐츠 형식으로 옮겨내는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매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강조이다. 이 때 매체를 고민한다는 것은 뉴미디어가 지닌 기술적 스펙트럼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기존 미디어가 인간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문화·전통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한다. 예컨대 기존 종이 자전의 매체성을 분석한 II장과 웹 자전의 매체성을 분석한 III장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본고의 구성이 그러한 의도를 담아낸다고 하겠다. 뉴미디어가 가진 매체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기존 미디어의 매체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단순히 콘텐츠의 물리적 변화에 조용한 미디어의 발전적 양상을 파헤쳐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의 변화를 발전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그것이 지니는 콘텐츠 또는 데이터 구성의 변화는 양적 차원의 변환(variation) 개념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콘텐츠 또는 데이터 구성과 같은 객체의 상태변화가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존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의 변화를 통해 주체가 경험하게 되는 질적 차원의 인식 전환(transition)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기존 서적 형태의 전통 자전이 가지는 매체성과 인터넷 상에 구현된 웹 자전의 매체성이 이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두 미디어를 수용하는 인간 인식의 경험이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한자 데이터나 콘텐츠가 구성된 기존 종이 자전의 형식을 웹 상에서 매우 유사하게 구현한다 하더라도, 종이 자전을 통해 경험해온 전통적 사유와 삶의 방식을 현대 웹 자전에 온전히 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로부터 뉴미디어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재매개의 맥락은 인간 인식의 복합적 작용을 반영한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 그리스인들은 구전 신화와 영웅 전설 공간을 좀 더 정확하면서 선형적인 파피루스 두루마리 공간(그리고 돌이나 나뭇조각)으로 개조했다. 에릭 해블록(Eric Havelock, 1982)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됐다. 고대 말기에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바뀌면서 글쓰기 공간은 다시 변화했다.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해 2차원 표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서유럽에서는 필사 코덱스에서 인쇄본으로의 변화로 인해 이런 개조 과정이 또다시 생겼다. 전자 글쓰기로서의 이동 역시 이런 개조 과정의 하나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재매개(remediation)”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재매개란 말 속에는 새로운 매체들이 앞선 매체를 대체하면서 그 매체의 글쓰기 특징들을 빌려와서 재조직하며, 그것들의 문화적 공간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것은 귀뿐 아니라 눈까지 관여시키면서 단어들에 현실에 대한 다른 요구를 부여해 줌으로써 구술 커뮤니케이션을 재매개했다. 다른 변천 과정 역시 독자인 우리가 텍스트와 그것이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에 접근하는 조건을 요란스럽고 철저하게 바꿨다. 재매개에는 존경과 경쟁이 함께 수반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체는 이전 매체의 일부 기능들을 모방할 뿐 아니라 옛 매체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¹²⁾

인용에서 강조하듯이 재매개는 ‘존경’과 ‘경쟁’, ‘모방’과 ‘개선’을 동시에 수반한다. ‘존경’과 ‘모방’은 기존 미디어의 재현(representation) 방식에 대한 숙려이며, ‘경쟁’과 ‘개선’은 뉴미디어의 기술혁신이 야기하는 필연적 절차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간의 인식은 ‘존경’과 ‘경쟁’, ‘모방’과 ‘개선’의 혼돈 속에서 복합적 전환(transition)을 경험한다. 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존경’을 통한 ‘모방’과 ‘경쟁’을 통한 ‘개선’의 통로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유는 『논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환경의 學文과 禮法 체제가 지니고 있던 특질을 어떻게 수용·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자는 ‘溫故知新’의 태도를 강조하였다.¹¹³⁾ ‘溫故’는 일반적으로 ‘옛 것을 익힌다’는 개념 정도로 수용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미디어가 지닌 특질에 대한 존경이 스며있다. 옛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낡은 대상이 아니라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던 삶의 일반적 원리를 품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이다. 옛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기존 미디어가 품고 있는 인간 삶의 보편적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전통(tradition)은 시대와 공간을 불변하고 ‘존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知新’은 일반적으로 ‘새 것을 안다’는 개념 정도로 수용된다. 이 때 ‘안다’는 것의 의미는 ‘know’가 아니라 ‘see’에 가깝다. “I know”가 아니라 “I see”로 이해되는 見[知]의 개념은 곧,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는 질서로부터 이탈된 경험을 가리키며, 이러한 경험의 확장은 기존 미디어에 대한 뉴 미디어

112) 제이 데이비드 볼터 저·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35

113) 『論語』『爲政』,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의 ‘경쟁’ 표명이며 ‘개선’의 형식은 곧 그러한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옛 것을 익히는 것[溫故]과 새 것을 안다는 것[知新]이 마치 별개의 행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두 행위 작용은 강조점이 다를 뿐, 개념의 상대화적 사유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동시적 인식에 가깝다. ‘溫故’는 곧 ‘知新’을 전제하며, ‘知新’은 곧 ‘溫故’를 전제한다. ‘경쟁’ 인식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전제되며, ‘개선’의 결과는 ‘모방’의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볼터가 강조한 ‘재매개(remediation)’ 개념은 뉴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내는 급진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수동적 언명이 아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의해 촉진되는 미디어의 물리적 조건 변동은 분명 인간의 삶을 바꾸어놓는 강력한 요소로 기능하지만, 그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또한 인간은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인문학 연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미디어 체재의 익숙함에 집착하거나 뉴미디어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환상에 도취된 태도는, 양자 모두 미디어 이해에 대한 수동적 시각을 극명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자세이다. 연구자가 취해야 할 능동적 시각은, 기존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체재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술 영역이 각기 가지고 있는 매체성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현재시점의 특수한 현실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할 것이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곧,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며 인간 삶이 지닐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이자 이를 통해 현재 삶의 특수성을 정의할 수 있는 능동적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논어』에서 강조했던 ‘연구자의 가치[可以爲師矣]’가 그대로 투영된 학문적 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가 ‘字典’이라는 기존 미디어와 ‘웹 字典’이라는 뉴미디어의 비교·고찰을 통해 다수의 인문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매체에 대한 고민과 각성을 유도하고자 한 다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의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제는 매우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한문학계에서 진행되어온 ‘고문헌 전산화’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실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제에 해당한다. 서론에서 언명하였듯이 연구 대상 분석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이 지닌 매체적 특질’을 상징하여, 고문헌이 가진 매체성 그리고 해당 고문헌이 웹에서 구현되었을 때의 매체성을 파악하고 또한 그러한 매체성의 비교·인식이 ‘고문헌 전산화’ 사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해명하기 위해 집중하였으나, 연구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첫 번째 한계는 분석에 있어서 연구 대상이 지닌 매체적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 줄만한 적절한 비교 대상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 연구 대상을 ‘한국 자전’으로 한정된 의도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자전’만의 특질을 강조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서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일본 자전을 일부라도 분석·언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차후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공통적 한문 문화권에 들어가는 동북아 네 국가의 자전을 매체적 관점에 근거하여 비교·고찰해보는 것 또한 매우 큰 연구사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용화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OS를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 앱 자전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구축되어 키보드·마우스로 입력되고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되는 웹 자전의 양상과 스마트 기기의 OS로 내려 받아 손가락 터치 입력이 가능한 작은 화면으로 출력되는 모바일 앱 자전의 양상이 다름을 고려할 때, 향후 그러한 두 가지 형태의 뉴미디어 자전을 비교·검토해보는 작업 또한 매체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한계로는 구체적 연구 방법론의 미비를 거론할 수 있다. 논의 범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한국 자전’으로 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론을 일반화하고 보편적 프레임의 형식으로 도출해낼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또한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미디어 일반을 정의하고 특정 미디어 형식을 분석,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일반적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학제 간 연구에서 간혹 통용되는 몇 가지 분석 프레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공하여 보편 이론으로 희석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접근이기 때문이다.¹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문헌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고문헌에 대한 매체적 관점의 접근이 하나의 현실적 연구 방법론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이론 형식을 갖추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숙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III장에서 제시한 기존 웹 자전의 매체적 특질에 대한 분석이 실제 웹 자전 구축이나 기존 웹 자전의 수정 업데이트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괄하여 정리할 수 있는 이론적

114) 예컨대 이러한 미디어 분석 프레임 마련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최근 레프 마노비치는 현대 멀티 미디어 양상에 있어서 핵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임을 천명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성되는 미디어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야말로 현대 미디어 일반을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레프 마노비치 저·이재현 역,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32~52 내용 참조.

시각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한계는 연구 결과를 실제 전산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프로젝트와 연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의 프로젝트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미비점은 현재 시점에서 단지 아쉬움으로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III장을 통해 현재 구현되어있는 웹 자전의 특징적 양상을 소략하나마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요소들을 일부 지적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실무 성격의 프로젝트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 본 연구가 갖는 뚜렷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차후 이와 같은 연구가 ‘고문헌 전산화’ 작업의 맥락에서 심화·연장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식형 사업 지원 또는 민간 사업자와 연계한 산학협력 형태의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의의를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나 논의의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단지 기존의 한자학이나 한문학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에서 색다른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해 보고자 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나 방법의 운명이 으레 그러하듯이 안정감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그에 걸맞은 논의의 깊이와 엄밀성을 확보치 못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향후 한자와 한문이라는 매체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각을 통해 ‘고문헌 전산화’ 작업에 대한 발전적이고 생산성 있는 논의를 향한 작은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그 과도적인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하는 것으로 논의의 끝맺음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원전자료

李湫, 『弘道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속54집

○ 역서 및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저·이경훈 역,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2002.
- 가라타니 고진 저·조영일 역,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b, 2011.
- 김성도, 『디지털 언어와 인문학의 변형』,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 김용옥, 『石濤畫論』, 통나무, 2004.
-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흥규 외 6명 편, 『유니코드 한자정보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저·백옥인 역,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니콜라스 카 저·임종기 역, 『빅스위치』, 동아시아, 2011.
- 니콜라스 카 저·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
- 대니얼 찬들러 저·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 데리다 저·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3.
- 디터 메르쉬 저·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연세대출판부, 2009.
- 랜덜 패커 켄 조던 선·아트센터 나비 학예연구실 역, 『멀티미디어』, 나비프레스, 2004.
- 레프 마노비치 저·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4.
- 레프 마노비치 저·이재현 역,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류종디 저·이유진 역, 『동양고전과 푸코의 웃음소리』, 글항아리, 2013.
- 마셜 맥루한 저·김성기 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7.
- 마셜 맥루한 저·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미셸 푸코 저·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 박해천, 『인터페이스연대기』, 디자인플렉스, 2009.

-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 樊樹志 저·김지환 외 3인 역, 『100가지 주제로 본 중국의 역사』, 고려대출판부, 2008.
- 傅樂成 저·辛勝夏 역, 『中國通史-下』, 지영사, 1998.
- 빌렘 플루서 저·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孫鈞錫, 『中國漢字學史』, 學苑出版社, 1991.
- 沈兼士,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2004.
- 양주동,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앨런 쿠퍼 외 2인 저·고태호 외 2인 역, 『퍼소나로 완성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About Face3』, 에이콘, 2010.
- 吳小如·莊銘權 編著, 『中國文史工具資料書舉要』, 中華書局, 1985.
- 오시마 쇼지 저·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2003.
- 윌터 J 옹 저·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 이규갑, 『한자가 궁금하다』, 학민사, 2000.
- 이노우에 스스무 저·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역, 『중국 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 이택후 저·윤수영 역, 『미의 역정』, 동문선, 2003.
- 장 보드리야르 저·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2004.
- 장파 저·백승도 역, 『장파 교수의 중국미학사』, 푸른숲, 2012.
- 제이 데이비드 볼터 저·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제프 래스킨 저·이건표 역, 『human interface』, 안그래픽스, 2003.
- 조셉 니덤 지음·콜린 로넌 축약, 『중국의 과학과 문명2: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까치, 2000.
- 조지 P. 란도 저·김익현 역, 『하이퍼텍스트 3.0』,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찰스 샌더스 퍼스 저·김성도 역, 『퍼스의 기호사상』, 민음사, 2006.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저·최승언 역,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2006.
- 풍우란 저·박성규 역, 『중국철학사-上』, 까치, 1999.
- 피에르 레비 저·강형식 임기대 역, 『지능의 테크놀로지』, 철학과현실사, 2000.
- 피에르 레비 저·전재연 역,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궁리, 2002.
- 해롤드 A. 이니스 저·김문정 역,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허승일,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 헨리 젠킨스 저·김정희원 김동신 역, 『컨버전스컬처』, 비즈앤비즈, 2008.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저·송병선 역, 『픽션들』, 민음사, 2011.

○ 일반 논문

강민구, 「기획논문 주제: 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학습자전의
향방과 개발에 대한 제언」, 『한문교육연구』41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구모니카, 「디지털 언어와 글로컬 문화콘텐츠 가능성」, 『인문콘텐츠』제23호, 인
문콘텐츠학회, 2011.

김경호·류준필·이영호, 「한국유학자료의 회집과 전산화 -‘한국경학시스템’과 ‘한
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김기연, 「주관성 연구를 통한 태블릿 사용자 경험(UX) 유형 연구」, 『주관성연구
:Q방법론 및 이론』제25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2.

김기주, 「중국 철학 원전의 전산화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오늘의동양사상』제
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김동윤, 「창조적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창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연구 :‘융합학
제적’ 접근의 한 방향」, 『인문콘텐츠』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김성도·심소희, 「한자와 디지털 언어 :그 기호학적 접점을 찾아서」, 『영상문화』
제2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00.

김성도, 「말 글 그림 -융합 기호학의 서설」, 『기호학연구』7권, 한국기호학회,
2000.

김성도·이지영, 「웹의 융합 기호학적 접근」,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2001.

김성도, 「특별기고 논문: 상호매체성의 융합기호학적 함의 :하이퍼미디어에서 발
현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 『텍스트언어학』제13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

김성도, 「이미지의 시원」, 『영상문화』제12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07.

김성도, 「한국 매체 문화사의 구상 -문자 활자 책의 상호 매체성을 중심으로」, 『
기호학연구』27권, 한국기호학회, 2010.

김성도, 「정신의 기호학과 조형의 생명력 :서예의 기호 현상학적 시론」, 『영상문
화』제22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13.

김수영, 「향토문화 콘텐츠를 위한 디지털 편찬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제26권,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김영경, 「字彙 부수 소고」, 『중국문학연구』제45집, 한국중문학회, 2011.

김원방, 「전자매체예술에 있어 기호의 새로운 위상과 그 한계에 대하여」, 『한국

미학예술학회지』제16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2.

김원열, 「인문콘텐츠의 학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대와 철학』제20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김응학, 「이서 《필결》에 나타난 서예의 역리적 이해」, 『동양예술논총』제9집, 강암서예학술재단, 2005.

김종명,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인문학적 중요성」, 『불교연구』15, 한국불교연구회, 1998.

김종혁,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김종환, 「네이버 어학사전의 현황과 미래」, 『한국사전학회 제18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전학회, 2011.

김지영,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동양학』54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김진현, 「인터페이스의 매체성 :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의 체현미학 연구」, 『탈경계인문학』2권 2호 제3집,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09.

김창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모색」, 『한국사전학』제17호, 한국사전학회, 2011.

김현, 「디지털 정보시대의 인문학」, 『오늘의 동양사상』7호, 한국동양철학회, 2002.

김현, 「한국 고전적 전산화의 발전 방향 -고전 문집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전략」, 『민족문화』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김현,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43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김현, 「문화콘텐츠, 정보기술 플랫폼, 그곳에서의 인문지식」, 『철학연구』90권, 철학연구회, 2010.

김현명, 「디지털 시대의 예술 혹은 정보」, 『신라인문학강좌』제2호, 신라대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형우, 「스마트폰 UX에서 개념 메타포의 재매개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지』14,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3.

김흥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와 전망」, 『민족문화연구』38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남권희,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국학연구』2, 2003.

-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대동문화연구』제39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도원영, 「다매체 시대의 사전 편찬과 편집기」, 『한국사전학』제21호, 한국사전학회, 2013.
- 류준호·윤승금·이영주,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제10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 미셸 블로, 「책 인간 몸의 상징」, 『기호학연구』제35집, 한국기호학회, 2013.
- 박승억, 「총체적 디지털화와 인문학의 미래」, 『인문과학』제48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 박재민, 「고등학교의 訓借字, 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139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 박진훈, 「고려시대 문헌자료 정보화 사업 현황 및 이용실태와 효과적인 활용방안」, 『한국중세사연구』 3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1.
- 박추현, 「중국어 한자 사전의 몇 문제: 자전검색법과 214부수」, 『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01.
- 박추현, 「한자 해서체 자형에 나타나는 자소의 변이형태 小考」, 『남명학연구』제29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백옥인, 「미디어의 탈경계화」, 『탈경계 인문학』3권 1호 제5집,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0.
- 사이토 마레시, 「가나(仮名)와 와슈(和習)-한자권의 에크리튀르(ecriture)로서-」, 『일본연구』17권,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2.
- 서경호·김문식·연갑수, 「규장각 소장 자료의 전산화 방안과 현황」, 『규장각』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 손병규, 「조선시대 국가기록의 전산화 방안 -戶籍 전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2001년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2001.
- 송성욱, 「디지털 기술과 한국고전소설 연구」, 『중국소설논총』제23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
- 신광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제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 신정아, 「통합적 상상력과 디지털 미디어의 만남을 통한 문화콘텐츠 기획」, 『인문콘텐츠』제23호, 인문콘텐츠학회, 2011.
- 양진석, 「의궤서명의 통일과 전산화 방안」, 『규장각』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오은경, 「멀티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소통/테크놀로지의 상호침투」, 『코기토』제68호,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0.

오일환·이승관, 「고지도를 이용한 웹기반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1, 한국콘텐츠학회, 2011.

유동춘, 「《설문해자》에 보이는 漢代 지배 이데올로기」, 『중국언어연구』제19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4.

유해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활용과 21세기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어문학』68, 한국어문학회, 1999.

윤은호, 「집단지성 및 백과사전의 한계 그리고 미래 :한국어 위키백과와 집단지성 위키들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전학회, 2012.

윤재민, 「민족문화추진회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윤중현,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별 특성이 정보매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제27권 제3호 통권 제77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이건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제23권 제1호 제59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

이건식, 「장서각 디지털 자료관 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학 자료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정보 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군선, 「한국국학진흥원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기동, 「사전 뜻풀이의 검토」, 『인문과학』제57집,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1989.

이남희, 「조선시대 자료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현단계와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이남희, 「한국 철학 원전의 전산화,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오늘의동양사상』제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이남희, 「인문학과 지식정보화」『인문콘텐츠학회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움』, 인문콘텐츠학회, 2002.

이남희, 「조선왕조실록 디지털화 과정과 방향」, 『청계사학』16·17, 청계사학회,

2002.

이남희, 「『고려사』 디지털화의 방향과 과제」, 『청계사학』 18, 청계사학회, 2003.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정리 표준화」, 『고문서연구』제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이남희, 「문화콘텐츠화,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 역사자료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종교』제28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4.

이남희, 「문화콘텐츠로서의 인문학-논평1」, 『고전문학연구』25권, 한국고전문학회, 2004.

이남희,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활용에 대하여」, 『오늘의 동양사상』 통권14호, 한국동양철학회, 2006.

이남희, 「고문서 정리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문서연구』제29집, 한국고문서학회, 2006.

이남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과 과제」, 『인문콘텐츠』제10호, 인문콘텐츠학회, 2007.

이남희,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서자료의 조직」, 『영남학』제14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이남희, 「고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한자 처리 문제」, 『영남학』제17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0.

이남희, 「인문학 디지털아카이브 전망과 과제 :구축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원불교 사상』제56집,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이동재, 「존경각 고문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동철, 「한국에서 한문번역 관련 공구서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제38집, 한국고전번역원, 2011.

이두영, 「디지털 딜레마」, 『인문학연구』제36집, 중앙대인문과학연구소, 2003.

이상섭,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제61집,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1989.

이상찬, 「규장각 자료의 정보화 방향」, 『규장각』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이승종, 「문자 영상 인문학의 위기」, 『철학』제101집, 한국철학회, 2009.

이시다,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신체와 글자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기호학적 프로젝트」, 『기호학연구』제35집, 한국기호학회, 2013.

- 이익강, 「효율적 자전활용방안에 관하여」, 『한자한문교육』제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 이정희, 「국사편찬위원회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이종훈·변성광, 「디지털콘텐츠 의미 형성과정과 실제적 이해」, 『인문콘텐츠』제13호, 인문콘텐츠학회, 2008.
- 이충구, 「한국사전 성립의 고」, 『반교어문연구』3, 반교어문학회, 1991.
- 이충구, 「한국사전의 실상」, 『한국학논집』제2집,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 이충구, 「한중일 사전 비교 연구」, 『반교어문연구』11, 반교어문학회, 2000.
- 이형대, 「디지털 정보시대의 문화지도 그리기」, 『민족문화연구』38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 이효걸, 「국학자료와 문화산업」, 『국학연구』제2호, 한국국학진흥원, 2003.
- 전정현·전지연, 「온라인 역사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27권,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 전택수,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인문학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에 대한 논고」, 『정신문화연구』제25권, 한국한중양연구원, 2002.
- 정재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정재철, 「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 『동양학』제50집,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1.
- 정현선, 「언어 문화 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제25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6.
- 정형도, 「한한대사전의 구건과 자형 정비」, 『동양학』52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 조은하, 「디지털 시대의 문화생태계」, 『한국학연구』제3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조형진, 「고문헌의 디지털화 성과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0권 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 채춘옥, 「한중 한자어 비교사전 구축을 위한 초보적 고찰」, 『한국사전학』제17호, 한국사전학회, 2011.
- 최민성, 「인간 디지털 하이인터페이스」, 『한국언어문화』4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최식, 「문천각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최연주, 「고려시대 미정보화 자료의 현황과 전산화 방안」, 『한국중세사연구』제3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1.

최영애, 「중국 사전의 사적 고찰」, 『언어정보와사전편찬』1권, 연세대언어정보연구원, 1988.

최영호, 「고려시대 대장경·문집·고문서 자료의 정보화 현황과 전산화 방안」, 『한국중세사연구』 3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1.

최진옥·양창진, 「향토인물정보의 형식 표준화 및 종합적 연계 활용 방안」, 『인문콘텐츠』제9호, 인문콘텐츠학회, 2007.

최혜실, 「디지털 매체와 소통의 변화」, 『서강인문논총』제19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Christopher Winestock, 「모바일 전자사전 시장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전학회 제18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전학회, 2011.

함한희·박순철,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문제점과 방향 :문화원형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제17권,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허인섭, 「불교 문헌 및 문화 관련 DB 구축의 현황과 과제 -EBTI와 ECAI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오늘의동양사상』제7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허철, 「동아세아의 전산화 현황과 비교를 통해 본 고전전산화의 과제:한국과 중화권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60집 기념호, 대동문화연구원, 2007.

허철, 「기획논문: 주제: 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한문 학습 디지털 자전의 효용성과 DB설계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일견」, 『한문교육연구』제41집, 한문교육학회, 2013.

황순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기능적 유용성과 표현양식에 관한 비평적 고찰」, 『일러스트레이션포럼』31,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2.

황순재,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계보학적 양상」, 『디지털디자인학연구』35,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2.

○ Web site

-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고전번역원 종합 DB)
<http://www.kostma.net>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hanja.naver.com> (Naver 한자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hanja> (Daum 한자사전)
<http://www.e-hanja.com> (e.hanja 한자사전)
<http://www.zonmal.com> (존 한자사전)
http://www.toegye.ne.kr/dic/dic_first.asp (국제퇴계학회 電子字典)
<http://kb.sutra.re.kr/ritk/etc/chinese/chineseBitSearch.do>
(고려대장경연구소 한자사전)
<http://db.itkc.or.kr/DCH/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정보검색)
<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
http://riks.korea.ac.kr/ccrc/?pg=P_a45dbc73a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유니코드 한자검색기)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자자형전거)
<http://www.beginnersguidetohtml.com/guides/html/introduction/introduction-to-html-and-css>
(Beginner's Guide to HTML)